발간사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현장 사서들이 체험한 도서관 실무 개선 및 발전적인 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도서관 현장의 연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1회 도서관 현장 발전 우수사례 공모'를 추진하였습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사례집 「도서관 현장 발전 우수사례 2007」은 전국 도서관에서 응모한 사례 30편중 우수작으로 선정된 9편을 수록한 것으로, 도서관 현장에서 다양한 계층의 이용자를 위한 특화된 프로그램 등을 기획, 개발하고 운영하는 사례 및 효율적인 자료 수집과 보존 등의 실례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번 「도서관 현장 발전 우수사례 2007」이 도서관 실무 개선 및 발전적인 운영을 위해 적극 활용되어 도서관 현장의 연구 활동을 촉진하고 장려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도서관 현장 발전 우수사례 공모에 대하여 더욱 깊은 관심과 애정을 기대하며, 귀중한 사례집으로 활용되기까지 공모에 참여해 주신 전국 의 사서 여러분과 심사위원님 그리고 도서관연구소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2007년 12월 12일

국립중앙도서관장 전경상

목차

1. 지금 우리의 기록을 천년의 보물로
- 향토자료 발굴 및 E-Book 제작을 통한 기록물 보존의 혁신 -
이 윤 전 ····· 1

2. 장애인 체험(점자, 안내견) 교실
황 숙 경 ····· 13

3. (작은 대학의) 도서관현장 발전사례
이 경 자 ····· 31

4. 학교연계 프로그램을 통한 청소년의 도서관 이용 활성화 방안
김 선 태 ····· 51

5. Library 2.0 기술을 활용한 도서관 서비스 개선 사례
손 태 익 ····· 69

6. 비도서 자료 관리 보존 복제
오 태 호 ····· 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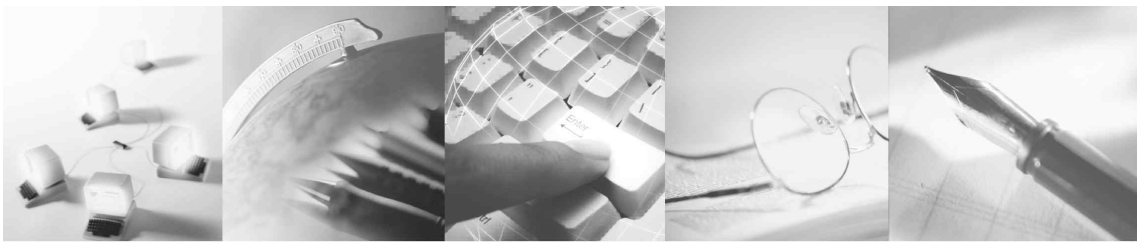
7. 강의 환경 변화를 선도하는 대학도서관 서비스 방향 모색
- 충남대학교도서관 강의지원서비스 운영 사례 -
이 근 희 ····· 107

8. 공공도서관을 통한 '인문학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김 정 규 ····· 135

9. 울산을 바꾸는 힘 울산남부도서관에 있어요
임 미 희 ····· 151

지금 우리의 기록을 천년의 보물로

- 향토자료 발굴 및 E-Book 제작을 통한 기록물 보존의 혁신 -



기 관 명 속초도서관

제 출 자 이 윤 전

현황 및 소개

천혜의 자연환경에 둘러싸여 있는 속초도서관은 1986년 5월에 개관한, 연면적 1,514㎡의 소규모 도서관이다. 늘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도서관>을 지향하며,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베스트셀러 및 화제의 신간도서> 코너를 특색사업으로 운영, 2주에 한 번씩 신간도서를 구입·비치하고 있다. 특히, 2006년부터는 어린이들이 도서관을 놀이터처럼 매일 들를 수 있도록 <도서관과 친구하기- 1일 1스티커> 등의 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는 향토자료 발굴 및 보존사업에 주력하여 지역 역사의 지킴이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수사례 개요

우리나라는 '기록물이 없는 나라'라고 한다. 기록 관리가 부실하여 근현대사 연구 자료가 턱없이 부족해 미국 국가문서고(NARA) 문서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소량으로 출판된 향토자료는 발간하는 데만 의미를 두어 지금도 어딘가에서 사장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 뿐만 아니라 향후, 희소성으로 인하여 그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졸업앨범과 문집, 선거관련 자료 등은, 흔하다는 이유로 더욱더 소홀히 되고 있다.

이에 2006년 하반기, 속초도서관에서는 무분별하게 방치되어 있는 향토자료를 한 곳에 모아 디지털자료로 제작, 효율적으로 보관·관리할 수 있도록 <향토자료 발굴 및 E-Book 제작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수집하는 향토자료의 범위를 연감, 시지 등 관에서 발간한 자료에만 그치지 않고 지역 학교의 졸업앨범과 문집, 개인 저작물, 전단지 등으로 넓히고 보존방법도 원본 자체 보존뿐만 아니라 E-Book으로 제작 보존하도록 하며, 제작된 E-Book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사업의 요지다.

2007년 말 현재, <속초연감 2000·2001>, <속초연감 2003·2004>, <속초초등학교 앨범(1959년~2006년 / 30권)>을 E-Book으로 제작하였으며 관내 초등학생 200여명이 참가하는 행사 <독서록을 E-Book으로 만들기>를 개최하였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도서관 정책을 마련하여 자료 보존에 힘쓰고 있다. 우리나라도 출판되는 모든 자료들이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에 납본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으나 향토자료의 경우에는 사소하게 취급되어 방치되고 있다. 이제 우리 지방도서관이 향토자료를 모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자료를 교류하는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즉, 도서관이 역사를 보존하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지금은 비록 자료 수집도 발로 뛰어야 하는 실정이지만 미래에는 누구나 앞 다투어 도서관에 자료를 기증하는 때가 오기를 바라며 지금 우리의 노력이 그 밑바탕이 될 것이라 믿는다.

Ⅰ. 수원화성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그 배경엔 한 권의 책이 있었다!

우리나라 문화재 중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창덕궁, 수원화성, 석굴암·불국사, 해인사장경판전, 종묘, 경주역사유적지구, 고인돌유적)으로 등록되어있는 <수원화성>은 1796년 정조대왕 때 완공되었으나 한국전쟁 때 파괴되었다가 1979년에 다시 복원되었다. <수원화성>이 이렇게 역사가 짧고 한 때 유실되어 다시 복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천년의 역사를 가진 석굴암·불국사와 어깨를 나란히 견주며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배경에는 정조대왕 당시 발간된 건축보고서 <화성성역의궤(華城城役儀軌)>의 역할이 컸음을 간과할 수 없다.

<화성성역의궤>는 640쪽에 달하는 자료로, 정조대왕이 1796년 수원성(화성)이 준공되자 약 2년8개월간의 공사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도록 지시하여 그로부터 약 5년 후에 발간된 책이다. 이 책에는 화성축성에 소요된 시일과 인원, 사용된 기기, 성역 전의 여러 사항 및 각종 포상의 내용까지 수록되어 있다. 5년이라는 보고서 작성 시일에서도 느낄 수 있듯이 자료들이 너무나 상세한데, 예를 들면 공사 인원만 하더라도 아무개가 어느 현장에서 며칠간 어떤 일을 하였다고 기록하고 일당까지 적고 있어 개개인의 인건비까지도 셈할 수 있게 해 놓았다. 따라서 이 보고서 작성은 화성 축성 못지않게 심혈을 기울였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으며 공사를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 그만큼 짜임새 있게 운영했다는 점을 느낄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성역의 설계와 시공 그리고 기록과 정리에까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사람들은 당시의 실학자들인데, 그들은 바깥과 안에서 본 그림에다 투시도까지 그려넣어서, 그림만 보고도 시설물의 건축 방법을 어림짐작할 수 있을 만큼 자세하게 기록하여 정확도를 기하였다. 실제로 1975년부터 화성에 대한 복원 사업에서 이 <화성성역의궤>는 설계도 역할을 하였다. 이렇듯 한 권의 책, 꼼꼼한 현장기록이 역사를 온전히 되살려내는데 한 몫을 하였으며 심지어 <수원화성>이 세계의 문화유산으로 인정받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Ⅱ. 기록물 홍수시대, 오히려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향토자료

오늘날에는 인쇄기술의 발달로 옛날보다 훨씬 많은 기록물들이 쏟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기록물이 없는 나라'라고 한다. 기록이야말로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기록 관리가 부실하여 근현대사 연구 자료가 턱없이 부족해 미국 국가문서고(NARA)문서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출판사에서 발간하여 각 도서관에서 구입 보관하는 자료들은 그나마 그 보존 기

간이 길고 상태가 좋아 향후 소중한 시대적 자료로 쓰일 수 있으나 소량으로 출판된 향토 자료는 발간하는 데만 의미를 두어 보관·활용되지 못하고 지금도 어딘가에서 사장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 뿐만 아니라 향후, 희소성으로 인하여 그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졸업앨범과 문집, 선거관련 자료 등은, 흔하다는 이유로 더욱더 소홀히 하고 있다. '학교 앨범을 100% 보존하고 있는 학교가 전무하다(경남교육 새로운 도약 4. 기록물관리 ; 경남일보 ; 2006. 10.26)'는 사실이 기록물에 대한 우리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요즘은 학생수가 감소하여 학교가 통폐합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현재 강원도 양양도서관이 위치한 자리에는 예전에 명륜고등학교가 있었는데, 이 명륜고등학교의 흔적을 어디서건 찾아볼 수 없어서 이 학교는 전설이 되어버렸다. 만약 이 학교의 자료가 한 곳에 잘 보관되어, 그 학교 졸업생이나 군민들이 볼 수 있다면 그 학교는 역사의 일부분이 되었을 것이다.

Ⅲ. 기록물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있다

이러한 우리의 현실을 인식하고 기록물을 보존하겠다는 움직임이 전국 각 지역에서 관 또는 민간의 주도하에 일어나고 있다.
특히, 6년 전만 해도 학교 교육계획과 재산매매 증명서는 보존기간이 지나면 폐기하는 등 기록물 보존에 관심이 없던 경남교육청에서는 '기록물이 없는 나라'의 오명을 벗기 위해 '경남교육청 기록관리 혁신 선진화 비전'을 제시하고 예산을 집중투자, 총 47억80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전국 최초 교육감 기록관리', '전국최초 비상 기록물 관리 방안 마련', '기록관리 인프라 구축' 등의 사업을 전개하는 등 <지방기록 관리혁신 표준 모델> 수립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07년 2월, 한 네티즌은 유치원 시절부터 소장했던 컴퓨터 잡지를 일일이 스캔하여 최근 한 포털 사이트에 게시했다. 1980~90년대 잡지를 다시 들춰보며 '격세지감'을 즐기다 혼자만 보기엔 너무 아까워 인터넷에 올렸다는데 게시당시, 조회수가 36만4000건을 기록하였다.

변화가 빨라, 불과 20~30년 전이 '격세지감을 느낄 수 있는 과거'가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쏟아져 나오는 기록물 중 그 역사성을 간과할 수 없는 것을 걸러 역사적 보물로 만드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Ⅳ. 향토자료 지킴이, 도서관이 맡아야 할 때

향토자료에 대한 관심이 그동안 도서관에서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수집범위는 시청, 시의회, 문화원에서 발간한 자료로 한정적이었으며 수집방법 또한 다분히 수동적이었다. 이에 2006년 하반기, 속초도서관에서는 무분별하게 방치되어 있는 지역의 향토자료를 한 곳에 모아 디지털자료로 제작, 효율적으로 보관·관리할 수 있도록 <향토자료 발굴 및 E-Book 제작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수집하는 향토자료의 범위를 연감, 시지 등 관에서 발간한 자료에만 그치지 않고 지역 학교의 졸업앨범과 문집, 개인 저작물, 전단지 등으로 넓히고 보존방법도 원본 자체 보존뿐만 아니라 E-Book으로 제작 보존하도록 하며, 제작된 E-Book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사업의 요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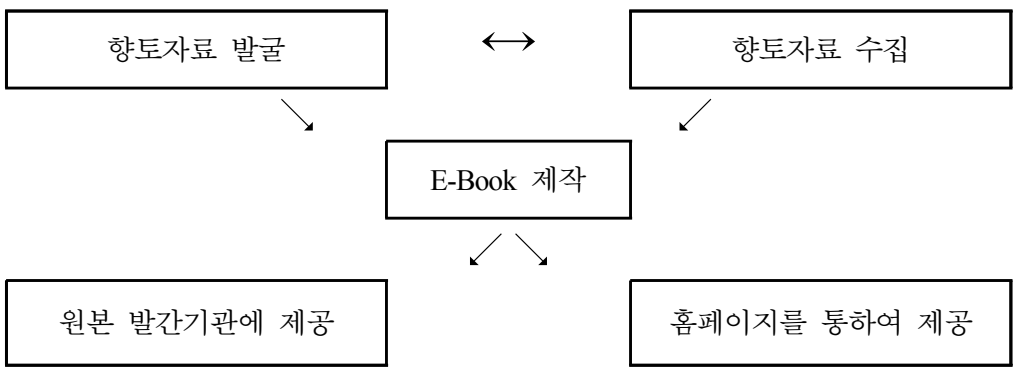
Ⅴ. 꿈은 시작하는 자의 것, 우리는 이렇게 출발했다

속초도서관에서는 <향토자료 발굴 및 E-Book 제작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획을 수립하였다.

1. 추진기간 : 2007.01.01 ~ 2009.12.31 (3년간 연차적 추진)

상기 사업은 속초도서관의 항시적 업무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지만 예전에 발간된 자료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빠른 시일 내에 수집, 디지털자료로 제작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소급자료에 대한 추진기간을 3년으로 계획하였다.

2. 사업내용



○ 향토자료 발굴・수집
○ 향토자료의 디지털화
○ 원본 발간기관에 디지털자료 제공
○ 홈페이지를 통하여 향토자료 제공

3. 수집범위

○ 자료 1 : 현재 향토자료로 인정받고 있는 자료
(예 : 연감, 시지, 속초시의회자료 등)
○ 자료 2 : 현재에는 역사적 가치가 없으나 향후, 희소성으로 인하여 가치가 부가될 수 있는 자료
(예 : 졸업앨범, 문집, 소식지, 선거유인물, 개인저작물 등)

4. 수집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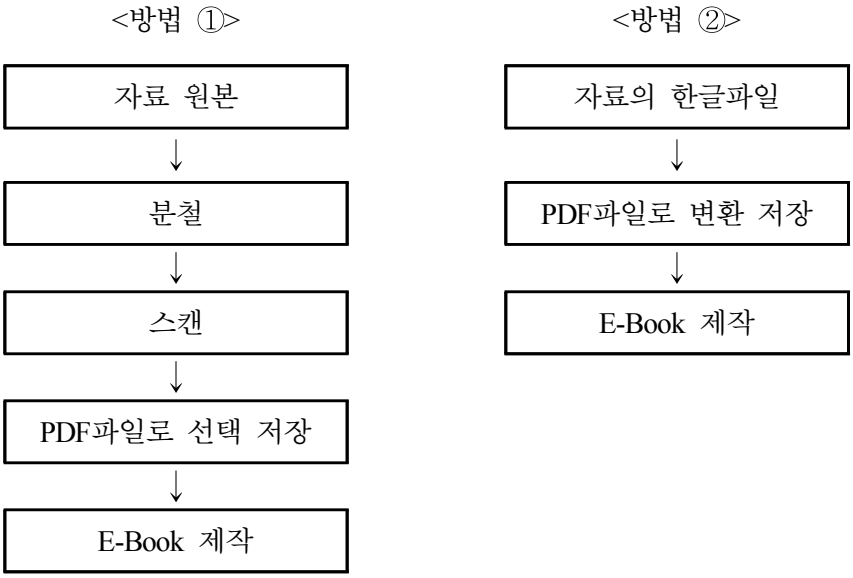
○ **유관기관 및 학교를 통한 수집**
유관기관 및 학교와 <공동보존협약>을 체결하여 유관기관과 학교에서 발간한 자료를 도서관에서 공동으로 보존할 수 있게 하고 도서관에서는 그 자료를 E-Book으로 만들어 다시 해당학교에 제공하는 유기적 시스템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

○ **총동창회를 통한 수집**
현재, 전국적으로 앨범을 100% 보관하고 있는 학교가 없는 실정이므로 총동창회를 통하여 졸업생들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수집

○ **지역협회를 통한 수집**
향토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각종 자료를 발간하고 있는 지역협회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

○ **주민 개인을 통한 수집**
대외 홍보를 통하여 주민 개개인이 보관하고 있는 향토자료를 수집

5. 향토자료의 디지털자료화



○ **자료 원본을 분철하여 스캔**

○ **디지털자료의 표준설정 : PDF파일**

스캔한 자료는 그림파일, 한글파일, PDF파일 등, 여러 가지 폼을 선택할 수 있다. 그 중, 한글파일은 관공서만이 이용하기 때문에 보편성이 떨어지며 그림파일은 용량이 너무 커지는 단점이 있는데, PDF파일은 Adobe사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리더기 프로그램으로 세계가 공용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기록물 관리에 PDF파일로 설정,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PDF파일로 디지털자료를 만들기로 하였다.

○ **PDF파일을 이용하여 E-Book 제작**

PDF파일 리더기는 현재 무료로 제공되고 있지만 언제 유료화될지 모른다. 그러므로 PDF파일을 다시, 어떤 컴퓨터에서든지 자동실행될 수 있는 E-Book으로 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 **한글파일이 있는 자료는 파일 자체를 PDF파일로 변환하여 E-Book으로 제작**

스캔한 자료들은 해상도가 떨어진다. 따라서 한글파일 자체를 PDF파일로 변환하여 E-Book으로 제작하면 훨씬 깨끗한 해상도를 가진 디지털자료를 만들 수 있다.

Ⅵ. 언제나 돈이 문제, 열의만으로는 어렵다

무슨 일이든 그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가장 처음 한 일도 예산확보였다. 그러나 역시 쉽지 않았다. 지난 2006년 말, 우리나라 대기업의 5개 사회공헌팀에 사업계획서를 보내 자금지원을 요청하고 기다렸으나 답변이 없었다. 그러나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다시 속초시청에 보조금 신청을 하고 여러 차례 방문 후, 드디어 2007년 운영비 1,512만원을 확보하였다.

Ⅶ. 작은 것부터 함께 하는 향토지킴이

확보한 예산으로, 가장 먼저 스캐너(A4용, 2개)와 프로그램(Acrobat 7.0 Standard)을 구입하였다. 그리고 E-Book솔루션은 워낙 종류가 많고 가격도 천차만별이어서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기능이 떨어지지 않는 솔루션을 선택, 업체로부터 데모버전을 받아 시범적으로 <속초연감 2000・2001>(592쪽 ; 2002년 12월 발간)과 <속초연감 2003・2004>(731쪽 ; 2006년 1월 발간)를 E-Book으로 만들어 보았다. 그 후 2007년 10월, 강원도속초양양교육청으로부터 '학교도서관 책축제' 예산(50만원)을 지원받아 330만원 상당의 솔루션을 구입, 책축제 행사의 일환으로 <독서록을 E-Book으로 만들기>를 개최하였다. 이 행사에는 1일 2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참가하는 등 지역 학교와 어린이들의 많은 호응을 받았다. 그리고 속초초등학교 앨범 30권(1959년~2006년)을 E-Book으로 제작, 학교에 제공하였다.

<속초연감 E-Book>

<속초초등학교 제15회 졸업앨범 1969년>

<독서록을 E-Book으로 만들기>

Ⅷ. 이제 시작이다, 갈 길이 멀다

자료실 규모도 적고, 제대로 된 서고 하나 없는 소규모 속초도서관에서 감히 향토자료를 본격적으로 수집해서 보존해 보겠다고 나설 수 있는 것은 디지털기술의 발달 덕분이다. 시설·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조그만 DVD 한 장에 자료를 보관하고 독자들에게는 인터넷 가상공간을 통해 손쉽게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할 일이 많다. 자료 수집도 만만치 않고 장비와 프로그램 구입을 위하여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수집 자료를 스캔하여 E-Book으로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별도의 인력도 확보하여야 한다. 이런 일들은 우리 기관의 힘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 유관기관과 지역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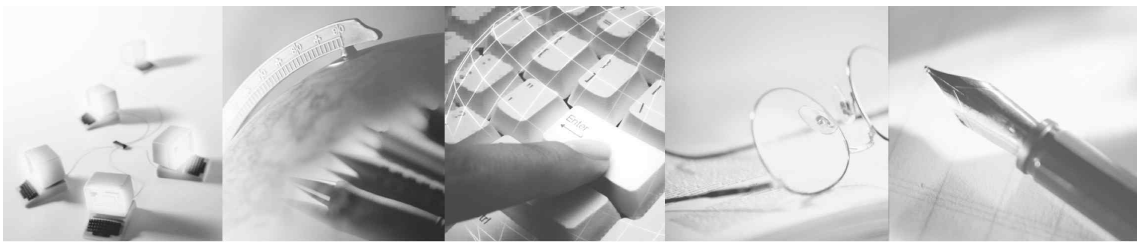
Ⅸ. 도서관, 기록물의 보고로 거듭날 수 있다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을 93년 만에 일본으로부터 환수하게 되었다. 조선시대에는 실록을 여러 부 만들어 네 곳의 사고와 춘추관에 나누어 보관하였는데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이 바로 그 중에 하나이다. 이렇듯 우리 선조들은 이미 기록물 보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국 각도에 천재지변을 피할 만한 곳을 지정하여 사고를 짓고 분산 보관해 왔던 것이다. 과거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문서보존을 할 수 있는 현재의 과학만능시대의 우리보다도 훨씬 투철하였던 선조의 기록보존정신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도서관 정책을 마련하여 자료 보존에 힘쓰고 있다. 우리나라도 출판되는 모든 자료들이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에 납본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향토자료의 경우에는 사소하게 취급되어 방치되고 있다. 이제 우리 지방도서관이 향토자료를 모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자료를 교류하는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즉, 도서관이 역사를 보존하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지금은 비록 자료 수집도 발로 뛰어야 하는 실정이지만 미래에는 누구나 앞 다투어 도서관에 자료를 기증하는 때가 오기를 바라며 지금 우리의 노력이 그 밑바탕이 될 것이라 믿는다.

장애인 체험(점자, 안내견) 교실



기 관 명	화도진도서관
제 출 자	황 숙 경

현황 및 소개

화도진도서관은 1988년 10월 인천광역시 동구에서는 유일한 공공도서관으로서 개관을 하였다. 화도진(花島鎭)은 개화기 외세의 침략을 막기 위한 병영으로 1879년 고종 16년에 설치되어 한미수호통상조약과 천주교 영세자들의 순교가 이루어진 유서깊은 곳으로 1894년 갑오경장때에 소실되었다. 1988년 9월 화도진도(花島鎭圖)를 근거로 복원하여 시 지정기념물 2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의 이름을 도서관의 것으로 명명함으로써, 지명의 숨은 뜻을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뜻이 있었다. 화도진도서관은 특화된 사업으로 인천의 개항시기에 대한 자료를 수집・전시해둔 향토・개항문화자료관, 인천개항자료전시관과 시각장애인실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개관과 함께 운영되어온 시각장애인실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점자도서・녹음도서를 직접 제작, 대여하고 있으며, 이 작업은 4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의 전폭적인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최근에는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에 국한하지 않고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이해를 넓히고 편견을 불식시키기 위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2004년부터 시작한 장애인 체험교실이 그것이며, 2001년 비장애인 학생과 시각장애인이 최초로 함께 어우러져 시행한 한마음 음악교실이 그 노력의 일부라고 하겠다. 또한 2007년 현재 소프트웨어 보이스아이의 도움을 빌어 시각장애인과 저시력인 그리고 돋보기 없이는 책읽기 힘들어하시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확대도서를 제작하여 배포 중이다.

우수사례 개요

2004년 시각장애인의 벗, 맹인 안내견과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시작한 장애인 체험교실은 비장애인에게 시각장애인이 일상 생활을 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친구이자 동반자인 안내견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함과 동시에 이해를 돕기 위해 기획되었다. 시행 초기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였고, 안내견에 대한 설명에만 국한된 것을 보완하여 2006년부터 정기적으로 장애인 체험교실이라는 이름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인원수에 제한을 두면서 두 시간에 걸친 프로그램으로 개선을 하였다. 첫째 시간에는 장애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에 대한 설명과 시각장애인이 책을 접하는 매체인 점자에 대해 직접 써보는 등의 체험을 해보는 것으로 기획하였다. 둘째 시간에는 안내견을 데리고 살아가는 시각장애인을 강사로 섭외를 하여 초등학생들에게 안내견의 양성과정과 장애인과 안내견이 함께 하는 일상 생활에 대한 설명을 직접 하도록 하였다. 이는 시각장애인이 선생님이 되어 비장애인 학생들에게 직접 설명을 해줌으로써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함이었다. 수업 후에 학생들의 호응도를 조사하기 위한 설문지 형태의 '장애인은 ○○○○이다'라는 물음으로 비장애학생들의 반응을 조사하였다. 설문 결과는 담당자인 본인조차도 놀라운 것이 많았고, 이는 장애인 체험교실이 지니는 긍정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케 한 좋은 계기였다.

Ⅰ. 장애인 체험교실 사업의 필요성

1988년 개관 이후로 화도진도서관은 특성화된 사업으로 시각장애인실을 독립적으로 두고 지속적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처음 개관시에는 정부 시책의 부재와 함께 비장애인[1]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또한 전무했었다. 이는 도서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서들도 예외가 아니어서 사서들 역시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없었기 때문에 예산이 얼마 필요하지 않는 조그마한 사업을 추진하기도 거의 불가능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과 함께 필자를 괴롭혔던 사실이 또 하나 있었다. 서울에 소재하고 있던 종로도서관의 시각장애인실이 폐쇄된 것이었다. 사실 종로도서관은 우리나라 최초로 공공도서관 내에 장애인 서비스 업무를 맡아 볼 수 있는 시각장애인실을 1984년에 열었다. 이는 국가가 직접 나서서 장애인을 위한 정보서비스를 구축, 제공하겠다는 의지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4년 8개월만인 1988년 12월에 시각장애인실은 문을 닫게 된다. 그 이유는 첫째, 시각장애인실 운영을 위한 전용예산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었고, 둘째, 이로 인해 시각장애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데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이었다. 이는 업무담당자와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사서, 아울러 이들을 지지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정책개발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장애인 지원 필요성에 대한 무지가 이런 실패의 원인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본인이 느꼈던 부담감은 가히 살인적이었다. 하지만, 시도하지 않고 주저앉을 수는 없는 일이었다. 이런 실패를 거울삼아 역지사지(易地思之)하는 마음으로 본인이 직접 장애인이 되어 현장 감각을 느끼려고 노력했으며, 장애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고민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기획, 실행에 옮기려고 노력하였다.

처음에는 시각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집중하였다. 즉, 점자도서와 녹음 도서를 제작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시각장애인에게 도서를 대출 하는 것에 국한하였다. 도서관이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 중의 하나인 대출업무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 모든 일이 산너머 산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점자도서와 녹음도서를 대출할 수 있는 전용 가방조차 아예 존재하지 않아 일본에서 사용하던 캔버스천으로 된 것을 우선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일본제품은 시각장애인이 사용하기에 대단히 불편한 점이 많았다. 이에 새로운 가방을 제작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면서 새로운 제품을 시장에 내놓는 심정으로 처음 장애인들에게 보였을 때, 그들이 보이는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그 편리함으로 인해 감사의 전화와 인사를 수없이 받았던 것이다. 이는 또 다른 새로운 서비스를 기획·제공하는 원천적인 힘이 되었다.

1) 이 글에서는 장애가 없는 일반인을 지칭하는 단어로 비장애인을 쓰기로 한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말이 아니라서 어색할 수도 있지만, 우리 모두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장애인으로 쓰기로 하겠다.

본격적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녹음도서와 점자도서를 출간해 내게 된 때는 1993년 녹음실 완성을 보면서이다. 녹음도서 제작을 위한 녹음실의 완성과 함께 자원봉사자를 모집, 교육함으로써 출판사가 아닌 도서관에서 자체 제작하는 도서라고 하더라도 일반 비장애인들이 보는 도서(묵자도서[2])와 다를 것이 없는 똑같은 질로 만들고자 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점자타자기가 아닌 점자프린터를 이용한 점자도서 제작이 가능해졌다. 이는 엄청난 시간절약과 함께 서비스 제공자인 본인의 업무를 다른 곳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었다. 오늘날의 기술의 집약적인 발전은 본인에게 이런 이점을 주었던 것이다. 부족한 자료를 구비하며 시각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집중함으로써, 2007년 9월 현재, 3804종 이상의 점자도서와 4034종 이상의 녹음도서의 개발, 소장이 가능하였다. 자원봉사자의 헌신적인 노력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여기까지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 사실이다.

비장애인들이 호기심은 가지고 있었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장애인을 직접 만날 수 없어서 오히려 알 수 없었던 장애인들의 생활, 실제 모습, 생각 등을 모든 비장애인들이 볼 수 있는 공개적인 자리에 펼쳐놓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였다. 이런 때에 맞추어,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고용촉진법 제정,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학교생활을 하는데 격리되지 않고 함께 어울려 지낼 수 있는 통합교육에 대한 교육자, 부모님들과 비장애인들의 인식의 증가로 인해 사회분위기가 장애인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시도가 점점 증가되고 있었다. 장애인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 사회의 요구(need)가 있었고, 이는 다시 말해 비장애인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고, 여기에 비장애인들의 호기심과 궁금증을 달래줄 수 있는 가교로써 시각장애인 서비스 업무를 해온 담당자인 본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장애로 인해 불편해하지 않고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서로를 배려하면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목적을 위해, 2004년 4월 장애인의 달을 맞아 도서관주간 사업 중의 하나로 '시각장애인의 벗, 맹인안내견과의 특별한 만남'을 기획, 시행하였다.

Ⅱ. 추진내용 및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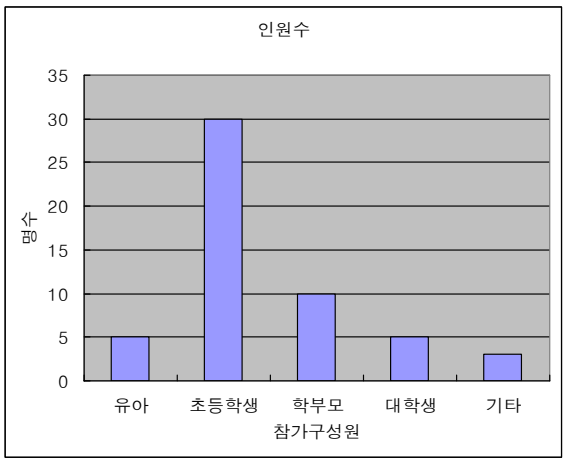
1. 2004년 시각장애인의 벗, 맹인안내견과의 특별한 만남

장애인체험교실 실시 첫해인 2004년에는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에 관심이 있는 모든 비장애인이 대상이 되었다. 실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의 분포를 보면, 초

2) 보통 비장애인들이 읽는 도서를 일반도서라고 부르지만, 시각장애인들은 묵자도서라고 부른다.

등학생, 초등학생의 부모, 일반 성인, 대학생 등 출신과 교육정도, 성별, 나이의 차이 없이 골고루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장애에 대한 관심은 있었으나, 그들의 관심을 충족시킬만한 프로그램이 전무하였거나, 프로그램이 있었어도 본인의 업무에 바빠 참여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라고 어렵지 않게 추론해낼 수 있다. 이런 추측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본인이 20여년 가까이 시각장애인실에서 근무하면서 다양한 배경을 지닌 사람들을 만나오면서 알게 된 비장애인들이 갖고 있는 애로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특히 녹음 도서를 만들기 위한 전용 녹음실을 1993년에 개실하면서 모집한 자원봉사자의 수를 보면 쉽게 이해가 되리라 믿는다. 처음 자원봉사자 모집시 지원 인원수는 60명이었다. 이는 담당자인 본인도 예상치 못했던 수였다. 그 후로 해마다 약간의 인원수의 증가와 감소는 있었지만, 자원봉사를 원하는 지원자 수는 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 왔으며, 지속적으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도 가감(加減)은 있었지만, 자원봉사를 원하는 지원자 수는 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왔으며, 지속적으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도 해마다 약간 명의 증가와 감소는 있었지만, 그 수는 늘 비슷했다는 것이 십여 년 이상 자원봉사자를 관리·운영해 온 담당자의 소견이다. 여기에서 자원봉사자 수를 이야기 하는 이유는 자원봉사자 신청자와 장애인 체험 교실 지원자 사이의 차이점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즉, 이들 모두 장애인에 대한 호기심과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다른 프로그램이지만 참여를 원했으며, 그래서 신청을 하게 된 것이 아닐까?

<데이블 1. 참가자 분포, 2006>



프로그램 제목(시각장애인의 벗, 맹인안내견과의 특별한 만남)에서 알 수 있듯이 안내견에 대한 모든 것을 비장애인에게 설명하는 것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삼성화재가 운영하는 삼성화재 안내견 학교[3]의 도움을 받았다. 삼성화재 안내견 학교는 1993년에 안내견 육성 사업을 시작하여 이듬해부터 시각장애인들에게 분양을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삼성그룹에서 제일 처음 공개적으로 안내견을 육성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안내견에 대한 모든 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강사분은 삼성안내견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분으로 선정하였다. 참가자 대부분은 언론매체를 통하여 안내견 학교의 존재, 어떤 일을 하는지, 안내견이 무엇인지 대략적으로 오는 분들이 많았다. 하지만, 실제로 안내견을 본 적은 없는 분

3) 보다 자세한 정보는 http://mydog.samsung.com/blind/index.jsp에서 얻을 수 있다. 실제로에서 얻을 수 있다. 또한 삼성 안내견 학교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견 양성뿐만 아니라 청각장애인을 위한 청각도우미견, 구조견, 치료견 등을 양성하고 있다.

들이 많아서 이로 인해 참가하는 분들은 호기심이 팽배한 상태였다.

실제로 수업에 안내견을 투입시켜, 안내견이란 무엇이며, 안내견이 되기 위한 사전 조건, 훈련과정 등을 설명하였다. 안내견을 교육시키는 삼성안내견 학교 담당자가 직접 수업을 이끌어 나갔다. 현장 경험이 있는 사람이 수업을 보다 흥미진진하게 이끌어나갈 수 있으리란 생각 때문이었다. 참가자들은 안내견을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면서 함께 설명을 들음으로써 장애인 특히,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 하지만, 첫 번째 시도인만큼 시행착오도 있었다. 아무리 현장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삼성안내견

<테이블 2. 2004년 안내견 수업 일정표>

프로그램명	일정	대상	장소	강사
시각장애인의 벗, 맹인안내견과의 특별한 만남	2시간	- 인천광역시에 거주하시는 분으로 성별, 연령에 상관없이 안내견과 시각장애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계신 모든 분	- 화도진도서관	- 시각장애인실 담당자 - 삼성안내견 학교직원 - 삼성안내견 학교의 안내견

학교 담당자는 비장애인이기 때문에, 비장애인이 주도하는 수업은 시각장애인이 직접 강사로서 수업을 주도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란 것이 프로그램을 기획한 본인의 생각이었다. 수업을 비장애인이 아닌, 시각장애인이 강사로 등장하여 참가자들에게 설명해주는 것이 효과면에서 몇 배의 성과를 가지고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삼성안내견 학교 담당자와 참가자들, 2004>

처음 이 프로그램을 기획했을 때에는 평생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매년 개최하는 것이 아닌 일회성 행사로써 시작한 것이었다. 하지만,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숫자와 그들의 호응도

를 보면, 결코 한번으로 끝낼 프로그램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 2004년 프로그램을 끝내면서, 우선 문제점들을 되짚어보았다. 첫째, 참가 대상자들을 불특정 다수로 하다보니, 수업 내용의 난이도를 조절할 수가 없었다. 초등학생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그 계층이 다양했기 때문에, 초등학생을 고려한다면, 단어 선택에서부터 신중을 기해야 했었고, 너무 쉽게만 하다보면, 성인들이 지루해할 수도 있었다. 둘째, 60여 명의 참가자들을 교육하기에는 수업의 집중도가 떨어지곤 했다. 초등학생들은 집중도가 성인에 비해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산만함을 많이 보였다. 셋째, 강사의 질의 문제이다. 현장 경험을 중시하여 안내견 학교의 담당자분을 모셨지만, 안내견과 함께 생활하는 시각장애인과는 보는 시각이나 느낌이 다를 수가 있었다. 즉 안내견을 육성하는 담당자보다는 안내견과 24시간을 함께 지내는 시각장애인이 강사로는 보다 적격인 것으로 느껴졌으며, 이는 다음해 프로그램 시행과 함께 입증이 되었다. 넷째, 가장 중요할 수 있는 내용문제이다. 즉, 시각장애인이 함께 생활하는 안내견으로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시각장애인, 더 크게 나가 장애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고, 화도진도서관이 지닌 강점인 시각장애인실을 중심으로 그동안 구축해나갔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시각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궁금증을 종식시키고, 나아가 일상생활 중에 장애인, 특히 시각장애인을 만나더라도 당황해하지 않고,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끔 해나갈 수 있게 유도하는 것이었다. 이 프로그램을 계속 시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들 문제점을 보완해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2. 2006년 장애인 체험교실

2006년 장애인 체험교실이라는 주제로 다시 프로그램을 기획, 시행하였다. 2004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첫째, 교육대상자를 초등학생과 그들의 부모로 좁혔다. 신청자 자격 요건에 제한을 둔 것이었다.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에 참가자의 제한을 가한다는 것에 모순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아직은 프로그램 초기라는 생각으로 여러 가지 다른 시도를 해볼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참가신청자의 숫자 역시 약간 감소는 있었지만, 53명이 신청을 하였다. 수업 길이는 첫해 두 시간과 다른 점이 없었다. 두 시간 동안의 긴 수업이지만, 대신 교육대상자가 초등학생이라는 것을 감안하여, 중간에 쉬는 시간을 두어 지루해하거나, 집중력이 떨어지는 부작용을 줄이고자 하였다. 첫째시간에는 담당자인 본인이 직접 교육 참가자들에게 설명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였다. 비장애인들에게 장애에 대한 일반적인 특징, 시각장애인이 사용하는 점자에 대한 설명 그리고 점자를 쓰고 읽는 법을 점자판과 점필을 직접 사용하게 함으로써 교육 효과를 높이려고 하였다. 시각장애인을 도울 때 특히, 보행[4]중에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를 초등학생을 교실 앞으로 불러 직접 보여주었다. 시각장애인이 안내견 대신 사용하는 흰지팡이에 대한 설명과 사용

4) 시각장애인이 길을 걷는 것을 보행이라고 부른다. 아기들이 걷기 바로 직전에 보행기를 타면서 다리 근육의 힘을 키우는 것을 상기해보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법 또한 덧붙였다. 비록 체험교실이라고는 하지만, 첫째 시간은 이론이 섞여 있는 설명이 많아 프로그램

<테이블 3. 2006, 2007년 장애인 체험교실 수업진행표>

프로그램명	일정	목 표	진 행 내 용	비고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해	1시간 준비물:점자판세트, 점자책, 팜플렛, 안대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동기유발 -시각장애인들을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동료로 생각할 수 있는 긍정적인 자아 형성	-프로그램의 목적 및 진행과정에 대해 설명 및 시각장애인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강사: 시각장애인실 담당자 황숙경
점자체험		-비장애인인들이 공부하는 것과 어떻게 다른지 직·간접체험을 통해 시각장애인을 이해	-안대를 하고 직접시각장애인들이 공부하는 방법으로 체험	
안내견 체 험	1시간	-시각장애인의 분신이라 할 수 있는 안내견을 통해 시각장애인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서로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는 지에 대한 생각 정리하기	-안내견에 대한 설명과 안내견이 시각장애인에겐 어떤 의미를 내포하는지에 대한 설명과 직접 체험함	강사: 양지호님

참가자들이 지루함을 느끼지 않도록 팜플렛을 제작하여 수업시간에 활용하게끔 하였다. 둘째 시간에는 시각장애인을 강사로 활용하였다. 안내견과 함께 생활하는 시각장애인을 강사로 등장시킴으로써 교육대상자들의 호기심을 증대시킴과 동시에 집중력을 높일 수 있었다. 그리고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비장애인이 평상시에 장애인에게 묻고 싶었던 점을 직접 물을 수 있게 해주었다. 이는 대성공이었다. 동물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이라고는 하지만, 초등학생들이 시각장애인 강사와 안내견에게 보여준 관심은 기대이상이었던 것이다. 틈틈이 학부모 역시 수업에 참여하였다. 수업 후에 학부모들이 보여준 감사의 인사는 준비기간 동안 받았던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기에 충분했던 것이었다. 여기에서 프로그램 기획자이자, 담당자인 본인은 이 프로그램의 성공 가능성을 보았다.

성공적이었다고는 하지만, 미숙한 점 역시 발견되었다. 첫째, 교육대상자의 폭을 좁혔다고는 하지만, 53명이라는 수는 수업을 운영하기에는 많은 수였다고 인정해야겠다. 인원수를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수업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고 느꼈다.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장애인 체험교실 횟수를 늘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춘계, 추계로 또는 추계, 하계로

나누어 연간 2회 정도 운영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였다. 둘째, 점자판을 이용하여 직접 점자를 찍어 보게 하는 데에는 본인 혼자만으로는 힘들다는 것을 느꼈다. 즉, 점자를 알고 본인을 보조해 줄 수 있는 보조 선생님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는 수업을 보다 매끄럽게 진행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었다.

<장애인체험교실에서 실제 수업 중인 참가자들, 2006>

<경청중인 참가자들, 시각장애인들과 함께 한 참가자들, 2006>

3. 2007년 장애인 체험교실

2007년에는 상황이 약간 예년과는 달랐다. 특수학급 통합교육 시범학교로 지정된 인천의 만석초등학교와의 사전교류로 인해 이전까지의 프로그램의 참가대상자 문제로 고민하던 본인이 초등학생 한학년만으로 아예 축소를 시켰으며, 인원수에도 제한을 가했던 것이다. 여기에 만석초등학교의 인솔선생님까지 함께 수업에 들어오시니 수업 분위기가 예년과는 달랐고, 수업의 집중도면에서도 훨씬 나았던 것이다. 다시 말해, 2007년에는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고, 인원수는 30명으로 제한하였다. 또한 점자판을 직접 찍어보는 시간에는 자원봉사자로 계신 분의 도움을 받아 이분을 보조 선생님으로 활용함으로써 2007년에는 보조 선생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이는 보다 많은 초등학생 참가자들에게 관

심을 기울일 수 있었던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1:30보다는 1:15가 보다 나은 설명과 가르침을 위하여 더 낫지 않은가?

수업 내용 중에 시력 장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사진을 활용하여 초등학생들이 시각장애인들이 사물을 어떻게 보는지 보다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었다(이는 팜플렛 내용을 참고하기 바란다). 이 프로그램은 화도진도서관내의 프로그램에만 국한하지 않고 다른 도서관이나 다른 기관의 장애인 체험 교실에서 얼마든지 활용 가능하였다. 2007년에 시도하였던 것은 인천시의 다른 기관, 예를 들어 계양구에 위치하고 있는 계양도서관의 장애인 체험교실에도 참가하여, 초등학교 4학년 40 여명을 대상으로 성공적으로 끝마칠 수 있었다. 학년에 따라 수업의 이해 속도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참가 학생들을 이해시키는 것은 그다지 힘든 일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인원수의 조정과 보조 선생님의 활용은 수업의 질을 높이는데 커다란 역할을 했다고 자부한다. 단지, 참가대상자를 초등학생으로 국한시켰다는 점에서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이해를 높이고자 한 프로그램의 목표를 약간 빗겨간 느낌은 없지 않지만, 이는 얼마든지 개선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프로그램의 질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2007년도에는 두 가지 다른 시도를 하였다. 첫째는 수업과 수업 중간의 쉬는 시간을 활용한 것이었다. 중간 시간은 말 그대로 쉬는 시간인 동시에, 수업 중에는 해 볼 수 없었던 현장 학습 개념을 도입하였다. 교실 뒤편에 여러 종류의 점자책, 여러 개의 흰지팡이 등의 자료를 두어 원하는 학생 누구나가 만져보고, 직접 들고 걸어볼 수 있게 하였다. 둘째로는 참가자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시도해 보았다. 즉, 하나의 주제로 설문지를 돌려 초등학생 참가자들의 의견을 듣고자 했다. 올해의 주제는 '장애인은 OOOO이다'였다. 초등학생들의 생각을 듣기 위함이 목적이었고 그들의 대답을 통해 장애인 체험교실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역할을 해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안대를 쓰고 점자를 찍고 읽어 보는 참가자들, 2007>

<흰지팡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필자, 2007>

<시각장애인, 안내견과 함께 한 참가자들, 2007>

<테이블 4. 2007년 장애인 체험교실 팜플렛>

모두 네 개의 섹션으로 나누어 주제별로 설명하고자 했다. 후에 하나의 내용이 추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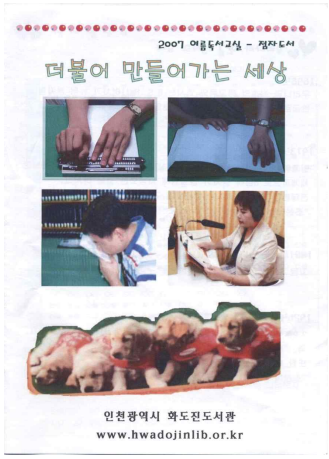
① 우리나라 한글 점자의 유래
- 미국인 Hall여사에 의해 조선훈맹점자가 만들어짐
- 송암 박두성 선생님에 의해 세계적인 추세대로 6개의 점으로 처음으로 만들어짐
- 훈맹정음 발표

② 점자일람표
- 여섯 개의 점으로 한글이 표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
- 읽기형을 표로 만들어 표기
- 실습용 표 제공. 본인의 이름을 점자로 표기해볼 수 있게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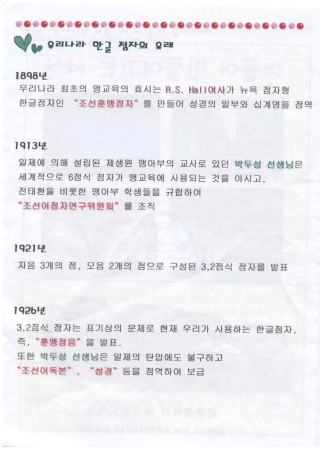
③ 장애인을 부를 때 이렇게 불러주세요!!
- 장애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것을 인지시킴
- 장애에 따른 호칭

④ 시각장애인을 안내할 때 이렇게 해주세요!!
- 시각장애인을 처음 만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간략하게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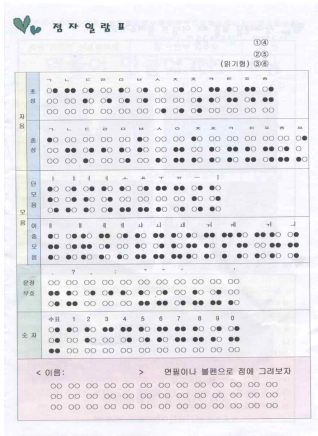
⑤ 시각장애인은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 사진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시야가 어떤지를 보여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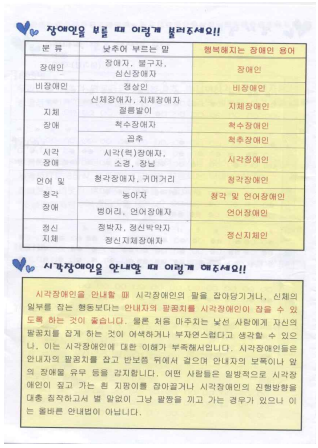
페이지 1



페이지 2



페이지 3



페이지 4

<테이블 4. 팜플렛 내용 추가분(2007)>

<시각장애인은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1. 중심시야 상실 <정상인 시야> - 망막의 중심 부분인 황반이 변성되어 나타나는 질병으로 노인에게 자주 발병한다. - 사물이 비뚤어지고 일부분만 보이게 된다.	**2. 시야 일부분의 상실** <정상인 시야> - 당뇨병으로 망막의 혈관이 손상되면 망막의 출혈이나 삼출물로 인해 불규칙적이고 불분명하게 보이게 된다.

<table>
<tr><td colspan="2"><시각장애인은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td></tr>
<tr><td>3. 터널비전

<정상인 시야>
- 녹내장 등으로 주변 시야를 상실하면 터널 비전이 된다.
- 시야가 좁아져 책을 보거나 길을 걷는 것이 어렵다.</td><td>4. 대비 감도의 상실

<정상인 시야>
- 백내장 및 기타 질환으로 대비감도가 나빠질 수 있다. 수정체가 혼탁해지거나 불투명해져서 빛이 망막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어 망막에 맺히는 상이 왜곡되고 희미하게 보인다.</td></tr>
<tr><td>5. 전맹 / 반맹

<전맹> <반맹>
- 전맹 : 시력을 상실하면 전맹이 되지만 전맹이라도 때로 명암을 구별할 수 있다.
- 반맹 : 응시하고 있는 점을 경계로 하여 오른쪽 반 또는 왼쪽 반이 안 보이는 반맹 상태가 된다.</td><td></td></tr>
</table>

Ⅲ. 추진성과

비장애인에게 장애의 세계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시작한 프로그램이 2004년 '안내견과의 만남'이었다. 일회성의 행사로 생각을 하고 기획을 했으나 이 수업에 참가한 성별과 나이를 초월한 참가자들의 반응은 예상외로 뜨거웠다. 정부 정책과 사회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장애와 장애인들에게 호의적으로 바뀌었다고는 하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다. 프로그램 기획자이며, 운영자였던 본인도 이 일을 성공적으로 끝마칠 때까지 만나야 했던 벽은 수도 없이 많았다. 하지만, 참가자들의 열기와 따뜻한 말 한마디가 담당자인 본인에게 프로그램을 다음 해에 다시 시행할 수 있는 커다란 용기를 준 것은 사실이다. 이에 힘을 얻어 문제점을 보완, 수정해 나가면서 2006년과 2007년 두 해에 걸쳐 장애인 체험교실이라는 주제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단 두 시간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참가자들이 배워가는 내용은 그것 이상의 것이라는 것을 그들의 짧은 말 한마디, 수업 시간에 던지는 질문, 설문지 내용을 보면서 알 수 있었다. 설문지를 이용하는 것을 2007년에 새로 도입한 것으로 수업 종료직전 비장애인 학생들이 어떻게 수업을 받아들였는지를 알고자 하는 의도로 수업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였다.

■ 휘발유값 ℓ당 1500원대 /6면
■ 청라지구 추가 환경조사 /18면
1960년 9월 1일 창간 ■ 논현2지구 '아직도 공사판' /19면

경인일보

단기 4339년 (음력 3월 27일)
2006년 4월 24일 월요일 제14137호 〈1판〉 京仁日報 kyeongin.com

"손으로 글읽는 맘 이해했어요"

"손끝으로 글을 읽는다는게 너무 신기합니다."

지난 22일 오후 인천 동구 화수동 화도진도서관에서는 시각장애인들의 일상 생활을 직접 체험해 보는 의미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시각장애 체험에 참가한 초등학생 등 30여 명은 장애인들의 삶에 한걸음 더 다가서기 위해 눈을 안대로 가린 상태에서 손가락으로 점자를 읽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체험자들은 점자를 읽은 뒤 점자판을 이용해 직접 6개의 점으로 표현되는 점자를 찍어봤다. 또 시각장애 시뮬레이터를 통해 단계별 시각장애를 간접 경험한 뒤 시각장애인 안내견에 대한 에티켓 등을 교육받았다.

체험에 참가한 한정윤(7·부천시 상동)군은 "눈이 안 보이는데 공부를 어떻게 할까 궁금했는데 오늘 점자를 읽어본 뒤 궁금증이 해결됐다"며 "처음에는 안내견이 무서웠지만 시각장애인을 척

초등생30명 시각장애인 체험
인천 화도진도서관 자리마련

척 안내하는 걸 보니 대견하다"고 말했다.

시각장애 체험이 열린 화도진도서관은 전국 공공도서관 중 처음으로 시각장애인 전용실을 만든 곳.

이 도서관 시각장애인실을 담당하는 황숙경(43·여)씨는 "아이들이 체험을 통해 장애인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장애인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아닌 단지 생활이 조금 불편한 사람들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창훈기자·chkim@kyeongi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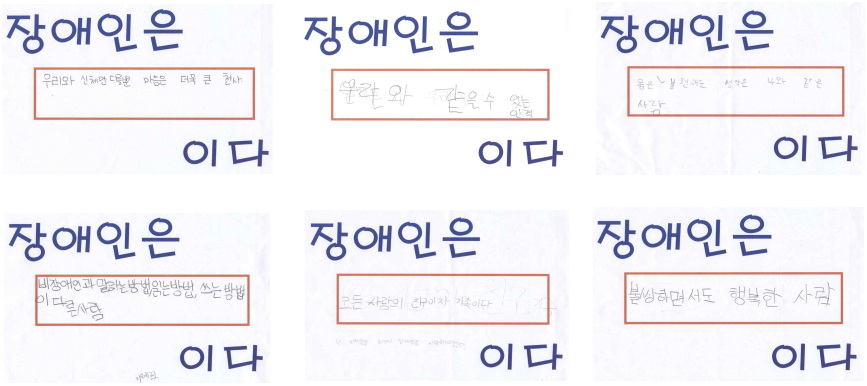
<장애인체험 교실을 소개하고 있는 경인일보, 2006>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비장애인 학생들이 평가 중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다. ① 장애인은 모든 사람의 친구이자, 가족이다. ②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말하는 방법, 읽는 방법, 쓰는 방법이 다른 사람, ③ 장애인은 우리와 같은 행복한 사람, ④ 장애인은 몸은 불편해도 생각은 나와 같은 사람' 등으로 글을 만들어주었다. 문법에 맞게, 맞춤

법에 맞게 썼느냐는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장애인을 우리와는 전혀 다른 외계인과도 같은 존재로 생각하던 과거에서 벗어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며 그들도 인간답게 살아가야 할 당연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 우리의 참가자였던 초등학생들은 이런 것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받아들였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장애인에 대한 이해의 정도가 깊어졌다고 말을 하는 이들도 많았다. 같이 참가한 학부모들 역시, 자녀의 교육을 위해 참가하였지만, 본인 스스로도 많이 배울 수 있는 인식계기가 되었다고 하였다. 수업 도중 학부모 역시 활발하게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고 되묻는 것을 여러 번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Ⅳ. 맺는 말

우리나라가 급속한 산업화를 이루면서 이제는 노동력을 외국에서 들여와야 하는, 또는 외국의 노동력을 교육시키는 입장에 서 있다. 이로 인해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이 대략 100 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들 외국인을 어떤 태도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서 우리들이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를 읽어낼 수 있다고 본인은 보고 있다. 인종차별이 좋지 않은 것이라고 여기면서 스스로 우리와는 다른 피부색을 지닌 인종을 차별대우하는 우리의 이중적인 태도가 바로 장애인들을 대하는 태도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서로 어우러져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 서로 이해하면서 살아가는 것, 서로 배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하는 사회의 목표가 아니지 않겠는가? 장애인 체험교실을 통해 외국인과 우리가 다르지 않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피부로 체험하며, 서로 배려하면서 살아가는 풍조가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다. 어려서부터 살을 부대끼면서 살아야, 우리는 서로 다른 존재가 아니라 서로 함께 어울려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닐까? 두 시간이라는 길지 않은 시간에도 사람의 사고방식이 이정도로 바뀔 수 있는 것을 보면, 어려서부터의 교육이 올바른 가치 형성에 어느 정도로 중요한지는 말할 필요가 없겠다. 정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 정도의 정책의 미묘함을 인지하여 실행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일반 시민들은 서로 등을 돌리고 관심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어우러져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꿈꾸는 사회의 한 단면이라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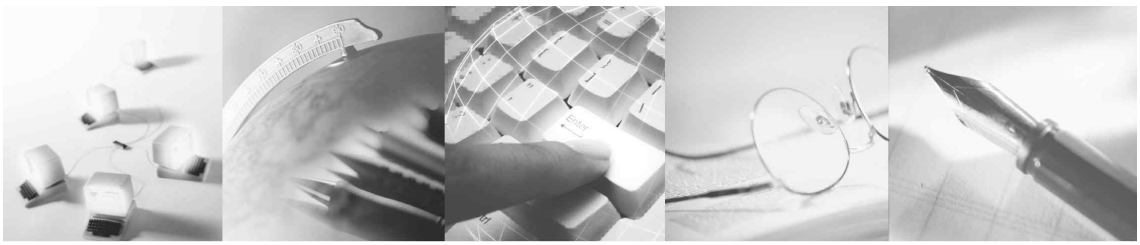


<참가자들의 장애인에 대한 느낌을 적은 글, 위쪽 왼편부터, 우리와 신체만 다를 뿐 마음은 더욱 큰 천사, 우리와 같을 수 있는 인격, 몸은 불편해도 신체는 나와 같은 사람, 비장애인과 말하는 방법, 읽는 방법, 쓰는 방법이 다른 사람, 모든 사람의 친구이자 가족, 불쌍하면서도 행복한 사람. 2007>

화도진도서관이 가지는 특수성(시각장애인실의 운영)이 오히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나갈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게 한 좋은 거름이 되었다. 우리나라는 좁은 면적을 가진 나라라고는 하지만, 동시에 각 지역의 지방색이 뚜렷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 나는 비장애인의 장애인에 대한 시각, 특히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넓힘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장애인 체험교실을 개설하였다. 인천광역시 동구라는 지역이 지니는 특수성 때문에 장애인교실 개설이 가능했다고도 생각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공공기관이나 공공도서관이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비장애인들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고 본다. 즉,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 더 나아가 노령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이 시점에, 노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사회구성원의 일부분이라는 자각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생산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미이다. 본인은 비록 시각장애라는 장애의 일부분을 담당하는 업무를 맡고 있지만, 앞으로는 기존의 업무, 시각장애인을 위한 더좋은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비장애인들이 장애인과 함께 서로를 의식하지 않으며 살아가며, 노화가 일어나면서 시력이 약해지는 노인층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작은 대학의)

도서관현장 발전사례



기 관 명	진주보건대학 도서관
제 출 자	이 경 자

현황 및 소개

우리대학은 1,972년 개교, 1,984년에 사서가 도서관을 관리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도서관규모는 1,984년 교실 한칸 20여 평에서 시작, 1,988년 100여 평으로 확장되었고 2007년 현재 면적은 1,000여 평(3,319㎡) 열람좌석 수는 1,098석으로 확장되었다.

초창기에 소장자료가 소규모로 한정되어 있었으므로 교수연구지원을 위해 노력 끝에 간호보건계열자료 상호대차가 활성화되고 있는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에 1,991년 가입하여 소장자료 외 다량의 외부자료를 통해 교수연구지원에 조력하였다. 2,001년 국회도서관이 종합대학 위주로 협력체결을 하고 있을 당시 전문대학으로서 두 번째로 상호협정을 체결하였고, 그 후 KERIS, NDSL, KORSA, 전문대학도서관협의회 단체회원으로 가입하여 외부자료접근을 더욱 용이하게 했다.

내부소장자료 확충도 정기적으로 꾸준히 하고 있으며, 구입방법 개선 등을 통해 급하게 필요시 선구입 후결재 방법도 병행해 미정리 상태에서 즉시 대출케 하여 이용자 만족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도서관 환경변화인 전산화부분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보급한 KOLAS 1.0인 도스환경으로 시작, 지금은 웹버전인 광주과기원 ASP관리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멀티미디어자료, 전자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여 영화·음악 감상, 전자자료 및 웹을 통한 자료이용, 리포트작성과 프린트도 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시대의 변화인 도서관 홍보마케팅부분에서도 여러 행사를 진행하므로써 도서관을 알리며, 독서동기부여를 하고 도서관이용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수사례 개요

도서관은 지식문화교육공간으로서 이용자의 지식교양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특히 대학도서관은 소속대학 교육방침과 전공 및 교양학습과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교육지원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용자교육도 주도적으로 실시하여 이용활성화를 도모해야 된다고 본다.

이 글은 종합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인 전문대학에서 나름대로 이용자 우선서비스를 개발하여 도서관 이용활성화를 도모하고, 독서계기를 부여하고자 실시한 마케팅행사와 도서관환경 및 서비스를 개선 한 실 사례이다.

먼저 이용자 우선서비스로는 요청자료 신속제공, 자료실 원스톱운영, 멀티미디어실 각종 H/W, S/W 설치로 학습환경조성, 세미나실 설치, 면학실(일반열람실) 확충 및 환경개선, 소

장학술지 목차 D/B구축 서비스 등을 실시하고, 도서관을 알리고 이용활성화를 위해 눈에 띄는 코너로 신착자료, 과제물자료, 만화자료, 독서심리치료자료를 설치하고 있다. 다음으로 도서관을 알리고 도서관을 통한 독서계기를 만들고자 도서관마케팅행사로 '칭찬·독서릴레이운동', '도서관에서 행운을 잡아라', '우수이용자시상', '소망카드달기', '신입생 전체 도서관 투어 및 이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좋은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서 자질향상이 우선되어야 하기에 사서직무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비전문가인 단기근무자(조교, 근로학생)에게는 도서관서비스에 관해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Ⅰ. 들어가며

환경적 측면에서 종합대학과 비교하면, 열세함(외형적 규모, 전문 인력, 관리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이용자우선서비스를 모색하고 도서관을 알리고, 도서관이용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점도 좋은 발전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다.

우리대학은 1972년 개교하여 1984년부터 사서를 채용 도서실을 운영 관리하였고, 교육의 도시, 평생학습도시인 진주에 소재하고 있다. 현재 교사동 3동 기숙사 1동으로 아담하고 작은 대학으로 재학생 2,600여명 교직원 100여명이며, 도서관리프로그램은 광주과학기술원에서 보급한 ASP프로그램으로 서비스 중이다.

평소 도서관 사서로서 도서관과 나의 발전을 위해 내가 해야 할일이 무엇인가?를 자주 자문하며,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접목하여 더 좋은 환경조성과 새로운 서비스로 이용고객을 만족시키므로써 이용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노력해 왔다.

특히 과거 도서관(문헌정보)학을 배울 당시 이론에 머물지 않기 위해 각종 세미나에 참석하여 직무연수는 물론이고 배운 것을 응용하여 그때마다 도서관에 적용하려고 노력하였다. 도서관관리프로그램에서 서비스가 되지 않는 사항은 행정적으로 번거롭지만, 이용자 편의・만족을 먼저 생각한 결과 수동으로 서비스를 실시하기도 한다.

지금까지 시행한 서비스로는, 이용자 요청자료 신속제공인 '우선대출제도'와 '선납품 후결재 우선대출' 일부 실시, 자료이용활성화를 위한 '각종 자료실 원스톱운영' '만화자료・독서심리치료・신착자료・과제물자료 코너 설치 운영' '우리대학논문집 DB작업 온라인 서비스' '우리대학 소장학술지 목차 자체 입력 서비스' '멀티미디어실 각종S/W설치 이용자 학습 환경 조성' '신입생 전체 반별 도서관 투어 및 이용교육이다. 도서관이용활성화를 위한 마케팅행사로는 '도서관에서 보물을 찾아라' '**칭찬・독서릴레이운동**' '우수이용자 시상', '소망카드 달기' 등을 실시하였다. 또한 사서자질 향상을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실시하는 사이버강의 수강 및 각종 협의회 사서직무교육에 참석하여 배우고 응용하여 좋은 도서관을 향해 환경을 점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 우리도서관의 서비스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Ⅱ. 업무개선 및 서비스 사례

1. 관리행정보다 이용자 우선서비스

가. 이용자 요청자료 신속제공

1) 선납품 후결재 병행 및 미정리자료 우선대출

일반적으로 도서관 자료구입은 행정절차상 '선결제 후납품'이 정상적인 시스템이나 우리도서관에서는 2,000년부터 이용자가 급하게 자료를 필요로 할 시 요청자료를 거래서점에서 즉시 입수하여 제공하는 선납품 후결재를 병행 실시하고 있다. 이 업무는 자료가 미등록상태라 도서관 관리프래그램에서도 관리되지 않으므로 별도 대장을 만들어 수동으로 기록한 후 대출한다. 이 업무를 처음 실시할 때 미등록상태에서 반납을 하지 않을 시 어떻게 될까? 걱정을 하면서, 만약 '미 반납시 담당실무자가 책임지고 배상한다'는 마음으로 시작하였으나 걱정은 우려에 불과했다. 이용고객이 자기만을 위한 특별서비스를 인지하였고, 도서관을 신뢰하며 도서관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우수고객이 되었다. 행정절차를 무시한 서비스이지만, 미반납 사태 발생 시 담당자가 사서로서 배상 책임진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함으로써 이용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었고 도서관 이용자가 증가되었다고 본다.

타 대학에서도 최근 들어 우리대학과는 절차상 차이가 나지만, 결재후 입수하여 미정리 상태에서 우선대출 해주는 '우선대출서비스제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물론 우리대학도 우선대출서비스를 하고 있다.

2) 자관 비소장자료 상호대차 제공

특히 교수연구지원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우리도서관에 소장하지 않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전문대학에서는 협력기관 가입여건이 쉽지 않은 1991년도 MEDILS(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에 가입하여 간호보건계열 교수연구를 지원하였다. 또한 국회도서관 상호협정체결도 전문대학으로는 두 번째로 체결하였으며, 그 뒤 , KERIS(한국교육학술정보원), NDSL(한국과학전자도서관), KORSA(광주과학기술원) 및 전문대학도서관협의회 등에 가입하여 비소장자료 접근도 용이하고, 소장이든 접근이든 꼭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현재 외부자료 상호대차 비용을 이용자부담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머지 않아 우리나라도 도서관이 부담하는 추세가 되리라 본다. 미국에선 오래전 이용자 자료제공에 있어 소장이든 외부접근이든 자료이용에 따른 비용 부담은 도서관이 부담하고 있다. 요즈음 우리나라에서도 몇몇 대학을 시작으로 외부소장자료 제공비용을 도서관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나. 각 자료실 원스톱 운영

도서관 건물규모가 크고 근무 인원이 많을 시에는 주제별자료실 운영 등이 효율적일 수도 있지만 작은 도서관에서는 주제별 자료실 운영은 관리측면에서도 관리인원이 많이 필요하다. 이용자측면에서도 주제별 자료실이 따로 운영될 시 이용자가 필요한 곳마다 출입을 다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느낄 수 있으므로, 우리대학은 2,000년 도서관시설을 확장 이전하면서부터(2,004년 다시 확장 이전시도 마찬가지) 일반 열람실(면학실)만 별도 출입을 하고, 나머지 각종 자료실, 멀티미디어실, 세미나실(공간부족으로 4개실은 강의동에 설치 운영됨)등은 한 출입구로 원스톱 통과하여 학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최근 학생들의 생활습성 중 하나가 조금이라도 귀찮게 느껴지면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는 점으로 볼 때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든다. 어떤 계획이라도 최고 결재권자가 계획을 수용하여 추진할 수 있게 결정을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을 추진하고자하는 담당업무자의 계획과 실천의지가 우선이라 본다.

다. 멀티미디어실 각종S/W설치 학습 환경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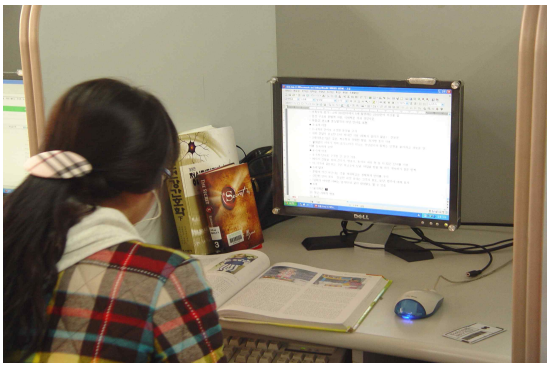
타 대학에서는 도서관멀티미디어실(정보검색실)을 DB이용, 인터넷자원, 전자매체를 활용하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활용하는 편이며 그 외 과제물, 리포트 자료는 교양전산실이나 각자의 집에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우리대학 멀티미디어실에서는 전자자료, DB활용과 더불어 여러 과제(컨퍼런스, 리포트작성 등)를 입·출력할 수 있도록 한글, 포토샵, 엑셀, 파워포인트 등 S/W설치해 편리를 도모하고 있다.

이 제도 시행 초기에는 학생이용자편에서는 편리하여 좋았으나 반면 도서관 직원들은 H/W, S/W관리 등으로 업무가 증가하여 야간연장근무를 하는 어려움이 따랐다. 차후 업무 증가 해결책으로 도서관 직원을 추가 확보하여 업무로 정착되었다. 이 업무를 하게 되므로 학습환경조성이 되어 도서관 이용율이 증가하고 서비스만족도 또한 높아짐에 따라 도서관의 역할변화와 중요성, 도서관 근무자의 업무에 대한 열의를 경영자에게 알리는데 도움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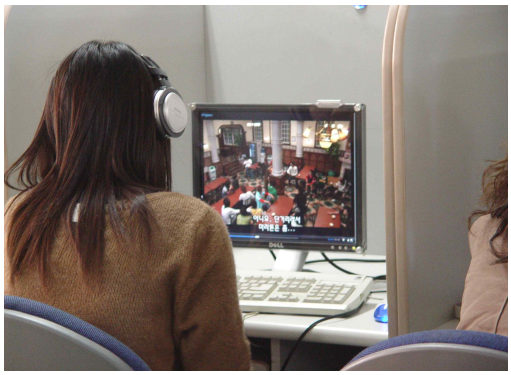
고전적 도서관의 의미로 볼 때 도서관은 도서만 활용하는 곳이었으나, 오늘날 도서관은 모든 매체가 어우러지고 여러 매체를 활용하며, 문화 활동 및 교육 등으로 문화·교육공간으로 변모해 가는 현실이다. 특히 우리대학 재학생은 기숙사나 자취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라 개개인이 H/W, S/W를 직접 구비하지 않아도 과제자료를 입출력 할 수 있는 점을 매우 만족 해 하고 있다. 2,004이전까지는 도서관의 인력부족으로 도서관이용시간을 낮에만 할 수 있었으나 야간근무인원을 확보하여 저녁10시까지 이용시간을 연장한 것도 이용자편의를 위한 마음에서 시작되었다.

멀티미디어실에서 DB 활용과 전자 자료등도 활용하지만, 일부 학생들은 인터넷 서핑과 소식을 주고받으며 시간을 허비하는 공간으로 인식할 수 있음에도 우리대학 학생들은 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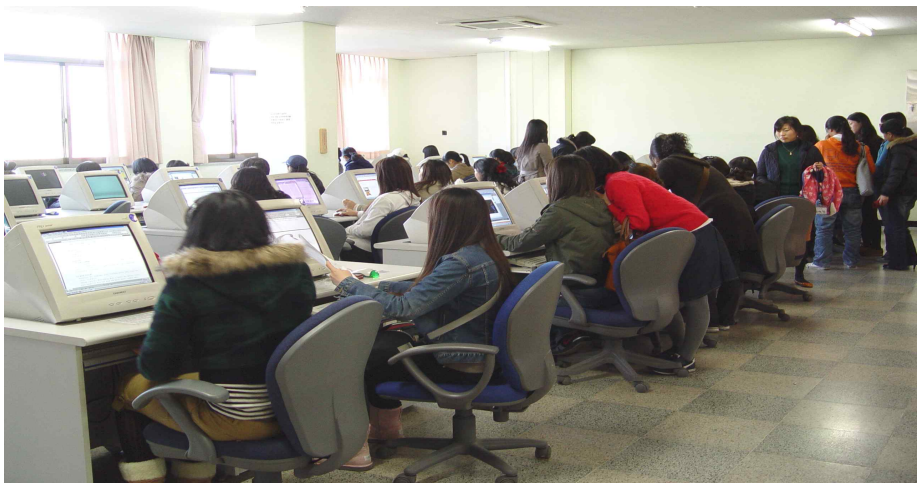
부하는 공간, 면학장소로서 인식하게 되었다. [그림 1-1~3 참조]



[그림1-1] 영화감상 장면



[그림 1-2] 리포트작성 장면



[그림 1-3] 리포트 및 발표자료 작성 장면

라. 전산화작업 서비스

1) 우리대학 논문 D/B작업 서비스

2,000년도에 우리대학 발간 논문집을 창간호부터 소급하여 PDF화일로 DB구축 완료해 서비스하였고, 그 후 마지막호 2,003년 26권 2호까지 자체적으로 DB를 구축하여 도서관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다른 대학에서는 국가 또는 자관예산으로 외부업체 위탁, 인력확보 등으로 DB구축을 실시한편이지만, 우리대학은 특별 예산없이 작은 인원으로 DB을 구축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http://lib.jhc.ac.kr/asp/jhc/대학논문

2) 소장학술지 목차 자체입력 홈페이지 서비스

지금은 여러 DB업체들이 국내외 학술지 목차 및 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2,000년도 즈음엔 자관 소장 학술지목차를 검색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특히 자관에

있는 자료도 이용자가 일일이 목차를 찾지 않으면 이용 할 수 없었던 시절 자체소장 국내외 학술지 목차를 입력하여 도서관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2,000년 이후는 외부업체나 협력기관에서도 학술지 목차검색이나 활용이 가능하여 현재 자관 소장 학술지 목차 입력은 중단하였고 이미 구축된 데이터는 홈페이지에 탑재 서비스하고 있다. http://lib.jhc.ac.kr/asp/JHC/haksulji2.html

3) 단행본 DB구축 서비스

도서관 관리프로그램을 자체 구입하기에는 작은대학으로서 어려웠던 환경이었던 중,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첫 보급한 KOLAS 1.0버전으로 1993년부터 소급단행본를, 인력 충원 없이 D/B작업을 시작하여 1996년 작업 완료해 서비스를 실시하였다. 2004년부터 웹버전인 ASP프로그램으로 교체해 현재까지 서비스 중이다.

마. 세미나실 설치

세미나실은 2,004년부터 도서관 내 2개실을 운영하여 활성화되면서, 2,007학년부터 강의동 4개실까지 도서관에서 관리한다. 운영방법은 도서관에 비치된 이용대장에 학생 스스로 예약하여 사용한다. 이용시간은 도서관 내 1시간, 강의동은 3시간으로 하며, 사용목적은 컨퍼런스, 단체 학습 시 이용할 수 있다. 이용실적은 2,006학년도 2개실 915건, 2,007년도는 2학기 10월 현재 6개실을 사용하여 1,493건이 이용되었다.[그림 2-1, 2-2참조)

[그림 2-1] 세미나실 이용전경

[그림 2-2] 세미나실전경

바. 면학실(일반 열람실)

교실 한칸으로 시작한 일반열람실은 지금은 5개실로 구분되어 1,098석으로 재학생 2,600여명에 많은 좌석을 보유하고 있다. 이용시간은 평일 06:00~23:00까지 시험기간은 24시간 개방하고 있다. 그러나 다년간 지켜본바, 정작 24시간 5개실을 개방했지만 일부학생만이 밤샘공부를 하여 학생대표들과 의논한 결과, 2,007학년2학기 중간고사기간부터 시험기간 동안 2개실만 24시간 개방하고, 3개실은 평일과 같이 이용하고 있다. 위와 같이 환경변화

에도 그때마다 즉시 대처하므로써 학생들도 좌석을 잡는데 에너지 소모가 적고, 청소 및 전기 등 에너지절약도 가져온다고 본다.

또한 면학실[그림 3-1, 3-2 참조]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환경개선에도 노력을 하며, 냉난방 등 시설점검도 매일 실시하고 있다.

[그림 3-1] 면학실 내부전경

[그림 3-2] 면학실 외부전경

2. 눈에 띄는 코너 설치로 도서관 이용활성화

가. 신착자료코너 설치

도서관의 많은 자료 중 최근 구입한 책과 베스트셀러 등을 별도 비치하여 이용자의 관심을 끌어, 이용 빈도를 높이는데 목표를 두고 2,000년부터 실시하여 현재까지 활용하고 있다[그림 4-1참조].

나. 과제물자료코너 설치

도서관자료의 복본구입이 한정되어 있어 학생들이 과제물발생시 두루 활용할 수 없으므로, 여러 학생이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한 학기동안 교과과정에 관련되는 자료를 교수의 추천을 받아 도서관내에서만 이용하게 하였다. 이미 여러 대학에서 실시한 후였지만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설치 활용하고 있다[그림 4-2참조].

[그림 4-1] 신착자료 코너

[그림 4-2] 과제물자료코너

다. 만화코너 설치

이 코너는 다른 대학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었으며, 우리대학에서는 공간 확보 및 여러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 실시하지 못하다가 2,006년 겨울방학을 맞아 만화코너를 설치하여 활용하고 있다. 무엇보다 인쇄자료와 친근하지 않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만화코너를 집중 안내하여 이용율을 증가시키므로써 책을 가까이하게 하고, 점차 일반자료 전공자료 이용을 유도하여 도서관을 활용하는 습관을 형성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그림 4-3참조].

라. 독서심리치료 코너설치

몇 년 전부터 개인적으로 독서심리치료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던 중 2,006년 국립중앙도서관이 주관한 대전한밭도서관에서 실시한 '지역사회와 정신보건문제와 독서치료' 세미나에 참석한 후, 소개된 목록과 2,006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발표된 독서치료목록 도서를 구입하였고, 2,007년 추가된 목록 도서와 영상자료도 구입비치해 이용하고 있다. 이를 자료실 입구에 별도 비치하고 상황별 목록마다 간략하게 내용을 기재하여 ON/OFF게시판에 홍보한 결과 현재 이용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미 이전에도 독서치료목록의 도서들이 많이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었지만 상황별이용자가 내용을 알지 못해 접근하지 못하였던 점을 감안해 별도 비치하여 내용을 안내하므로써 필요한 이용자의 접근이 용이하고, 내용을 알고 찾으니 치료효과가 있으리라 믿는다. 차후 독서심리치료교실을 열어 지도가 이루진다면 금상첨화가 되리라 본다[그림4-4 참조].

[그림4-3] 만화코너

[그림4-4] 독서심리치료코너

3. 도서관 마케팅 행사 실시

가. 칭찬·독서릴레이운동

2,005년 희망반에 한해 **시범실시**하고 설문조사한 결과 효과가 좋아, **2,006년 제1회**부터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인성교육 사업으로 학장님이 시상을 하는 행사로 실시하였고, **2,007년 2회째 실시**하고 있다.

독서릴레이는 다른 관종 도서관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고 **칭찬**릴레이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다. **두 가지를 접목하여 행사를 진행 한 것은 우리대학이 처음**이라 본다.

도서관은 지식문화교육공간으로서 교수연구와 학생의 전공 및 교양 지식제공뿐만 아니라 인성교육측면에서도 학교교육과 병행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본다. 도서관이 지식문화 생활 교육공간이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이 행사를 시작했다. 최근 몇 년 사이 전국 각 도서관에서는 도서관마케팅에 대한 인식과 함께 관련행사를 많이 추진하고 있다. 아주 고무적 현상으로 많은 도서관이 동참하면 도서관인식을 바로잡아가는 계기가 되리라 본다.

이 행사의 목표는 재학생들이 릴레이식으로 서로의 좋은점을 칭찬하고 칭찬받으며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에서 교양서를 읽게 하여 올바른 인성함양과 독서문화를 증진시키고자 함이었다. 독서기간과 책 수는 제1회에는 5개월 동안 1조 10인으로 편성하여 릴레이식으로 하여 1사람이 5권을 읽게 하였다. 행사 후 설문조사 결과 기간단축을 희망하여, 제2회는 1조 5인으로 1개월간으로 1인 1권을 읽게 하였다. 1회 때는 칭찬내용・감상평심사[그림 5-9 참조]용지는 책 맨 앞 페이지에 부착하여 배부하였고, 반별 독서후기용지는 반절지로 행사 막바지에 배부하여 작성하게 하였다. 심사방법은 아래 표와 같이 점수기준[그림 5-10 참조]를 만들어 심사하여 반별로 시상을 하였다.

제1회 때 행사결과를 분석 해 본 결과 독서후기작성 목적을 모두가 참여하는데 두었던데 반해 조별대표들 노력이 배가 되는 것을 보고, 2,007년 2회째는 보완하고자 독서후기작성양식[그림 5-8참조]을 만들어 배부하였고, 각자 자필로 느낀 점을 기록하게 하였다.

2,006년 독서후기작성[그림 5-2～5-5참조]를 살펴본 바, 특별한 모양 없이 백지 반절지 하나 나누어주었을 뿐인데도, 정성을 들여 기발하고 예쁘게 만들어 와 그해 전시를 하고도 아쉬움이 남아 지금도 도서관 입구에 순차적으로 전시를 하고 있다. 2,007년에는 똑같은 독서후기 양식을 배부하였지만, 조마다 아름답고 기발하게 꾸며 독서후기를 작성[그림 5-6, 5-7참조]하는데 감탄사가 절로 나왔다. 학생들은 어떤 계기가 주어지면 잠재되었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하게 펼쳐짐을 알 수 있었다.

도서관행사 후 시상금(품)으로는 일반적으로 학습에 필요한 상품이나 도서상품권을 지급한다. 우리대학에서는 반별 협력으로 이루진 결과이므로, 수상반별 학습환경 분위기조성에 도움이 되게끔 파격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1회, 2회 공히 시상금으로 일백만원을 지급하였다. 수상반별 후기로 “반 단합은 물론이고 독서동기부여 및 대학에서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어 감사하다” 내용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리고 **학생전원참여가 가능**했던 것은 **기본적으로 각과에 협조문을 발송**하기는 하였지만 그보다 **학장님의 인성 교육에 대한 마인드와 도서관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무엇보다 **각 과 교수님 관심과 지도가 큰 효과**를 가져 왔다고 본다.

행사 결과 설문을 통해 참여자의 83.5%가 “이 프로그램이 긍정적이고 유익하였으며,

78.4%가 독서계기에 도움이 되었고, 앞으로 독서를 많이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됐다" 고 하였으며 90.1%가 "칭찬을 하고, 받는 것이 인간관계는 물론 삶의 활력소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긍정적 결과를 얻었다. 또한 "**독서가 필요하다" 97.5%로 독서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므로, **동기부여가 되면 읽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바, 어떤 방법으로든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본다. [경남매일] 6.18일자에 보도되기도 하였다.

[그림 5-1] 프랭카드

그림 5-2] 2006년 독서후기전시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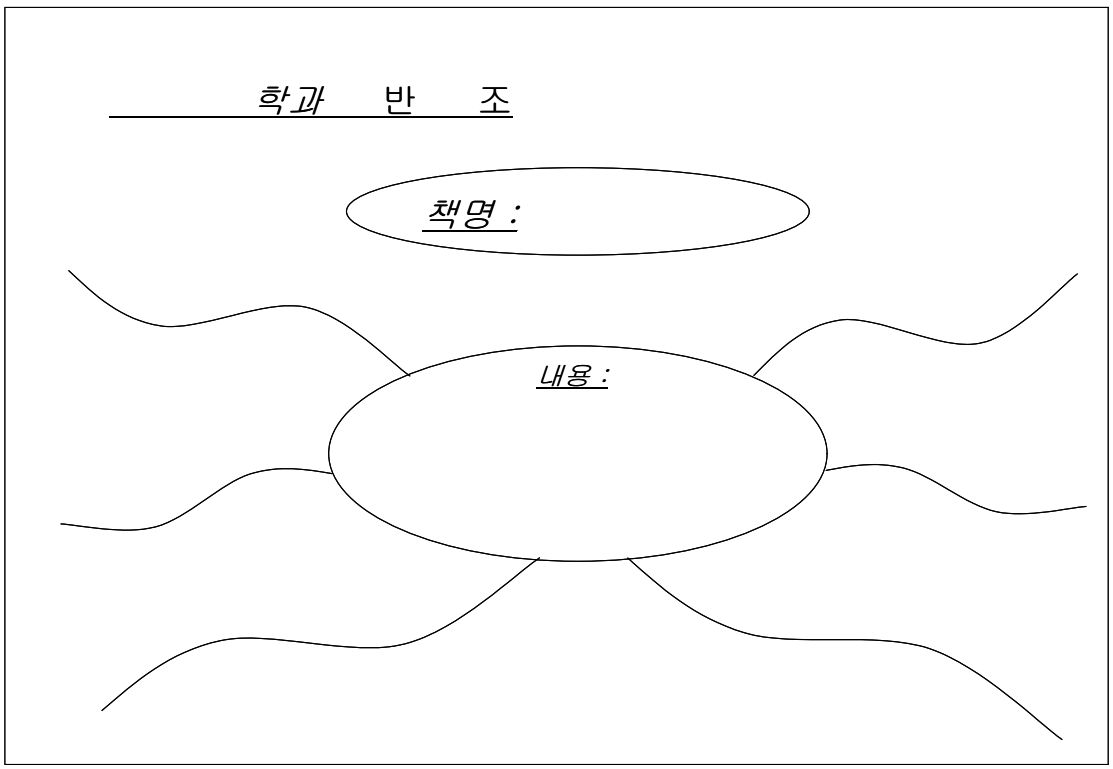
[그림 5-2] 2006년 독서후기전시사진

[그림 5-4] 2006년 독서후기전시사진

[그림 5-5] 2006년 독서후기전시사진

[그림 5-6] 2007년 독서후기

[그림 5-7] 2007년 독서후기



[그림 5-8] 2007 독서후기 양식- 독서후 조별 작성

칭찬 및 감상평

기재방법 : 먼저 읽은 사람은 본인성명 날인한 후 다음 주자 이름을 적고 전달하기 바랍니다.

읽는 사람			다음주자	
일자	이름(인)	책 읽은 느낌과 다음사람 칭찬 한마디!	일자	이름

[그림 5-9] 칭찬내용・독서감상평

학과	구분 학년반	칭찬내용 및 독서감상평(70점)		독서후기(30점)	점수합계
		참여인원수(40)	기재내용(30)	기재내용(30)	
간호과 (18개반)	1-A				
	1-B				
	1-C				
	...				
치기공 (3개반)	1				
	2				
	3				

[그림 5-10] 칭찬릴레이 점수기준

[그림 5-11] 독서・칭찬릴레이 시상사진

나. 도서관에서 행운을 잡아라

2006년 제1회 도서관에서 보물을 찾아라 행사 결과, 하루 30여분 짧은 시간에 치른 행사에 많은 학생이 밀리는 현상으로 안전사고의 염려도 있었고, 책속에 보물을 넣는 시간 등이 촉박했다. 그 점을 보완하고자, 올 행사는 제목과 기간 방법을 변경 '도서관에서 행운을 잡아라'로 하였다.

행사 홍보안내는 교내 on/off 게시판 홍보 안내문 부착, 프랭카드[그림 6-1참조] 제작, 홍보 및 학과에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행사를 준비하였다.

행사 후 응모방법과 상품지급은 제1회 때는 책속에서 보물을 찾은 후 책을 읽고 반납하면서 수령해 갔지만, 제2회는 전산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을 개발 1주일동안 책을 빌리는 사람 누구나 도서관에 별도 설치한 PC에 응모할 수 있었고, 전자추첨[그림 6-2참조]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하였다.

행사 후 설문조사 결과, 행사 이전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았던 학생들이 행사로 인해 '처음으로 도서관자료를 이용한 학생이 28%, 독서동기부여에 92%가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부가적인 효과로는 학생회·학과 임원이 추첨에 참여함으로서 학생임원으로 도서관에 관심을 더 가지게 되고, 추첨 후 간담시간[그림 6-3참조]에 나누었던 도서관 정숙문제 등에 공감하고 정숙 지도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림 6-1] 프랭카드

[그림 6-2] 전자추첨 장면

[그림 6-3] 시상자간담장면

다. 우수이용자시상

우수이용자 시상은 년간 도서관 이용을 많이 한 학생에게 칭찬하고자 제정된 것으로 타 대학에서도 많이 실시하고 있다. 우리도서관은 2006년부터는 선정지침을 만들어 환타지, 0.5점, 일반교양 전공도서는 1점으로 점수산정하고 장기연체자는 수상에서 제외하며, 연체도서가 있을시 1일 1점씩 감점하여 수상자를 선발 우수이용자 시상을 하고 있다.

[그림 7-1] 우수이용자 시상

[그림 7-2] 우수이용자 시상자간담

라. 소망카드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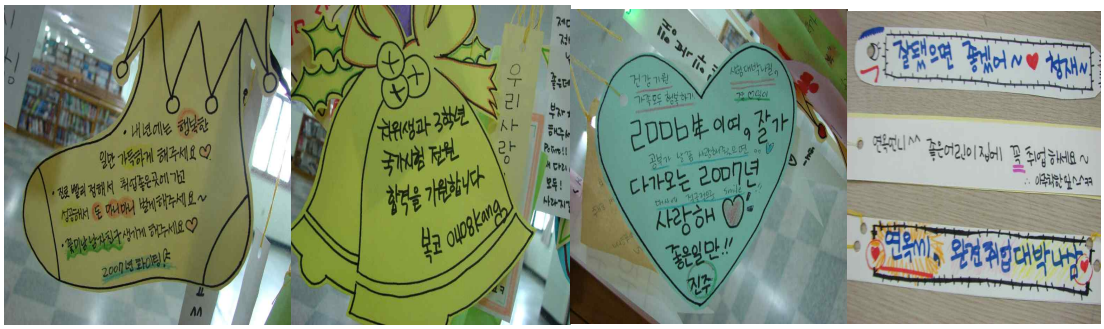
일부 대학도서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행사이며, 우리대학에서는 두 해째 실시하고 있다. 이 행사를 주관하는 목적은 이용자가 도서관에 관심을 한 번 더 가지는 계기를 만들고자 함과 자기소망을 적어보면서 소망을 향해 한걸음 더 다가 갈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고자 함이었다. 또한 소원하는 무엇인가를 27일간 간절하게 원하면 소망이 이루어진다고 하듯이 목표나 소망을 되새겨보고 전진해가는 것도 학생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게 하는 교육의 목표와 같다고 본다.

소망카드 제작은 여러 가지모양을 도서관에서 직접 만들었으며, 참여방법은 행사장 책상위에 진열해 놓은 원하는 모양카드에 소원을 적어 붙일 수 있도록 했다.

어떤 조직이든 어떤 행사를 처음 기안하여 결재를 득하기가 쉽지만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바이지만 우리대학도 마찬가지다. 이 행사를 도서관을 위한 투자라 생각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사비를 들여 시작하였다. 2006년도 두 번째 하는 행사지만 특별한 홍보 없이 도서관 앞에 코너만 만들어 놓았고 시기적으로도 방학시작 후임에 불구하고 400여명이 소망을 적어 달았다. [그림 8-1, 8-2참조]

올해는 작년 행사결과와 효과를 보고하고 결재권자의 허락을 받아서 카드모양도 인쇄제작하고 홍보도 할 예정이며, 준비를 하고 있다.

통계나 결과효과제시야말로 결재권자를 움직이는 가장 빠른 길이라 믿는다. 우리도서관은 각종 행사를 한 두해 시범실시 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행사에 대한 신뢰을 얻어 경영자의 더 많은 지원을 얻어내고자 한다.



[그림 8-1] 소망카드 모양

[그림 8-2] 소망카드 달기 전경

4. 신입생 반별 도서관 투어 및 이용교육

2,004년 이전에는 신청학과를 중심으로 일부 신입생만 반별교육을 실시하기 시작하였으나, 2,004년 도서관 확장 이전한 이후부터 공간이 확보 되어 전체 신입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각과에 협조문을 발송하여 지도교수 인솔하에 반별 도서관 투어 및 이용교육을 도서관에서 실시하고 있다.

이용교육과 투어시간은 2,006년까지는 30분에서 1시간 범위 내에서 여건에 따라 실시하였다. 실시 후 시간이 촉박하여 도서관을 알리는데 부족함이 있었던 바로 2,007년부터는 시간을 50분으로 정해 실시하였으며, 50분으로는 자료검색실습까지 가능하지 않아, 요청시 별도 2차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용 교육 후 설문조사 결과 '처음으로 도서관에 왔다' '이용교육 이후로 도서관을 자주 찾게 되었다' '도서관의 자료배열방법과 찾는 방법을 잘 알지 못했으나, 그 방법을 알게 되어 도서관을 이용하는 동기부여가 되었다' 등 학생들의 의견이 있었던 바를 보더라도 초·중·고등학교 재학시절 도서관을 찾거나, 도서관 책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들이 상당

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대학에서 도서관 견학 및 이용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5. 사서자질향상과 근무자 교육실시

6개 협의회(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 국회도서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국가과학전자도서관, 광주과학기술원, 전문대학도서관협의회)에 기관회원으로 가입하여 매년 실시하는 세미나에 참석하여 좋은 사례발표와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여 실무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

최근에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사서재교육프로그램 중 무료 사이버강의가 개설되어 여러 여건상 직접교육에 참석하지 못했던 작은 도서관 사서들도 의지만 있으면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됨에 따라, 사이버무료강좌가 개설된 독서치료과정과 도서관경영관리를 수강하였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도서관서비스 마인드가 부족한 조교, 근로학생 등 근무자가 늘어나는 추세로, 이들에게 도서관서비스마인드를 가질 수 있게 수시로 교육을 실시한다. 반복적인 교육이 효과가 높다고 보며, 특히 전공자가 아닌 단기근무자가 많이 편성되어 있는 도서관에서 교육은 필수적이라 본다.

이들 단기 근무자들이 도서관에 대해 잘 알고 좋은 이미지를 가진다면, 도서관을 적극적으로 알릴뿐만 아니라 도서관 인지도도 높아질 수 있고, 도서관을 떠나도 지지자가 될 수 있는 큰 자원으로 자리 매김하리라 본다.

Ⅲ. 나가며

도서관은 지식정보문화교육공간으로서 교수이용자의 연구지원은 물론이고 특히 학생이용자들이 대학생활을 통해 지식교양을 쌓는데 교육장소로서 직·간접적으로 지원 및 활동을 해야 된다.

도서관 운영관리도 결국 사람을 위해 사람이 한다고 보며, 간혹 도서관이 환경적으로 열악하다고 탓하는 이도 있지만, 전문가인 사서 한사람 한사람이 열과 성을 다해 업무에 임함으로써 좋은 도서관환경이 되리라 믿는다. 또한 **최소한 자신의 수입에 몇 퍼센트는 반드시 재교육에 투자해야 좋은환경과 직업적 성공을 가져오고, 자기분야의 전문가라 본다.**

어떤 일터든 처음부터 완벽한 환경이란 있을 수 없고, 개선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수이다. 그러기 위해서 사서로서 사명감과 환경 개선의지가 강하게 작동해야 한다고 보며, 내가 있는 일터가 어제보다 오늘 발전되었다면 직업적으로도 성공적이고 전문가로서 자부심을 느끼지 않겠는가?

우리대학 사례를 종합해 보면, 도서관이라 이름하기 어려운 자료실인 교실 한칸, 한사람으로 시작하여 지금은 사서2명, 조교 3명, 근로학생 다수의 인력 확보와 1,000여평 공간으로 확장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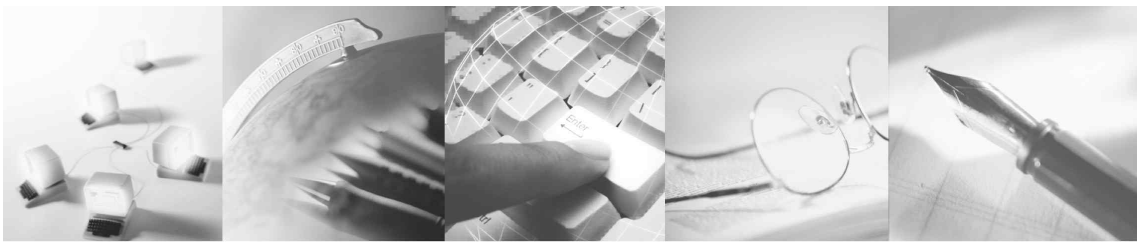
현재 이용자는 재학생 2,600여명으로 학기중 자료실 출입자가 평균1,000명이 넘고 하루 최고 2,400여명까지 이용하는 활기찬 도서관이 되었다. 현재에 이르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사서로서 사명감을 갖고 일이 많아짐은 도서관이 발전될 수 있는 원동력이라 믿었기에 작은 인원에도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다. 우리대학 도서관은 기본적으로 이용자를 위하는 사서의 직업정신과 도서관을 많이 활용하는 이용자가 있었기에 점차적으로 발전되었다고 본다.

지금까지 해온 서비스로는 이용자 요청자료 신속제공(미정리자료 우선대출서비스, **선납품 후 결재시스템 병행**), 자료실 원스톱운영, 자료이용확대를 위한 여러 코너 설치 운영(만화자료・독서심리치료・신착자료・과제물자료), 우리대학논문 DB작업 온라인서비스, 우리대학 소장학술지 목차 자체 입력 서비스, 멀티미디어실 각종S/W설치 이용자 학습환경 조성, 신입생 전체 반별 도서관 투어 및 이용교육 그리고 도서관이용활성화를 위한 마케팅행사로 도서관에서 보물을 찾아라, **칭찬・독서릴레이운동**, 우수이용자 시상, 소망카드 달기 등이다.

여러 행사 중 **칭찬・독서릴레이운동**은 우리도서관에서 **처음 접목**하여 **행사**를 해 본 **결과,**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독서계기**는 물론이고 **긍정적이고 유익했다는 결과**를 보더라도 **다른 도서관에 권장**하고 싶다.

앞으로도 좋은 업무를 응용하고 개발하여 우리도서관을 찾는 이용고객들이 도서관을 더 가깝게 느끼고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학교연계 프로그램을 통한 청소년의 도서관 이용 활성화 방안



기 관 명 인천주안도서관

제 출 자 김 선 태

현황 및 소개

▶ 연혁

- 1990년 2월 6일 개관
- 1992년 1월 1일 국립중앙도서관 지정 시범도서관
- 1997년 2월 4일 인천광역시 교육청 지정 사회교육관
- 1998년 4월 20일 인천광역시 교육청 지정 지역중심 평생학습관
- 2004년 3월 제36회 한국도서관대상 단체상 수상
- 2004년 12월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서비스 최우수기관 수상

▶ 운영목표

다양한 자료 확보와 친절한 열람봉사 및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지역사회에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연계 운영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고령화 사회에 소외계층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버교실을 운영 사회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고 주5일제 근무에 대비 도서관이 평생교육 및 정보문화 센터로서의 역할을 제고.

▶ 시설현황

- 대지 6,611.00㎡, 건물 4,996㎡, 좌석수 1,215석
- 주요시설 : 아동주부실, 평생학습1·2실, 디지털자료실, 참고·정기간행물실, 제 1, 2, 3열람실 등

우수사례 개요

1. 사업목적

- 주5일제 수업확대로 인한 청소년들의 도서관이용 문화 적극 조성
  - 휴무토요일을 활용한 도서관 체험 활동 유도 등
-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간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형성
  - 교과연계 독서지도 활성화를 위한 선정도서 및 추천도서 비치
- 올바른 독서습관 형성 및 도서관 이용을 위한 교육지원
  - 도서관이용법, 자료 찾기, 자료실소개, 도서관에서 하는 일 등

- 청소년관련 자료수집 및 제공으로 독서능력 신장 및 독서상담 활성화
  - 청소년자료코너운영(도서 및 간행물비치), 대상별 권장도서목록 비치 독서상담 및 지도, 관외대출증발급안내 등

2. 사업개요

- 청소년 도서관학교 운영(방학중)
  - 대상 : 관내 중·고등학생
  - 기간 : 1월, 7월
  - 내용 : 도서관이용법, 독서논술특강, 봉사활동을 통한 사서체험 등
- 학교방문서비스(학기중)
  - 대상 : 관내 봉사대상 중·고등학교
  - 기간 : 3월 ~ 11월(*7, 8월 제외)
  - 내용 : 찾아가는 프로그램 운영, 관외대출카드발급서비스
- 푸르미나눔터 운영(연중)
  - 대상 : 관내 중·고등학생 및 도서관 이용자
  - 장소 : 주안도서관 일반자료실내(3층)
  - 내용 : 청소년권장도서(2,500권 정도) 비치, 대상별 권장도서목록 비치 독서상담 및 독서지도 등

Ⅰ. 들어가는 말

독서는 문자라는 매체를 통해서 글쓴이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다양한 간접 경험과 타인들의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활동이다. 특히 청소년기는 아동기와 성인기의 과도기로써, 자아 형성과 가치관 확립의 결정적인 시기로 청소년기의 독서는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성장과정에 놓여있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책 읽는 즐거움을 맛보게 하여 책 읽는 활동을 평생토록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위해 책과 연결시켜 주는 것이 바로 도서관의 역할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에서는 이러한 청소년을 위한 여가, 교육 및 문화 활동 등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독서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은 아동과 성인 중심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는 많이 부족한 편으로, 아동과 성인에 비해 청소년들이 도서관 서비스의 혜택을 적게 받고 있는 실정이다.

주안도서관도 지역적으로 인근에 중·고등학교가 밀집해 있지만 청소년의 도서관 이용 실태는 주로 시험기간에 열람실 위주로 이용되고 있으며, 청소년의 서비스 및 프로그램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서관에서는 인근의 중·고등학생 70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의 수요조사를 위한 설문조사(2007. 7. 9 - 7. 13 : 붙임자료 참조)를 실시하여 청소년들의 도서관 이용이 활성화되지 못한 내·외부의 원인을 분석하고,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방안을 마련하여 다음과 같이 학교와 연계한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다.

Ⅱ. 추진내용

1. 학교방문 서비스

교육인적자원부의 사교육 시장 실태조사에 의하면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이 수도권 81.3%, 광역시 77.1%로 청소년들의 방과 후 시간은 많이 바쁜 상황이다.

실제 주안도서관 인근 청소년들의 설문조사(붙임 참조)에서도 도서관을 거의 이용하지 않는 이유를 '시간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42%,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25%, 자료가 많지 않아서 17%, 도서관 이용방법을 몰라서 16%로, 시간이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또한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없다는 응답도 25%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시간이 없어서 자주 이용은 못하지만,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원하는 다소 상반된 의견이 나왔지만 전체적인 의견을 분석하면 청소년들은 도서관에서 좋은 프로그램이 운영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따라서 우리 도서관에서는 수요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바쁜 청소년들을 위하여 학기 중에는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학교방문 서비스를 운영하게 되었다.

학교방문 서비스를 통하여, 청소년들이 도서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도서관과 연계한 프로그램, 대출 카드 발급 등으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었다. 또한 관교여중을 시범적으로 운영한 결과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사들에게도 좋은 호응을 얻어, 앞으로도 교과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관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며, 학교방문 대출카드 발급서비스도 연2회 정도로 확대시킬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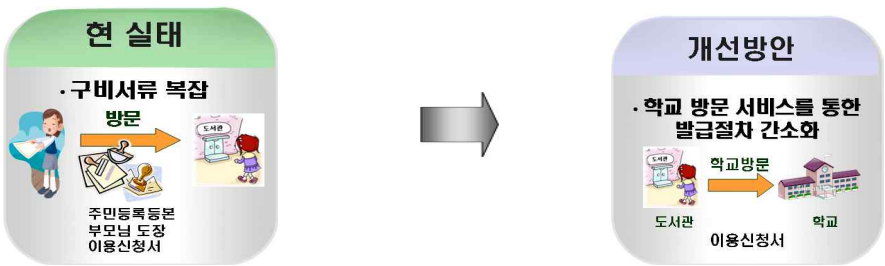
가. 학교방문 '찾아가는 프로그램'

1) 운영기간 : 학기중(4월-6월, 9월-11월)
2) 대상학교 : 관교여중(방과후 시범학교) 2개반 개설
3) 운영방법 : 설문조사에 의한 방문프로그램 개설
4) 운영내용 : 설문조사 결과에 의한 '논술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하며, 도서관 방문, 저자와의 대화 등을 통해 도서관 이용 기회를 확대함.
5) 향후계획 : 교과연계프로그램 개발, 도서관 연계 수업
6) 기대효과 : 청소년들의 수요조사를 통한 프로그램의 확대

[2007. 7. 12. 관교여중 148명 설문조사 결과]

나. 학교방문 대출카드발급 서비스

1) 일시 : 2007. 10. 11
2) 대상학교 : 관교여중
3) 운영내용 :
   - 학교연계를 통한 단체 발급시 청소년들의 대출카드 발급의 간소화
   - 학교방문 서비스를 통하여 사진 촬영 후 즉석에서 발급



4) 참여 학생 수 : 190 명
5) 향후계획 : 관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연2회 확대 예정
6) 기대효과 : 도서관 홍보 및 이용기회 확대

<관교여중 방문 대출카드 발급 서비스 현장>

2. 청소년 도서관학교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청소년들은 학업 및 학원 등으로 인한 시간 부족, 재미있는 프로그램의 부족, 도서관 이용법을 모르는 등의 이유로 도서관을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따라서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도서관 이용법 및 유익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청소년 도서관학교를 운영하여 자료 활용 및 독서습관을 형성시키도록 하였다. 또한 청소년 도서관 학교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는 1일 사서 체험을 함으로써 도서관 봉사활동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 목적

1) 청소년들에게 공공도서관의 역할 인식 계기
2) 올바른 공공도서관 이용교육으로 효율적인 도서관 이용문화 개선
3) 도서관 이용 및 자료 활용을 통하여 독서의 중요성 인식 기회 마련
4) 봉사활동을 통하여 공공도서관의 체험 및 사회체험
5) 청소년들의 공공도서관 체험을 통한 독서습관 형성 및 도서관 이용기회 증대

나. 운영기간 및 방법

1) 기간 및 시간 : 2007. 7월 23일(월) ~ 7월 27일(금) - 방학기간 중 5일
09:30 - 12:30(3시간)
2) 대상 : 중학교 1 ~ 3학년(1회당 20명 정도)
3) 방법 : 학교추천(각 날짜당 2명씩 추천 - 전체 10명 추천)
4) 참여학교 및 인원 수 : 남인천 여중 등 12개교 86명

다. 운영내용

1) 도서관 알아보기

- 도서관 이용법
- 도서관의 분류 목록 및 자료 활용법

2) 도서관 탐방

- 자료실 탐방 및 체험학습지 조사
  (모둠별로 도서관을 자료롭게 돌아보고 문항 완성하기)
  · 자료검색 시스템을 통해 찾고 싶은 책 찾기
  · 각 자료실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자료 및 코너 조사하기
- 미리 준비한 이용신청서와 함께 대출카드 만들기
- 대출카드 발급받은 학생들은 디지털자료실에서 ID와 Password 만들기

3) 1일 사서체험

- 사서 선생님과 함께 대출 시스템 익히기
- 서가에 도서 배열 및 정리하기

4) NIE 활용한 논술특강

- 주제 : 신문을 보면 논술이 보인다
- 활동목표 : 신문 읽기를 어렵고 따분한 것으로만 여길 수 있는 청소년들에게 NIE 활동으로 쉽고 친근하게 다가가는 동시에 세상을 보는 시각을 키워주는 계기를 마련함.

- 내용 : 신문과 친해지기(NIE란?, 강제결합법을 이용한 이야기 꾸미기)
  신문안에 세상 있다. (신문엔 어떤 내용이?, 신문 속 인물 표창하기)

5) 공공도서관 체험에 대한 설문조사 및 느낌 적기

- 주안도서관을 방문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처음이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으며, 주로 시험기간에만 이용한다는 학생들도 많은 것으로 보아 자료실보다는 시험공부를 위해 도서관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도서관학교 체험 중 가장 재미있거나 유익했던 활동은 무엇이냐는 질문에서는 신문을 활용한 논술 프로그램이 유익했다는 대답이 많았으며, 본인들이 직접 조사해 오는 도서관 탐방이 재미있었다는 대답도 많이 나왔다.
- 도서관학교에 참여하여 도서관 이용이나 자료 활용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느냐는 질문에서는 도서관에 처음 온 학생이 많아서인지 과반수 이상의 학생들이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답했다.
- 도서관학교에 참여하면서 아쉬웠던 점에 대한 질문에서는 모둠별 활동을 하면서 다른 학교 학생들이랑 친해지지 않아서 조금 어색했다며, 같은 학교 학생별로 모집하기를 희망했으며, 책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소수 있었다.
- 또한 전체적인 평가에서는 도서관에 처음 오거나 거의 이용하지 않았던 학생들이 많아서인지 도서관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고, 활용할 자료가 많아 재미있고 유익했다는 대답이 많이 나왔고, 도서 대출카드를 직접 만들어서 앞으로 도서관을 이용해야겠다는 대답도 나왔다.

청소년도서관학교 운영 후 앞에서처럼 청소년들의 반응이 매우 긍정적이었으며 앞으로도 도서관 탐방과 청소년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여 청소년들의 독서의욕 및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6) 봉사활동

- 당일 도서관학교 참가시간을 포함하여 봉사활동 시간 인정
- 도서관학교 참가 후 희망자에 한해 당일 봉사활동도 가능하며, 방학중 봉사활동

예약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 학생들이 청소년 도서관학교 프로그램을 참여한 후 봉사활동을 하니 도서관 시스템 이해 및 서가배열을 할 때 훨씬 쉽게 이해하였다.

<어린이, 주부 열람실 서가 정리>

3. 청소년 자료코너(푸르미 독서나눔터) 운영

아동과 성인기의 과도기로 청소년들은 중학생이 되면 일단 아동실보다는 일반자료실을 주로 이용한다. 그러나 일반자료실에는 주로 성인들을 위한 자료로, 청소년을 위한 자료가 함께 배열되어 있어 중·고등학생 이용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자료를 찾기가 쉽지 않다. 청소년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소년들의 전용공간 부족에 대한 불만과 자료 찾기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도서관에서는 일반자료실내에 청소년 자료코너를 만들어 운영하게 되었다.

청소년들에게 정서함양과 지적능력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를 비치· 제공함으로써 독서습관, 독서상담 등 독서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으며,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가. 목적

1) 청소년자료코너를 통한 독서동기 유발 및 프로그램 개발 확대
2) 청소년을 위한 독서환경 인프라 구축
3) 다양한 자료제공으로 청소년을 위한 독서기회비용 균등 제공
4) 청소년 독서상담을 통한 인성발달 및 독서생활화 유도

나. 운영내용

1) 청소년자료코너운영(도서 및 간행물비치), 대상별 권장도서목록 비치
   - 대상 : 관내 중·고등학생 및 도서관 이용자
   - 장소 : 주안도서관 일반자료실내(3층)
   - 내용 : 청소년권장도서(2,500권 정도) 비치, 대상별 권장도서목록 비치
     독서상담 및 독서지도, 도서관이용법, 대출증 발급 안내 등

2) 교과연계 독서지도 활성화를 위한 선정도서 및 추천도서 비치
-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간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형성

3) 지역내 학교도서관과의 연계를 통한 독서논술 아카데미운영
- 대상 : 인천관내 고등학생
- 장소 : 주안도서관 평생학습실
- 내용 : 독서논술, 독서토론, 도서관봉사활동 등

4) 올바른 독서습관 형성 및 도서관 이용을 위한 교육지원
- 도서관이용법, 자료찾기, 자료실소개, 도서관에서 하는 일 등

5) 청소년프로그램 운영(4월-11월) : 도서관과 친해지기
- 대상 : 관내 초·중·고등학생
- 장소 : 주안도서관 평생학습실
- 내용 : 한자급수 따라하기, 중학교 미술교과 따라하기, 예쁜 손 글씨 POP

6) 석바위 백일장 개최(11월중)
- 대상 : 관내 초·중·고등학생
- 장소 : 주안도서관 평생학습실
- 시상 : 교육감상 및 도서관장상

다. 추진실적

세부 사업 명	추진시기	추진실적
푸르미 나눔터 운영	연중	- 청소년도서구입 : 920권 - 청소년이용자수 : 22,734명 - 청소년이용책수 : 49,579권 (청소년자료 13,191권, 일반자료 36,388권) - 청소년독서상담 : 800건
청소년 독서논술 아카데미	4월~11월	- 운영횟수 : 5회 - 참여인원 : 123명 - 운영내용 : 주제별 독서토론 · 1차시(4/1) : 정부의 기업 규제완화속도 · 2차시(5/20) : 정보화 시대의 이상적인 민주주의 · 3차시(7/15) : 동북아와 한반도의 평화통일 · 4차시(8/19) : 세계의 기아 해결 방안 · 5차시(9/16) : 세계화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 ·6차시(11/18) : 우리나라 빈부격차에 대한 시사현황

세부 사업 명	추진시기	추진실적
청소년프로그램운영	4월~11월	- 예쁜 손 글씨 POP · 운영횟수 : 20회 · 참여인원 : 273명 - 한자급수 따라 하기 Ⅱ · 운영횟수 : 28회 · 참여인원 : 468명 - 중학교 미술교과 따라 하기 · 운영횟수 : 25회 · 참여인원 : 593명
석바위백일장대회	11월	- 대회일시 : 2007. 11. 4(일) 14:00~17:00 - 참가대상 : 관내 초·중·고등학교 49개교 - 대회장소 : 주안도서관 평생학습 1, 2실 - 시상인원 : 18명(교육감상2, 도서관장상16) - 참가현황 : 총 31개교 120명 (초16개교 53명, 중8개교 27명, 고7개교 40명)

라. 활동사진자료

□ 푸르미나눔터운영

□ 청소년독서논술아카데미

□ 청소년프로그램운영

▶ 예쁜 손글씨 POP

▶ 중학교미술교과따라하기

▶ 한자급수따라잡기

□ 석바위백일장대회

마. 기대 효과

○ 청소년을 위한 독서환경 인프라 구축
○ 청소년자료코너를 통한 독서동기 유발 프로그램 개발 확대
○ 다양한 자료제공으로 청소년을 위한 독서기회비용 균등 제공
○ 주 5일 수업 확대에 따른 청소년 토요휴무 대안 프로그램 마련
○ 청소년 독서상담을 통한 인성발달 및 독서생활화 유도

4. 취학 전 아동을 위한 스토리텔링 운영

가. 운영 목적

소외계층인 보육원을 직접 사서가 방문하여 어린이들에게 그림책 을 읽어주므로써 책 읽는 즐거움을 알게 하고 사서와 함께하는 독후 체험 활동을 통하여 정서적 안정 및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함.

나. 운영 내용

- 행사명 : “사서와 함께하는 스토리 텔링”
- 기간 및 일시 : 3월 - 12월(여름, 겨울방학기간은 제외)
  매주금요일(주 1회) 14:30-16:30
- 장 소 : 해성 보육원
- 대 상 : 해성보육원 해바라기반(5, 6세 원생)
- 참여사서 : 박정희, 김정숙, 임완정, 이주희, 고민자(1회에 2명이 참여 수업 진행)

다. 독후활동 지도내용

- 그림책을 읽은 후 기억에 남는 장면 그림으로 표현하기
- 옛이야기 및 창작동화를 읽고서 줄거리 및 느낀 점 발표하기
- 노래배우기 : 동무 동무 씨동무, 참새 한 마리 등
- 전래놀이 : 딱지 직접 접어서 놀이 활동해 보기
- 가면 만들기, 카드 연하장 만들기 등

라. 수업구성

수업구성은 그림책을 읽어주기 전에 먼저 이야기 노래를 부른 후 아이들의 집중력과 수업 분위기를 잡아주었다. 그 후 3가지 정도의 그림책을 읽어주거나 이야기를 들려주고, 독

후활동으로 그림그리기, 종이접기, 가면 만들기 등의 표현 활동으로 아이들의 느낌이나 경청도 등을 파악하였다.

또한 읽어 줄 책을 선정할 때는 보육원의 특성상 엄마 아빠가 등장하는 가족 동화보다는 동물이야기, 마법이야기 등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책으로 선정하였다.

보육원 방문 봉사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문은 다친 어린이들의 마음을 여는 과정이었다. 부모에게 버림받고 낯선 환경에서 적응하기란 어린아이들에게는 힘든 경험이고 마음의 상처는 곧 행동으로 나타난다. 떠들기, 떼쓰기, 울기, 반항하기, 소리 지르기 등 수업 진행을 방해하는 이런 행동들은 정상적인 스토리텔링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정서 장애 아동은 별도의 심리치료를 병행하여 정상적으로 수업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만 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는 '놀이치료'를 병행하기로 하고 전문가를 섭외하여 별도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Ⅲ. 맺는말

공공도서관은 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에 걸쳐 정보 및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곳이다. 그동안 아동 및 성인 중심의 서비스에 집중되어 있었지만, 다른 어떤 시기보다도 정신적, 육체적으로 왕성한 성장이 이루어지는 청소년기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특히 주안도서관은 지역적으로 중·고등학교가 인접해 있는 상황을 분석하여 위와 같은 청소년 서비스를 개발하게 되었다.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무엇보다도 운영 주체인 청소년들의 수요조사가 필요했으며, 도서관의 요구가 아닌 청소년들의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그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청소년의 경우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생활하고, 공공도서관이 지리적으로도 가까이 있지 않아 직접적으로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따라서 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학교, 또는 학교도서관과 연계하여 청소년들의 독서활동을 이끌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유아기 때의 독서습관이 성장기인 청소년기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어 소외계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독서관련 활동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공공도서관과 인근 학교도서관 간 자원공유, 협동 장서 개발, 프로그램 기획, 웹교육 프로그램, 학습도구 개발 협력, 공공도서관 견학 및 프로그램의 공유 등이 필요하다.

지역도서관과 학교의 단계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청소년의 서비스와 프로그램의 공유를 통하여 청소년들의 문화공간으로 정착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청소년의 발달단계에 맞는, 청소년이 중심이 되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이 있을 때, 청소년들이 공공도서관으로 찾아올 것이라 믿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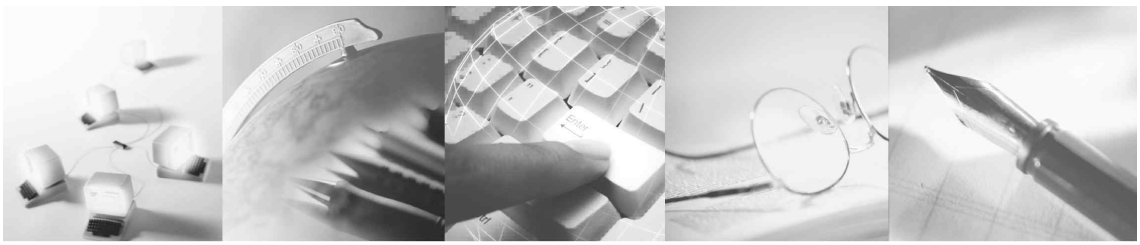
[붙임] **도서관 청소년 서비스를 위한 설문조사**

▣ 대상학교 : 관교여중, 선화여중, 인주중, 동인천중, 인천고 700명

▣ 설문기간 : 2007년 7월9일(월) ~ 7월13일(금)

구 분	문 항	명수	백분율
1. 귀하는 다음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① 중 1	307	44%
	② 중 2~3	273	39%
	③ 고등학교 1~2학년	120	17%
	④ 고등학교 3학년		
2. 주안도서관은 얼마나 자주 방문하십니까?	① 1주에 한번 이상	44	6%
	② 1달에 한번 이상	143	20%
	③ 시간기간에만 이용	252	36%
	④ 거의 이용하지 않음	261	38%
3. 도서관을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면 이유가 무엇입니까?	① 도서관 이용방법을 몰라서	43	16%
	② 자료가 많지 않아서	44	17%
	③ 시간이 없어서	109	42%
	④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65	25%
4. 주안도서관 방문시 주로 이용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① 열람실	223	47%
	② 일반자료실	201	43%
	③ 정기간행물실	3	1%
	④ 디지털자료실	39	8%
	⑤ 문화프로그램	6	1%
5. 주안도서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만족	8	2%
	② 만족	70	15%
	③ 보통	276	58%
	④ 불만족	70	15%
	⑤ 매우불만족	48	10%
6. 주안도서관에서 어떤 분야의 서비스가 개선되기를 바라십니까?	① 자료찾기 어려움	146	31%
	② 대출/반납 불편	66	14%
	③ 자료부족	76	16%
	④ 청소년프로그램 개설	184	39%
7. 주안도서관에서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설한다면 어떤 분야가 개설되길 원하십니까?	① 논술분야	241	35%
	② 역사 및 문화분야	218	31%
	③ 어학분야	178	25%
	④ 기타	65	9%

Library 2.0 기술을 활용한 도서관 서비스 개선 사례



기 관 명	성균관대학교 학술정보관 시스템실
제 출 자	손 태 익

현황 및 소개

성균관대 학술정보관은 급격히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과, 이용자의 정보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학술정보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과감한 조직개편을 시행하였다. 2005년 8월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2005년부터 서비스를 담당하는 팀과 서비스를 지원하는 팀으로 크게 구분하여 기존의 4팀에서 3팀 - 인문정보운영팀, 자연정보운영팀, 학술정보지원팀 - 으로 조정하여, 대외적으로는 '주제 담당 사서제'를 표방하며, 사서가 자료를 사고, 정리하고, 배열하는 일에 매달리기 보다는, 교원의 연구를 지원하고, 대학원생들의 논문 작성을 지도하며, 학부생이 도서관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등, 이용자 주제 맞춤 서비스에 집중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함께 서비스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게 되었으며, 기획 및 홍보 분야도 신설하여 도서관 문화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최근 급증하고 있고 그 중요성이 나날이 커져가는 전자자원(E-Journal, Web DB, E-Book 등)에 대한 정보도 통합적으로 정리하여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최신 웹 2.0 기술을 활용한 이용자 참여형 서비스를 구축하여 보다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의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학술정보관은 성균관대학교에서 수여한 학위논문, 교내학술지간행물, 교수 연구 업적물 등 학술자료에 대한 지속적인 DB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1950년대 이전 자료의 Digital화, 고서 및 고문서 DB 구축 등의 작업을 통해 우리나라의 유산으로 소중히 보존되어야 할 여러 Contents에 대한 DB 구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수사례 개요

미국의 시사 주간지 <Time>지가 2006년 올해의 인물로 선정한 인물 "YOU"가 의미하는 바는 이용자들이 직접 콘텐츠를 만들어 가는 참여형 1인 미디어 시대의 확산을 통해 서비스의 진정한 주인은 이용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준 것이라 하겠다. 이제 이용자들은 더 이상 콘텐츠와 서비스의 수동적 이용자가 아닌 능동적 참여자와 공급자가 되어 서비스를 변화할 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변화 방식자체를 바꾸어 나가고 있는 것이다.

2004년 O'Reily사와 MediLive International의 두 회사의 컨퍼런스 과정에서 나타난 웹 2.0라는 새로운 키워드가 이제 인터넷 세상을 대표하게 되었듯이 그 웹 2.0에서 자극받아 나타난 library 2.0은 도서관 서비스의 새로운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이제 학생들은 자료들을 찾을 때 도서관 검색 보다 구글이나 네이버와 같은 인터넷 검

색 엔진을 더 선호하며, 연구자들은 학술정보 포탈 사이트를 더 선호하는 현실에서 도서관은 변화하는 이용자들의 서비스 이용 형태와 요구들에 빠르게 대응하여 새로운 서비스들을 개발해야만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이러한 시점에 library 2.0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은 웹 2.0 서비스가 버블 붕괴 이후 살아남은 회사들의 차별화된 서비스로 일컬어지는 것 같이 library 2.0 서비스 역시 현재의 서비스와 차별화된 서비스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위기를 맞고 있는 도서관에 새로운 과제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성균관대 학술정보관은 2005년부터 10월부터 기존에 제공되는 서비스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웹 2.0의 대표적 기술들인 블로그, 위키, 북마크릿, RSS 폭소노미 등을 적용하여 새로운 library 2.0 서비스들을 구현하였다. 먼저 IFL(Internet Faculty Library) 학문 영역별 인터넷 디렉토리 방식의 온라인 참고 정보원 서비스를 북마크릿 기법을 활용한 온라인 소셜 북마킹 사이트로 전면 개편하고, 기존의 E-mail 방식의 SDI 서비스를 RSS 서비스(실시간 맞춤형 정보) 방식으로 전환하였으며, 주제 전공별 온라인 참고 정보 서비스를 위키 방식으로 전환하여 이용자 누구든지 쉽게 콘텐츠 구축 및 수정 편집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존의 오프라인 형태로 산재되어 있던 업무 매뉴얼을 위키 방식으로 온라인상으로 구현하여 누구든지 쉽게 열람 및 수정을 가능토록 해 구성원들 간의 업무 협조와 협업이 더욱더 원활하게 하였다. 또한 현재의 OPAC 방식의 책 검색 형태에서 북마크릿 기법을 활용하여 새로운 형태의 도서 검색 사이트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현재 성균관대학교 학술정보관에서 구현되고 있는 Library 2.0 서비스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성균관대 학술정보관 Library 2.0 서비스

Ⅰ. 서비스 구축 사례

1. 도입 배경

가. 기존 환경

전통적인 대학 도서관의 서비스는 이용자들의 요구와 변화에 대응하여 서비스를 개선하거나 변형하는데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된다. 더욱이 다양한 콘텐츠들을 디지털화하여 구축하고 제공하기 위해선 더욱더 많은 비용과 인력을 필요로 한다. 이는 콘텐츠 구축은 전통적으로 사서들만의 몫이며 도서관은 콘텐츠 공급자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하면 된다는 생각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온라인 위키피디어와 같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세계 최초의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의 6만 5천 건의 정보 건수보다 30배가 많은 200만 건의 정보를 6년 만에 구축한 위키피디어의 콘텐츠 구축자들은 인터넷상의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었다. 이는 새로운 콘텐츠 구축의 중심이 이용자 중심에서 더 나아가 이용자 주도형으로 웹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이용자들은 야후의 디렉토리 방식의 검색 보다는 구글의 page rank 검색 방식을 더 선호하고 있으며 정보전달 방식에서도 e-mail 방식보다는 RSS 방식을 더 선호하는 추세이다. 이전의 정보 환경들은 웹 2.0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 이용자 중심으로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 이 시점에 도서관도 변화하는 정보 환경 및 정보조직 환경과 급변하는 이용자들의 정보 검색 요구들에 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하여 새로운 서비스들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진다.

나. 기존 서비스 분석

2005년 8월에 성균관대학교 중앙 학술정보관과 과학 학술정보관의 DB를 통합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기존의 성균관대 학술정보관 홈페이지에서 제공 했던 서비스들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전통적인 일방향 서비스 형태를 이용자 커뮤니케이션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양방향 서비스 형태로 전환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 기존 서비스의 문제점들은 <표 1>과 같다.

<표 1> 기존 서비스 분석

서 비 스	서비스 내용	문 제 점
IFL (Internet Faculty Library)	- 전공별 온라인 참고 정보원 서비스 - 통제어휘 방식의 디렉토리 분류 - 전문 인력 구축	- 유지비용 및 시간이 많이 듦 - 검색 커버리지 및 콘텐츠의 최신성이 떨어짐 - 타 전공 지식부족으로 인한 콘텐츠의 유효성이 떨어짐

서 비 스	서비스 내용	문 제 점
SDI 서비스	- 신착정보 e-mail 전달 서비스	- 콘텐츠의 최신성 및 전달성이 떨어짐 - 스팸메일 - 제한적인 콘텐츠 제공
업무 메뉴얼	- 오프라인 문서 형태의 업무 메뉴얼	- 부서원간의 정보 공유가 힘듦 - 번거로운 업무 인수인계 - 추가 업무를 위한 수정 개선에 많은 시간 소요
전공별 참고 정보원	- 온라인 전공 참고 정보원 - 사서가 관리 DB 구축 - 링크 방식	- 관리자 방식으로 인한 콘텐츠의 지속적인 업데이트 어려움 - 검색 불가
OPAC(Online Public Access Catalog) 검색	- 도서 검색	- 다양한 방식의 검색 결과를 보여주지 못함 - 외부 데이터와 연계가 어려움 - 일방적인 검색 결과

다. Llibrary 2.0 서비스 도입

전통적인 방식인 일방향 디렉토리 검색과 수동적인 서비스 제공 방식은 웹 2.0으로 인해 진화하고 있는 웹 환경 속에서 이용자 주도형의 새로운 서비스로 전환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에 기존 학술정보관의 서비스 분석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들을 웹 2.0 서비스를 주도하는 대표적인 기술인 RSS, Wiki, Tagging, 폭소노미, 북마크릿 등을 통해 보완하여 <표 2>와 같은 서비스를 구축하게 되었다.

<표 2> 성균관대 학술정보관 Library 2.0 서비스

서비스 구분	서비스 내용	장점
SKKUBEE (학술 온라인 소셜북마킹 서비스)	- 이용자 참여형 웹 참고정보원 사이트 - 태그 방식의 분류법 - 추천, 공유를 통한 지적네트워크 생성	- 실시간 콘텐츠 제공 - 원활한 전공별 지식 공유 - 유지비용 및 관리 인력이 필요 없음
RSS 서비스	- 실시간 콘텐츠 제공 서비스 - 다양한 플랫폼을 통한 콘텐츠 배포	- 이용자가 원하는 주제의 콘텐츠를 골라 이용 가능 - 실시간으로 정보 제공 - 정보 관리 및 Backup 용이 - 모바일을 포함한 다양한 플랫폼 서비스 가능

서비스 구분	서비스 내용	장점
업무 매뉴얼 위키	- 웹상에서 언제든지 수정, 편집이 가능한 업무 매뉴얼	- 구성원 간의 원활한 협업 가능 - 업무 인계 용이 - 실시간 수정 편집 가능
전공 위키 백과	- 집단 지성을 활용한 전공별 콘텐츠 관리	- 이용자 중심의 전공별 콘텐츠 구축 - 웹상에서 실시간 수정 편집이 용이 - 지속적인 콘텐츠 업데이트
책검색 2.0	- 북마크릿을 활용한 웹 도서 검색 시스템	- 각종 도서관에서 활용 가능 - 시간적 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

개선전과 개선 후의 서비스를 비교하면 <표 3>과 같다.

<표 3> 개선 전후 서비스

구 분	개 선 전	개 선 후
온라인 참고정보원	IFL (Internet Faculty Library)	SKKUBEE (학술 온라인 소셜북마킹 서비스)
	전공별 참고 정보원	전공 위키 백과
정보 전달 방식	SDI 서비스	RSS 서비스
업무 메뉴얼	책자 형태의 업무 매뉴얼	업무 매뉴얼 위키
검색 방식	OPAC 검색	책검색 2.0

2. 서비스별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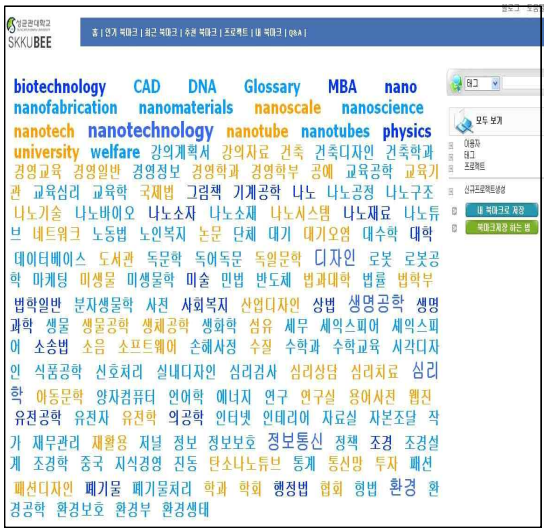
가. SKKUBEE(학술 온라인 소셜북마킹 사이트)

소셜북마킹(social bookmarking) 서비스는 인터넷 서핑을 통해 마음에 드는 사이트를 기존 브라우저의 즐겨 찾기나 북마크 메뉴에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웹상의 북마크 사이트에 저장하고 다른 이용자와 사이트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서로의 관심 정보들을 교환할 수 있는 북마킹 서비스를 말한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기존 디렉토리 방식의 전문 인력이 구축하던 IFL 서비스(학문 영역별 온라인 참고 정보 서비스)를 이용자가 직접 부여한 키워드 즉 태그를 통해 자유롭게 분류하고 학술적인 다양한 웹 참고정보원들을 쉽게 웹상에 올려서 공유할 수 있도록 웹 2.0 기술을 활용한 SKKUBEE(학술 소셜북마킹 사이트)를 만들었다. 성대 내에서 일종의 지식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On-line 상의 기반을 구축한 것이다.

SKKUBEE에서 사용된 웹 2.0 기술들은 자바스크립 소스를 활용한 북마크릿, 이용자 분류 방식인 태킹 기술 그리고 RSS 기술로 이용자들이 쉽게 자신의 브라우저 상에서 한번의 버튼 클릭만으로 북마크 하고자 하는 사이트의 정보들을 인식하여 직접 분류 키워드, 즉 태그를 입력 자신의 북마크로 저장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저장된 북마크들은 공유와 추천, 코멘트 기능을 통해 다른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웹 참고 정보원으로 또 다시 2차적으로 가공되게 된다.

<그림 2> SKKUBEE 첫 화면

<그림 2>에서 SKKUBEE 메인화면내에서 최근 북마크, 인기북마크, 추천북마크, 내 북마크 등 다양한 항목별 북마크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림 3>과 같은 월별 태그 및 전체 태그들을 Tag Cloud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그림 4>와 같은 프로젝트 기능을 통해 이용자가 직접 정의한 북마크 모음들을 관리하고 전공 관련 웹 정보원들을 묶을 수 있다.



<그림 3> Tag Clou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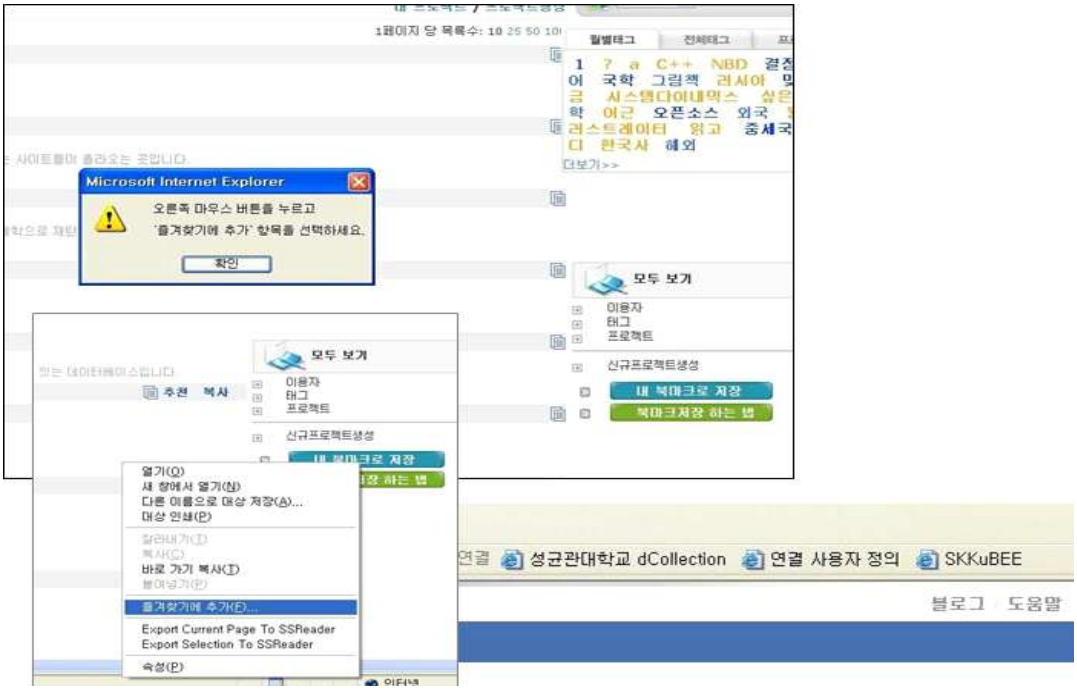
<그림 4> 프로젝트

또한 <그림 5>와 같이 학술정보관 OPAC 검색과의 연계를 통해 해당 키워드로 검색 된 결과를 SKKUBEE에 북마크하고 관리할 수 있게 설계하였다.

<그림 5> 학술정보관 검색 결과를 스쿠비 북마크로 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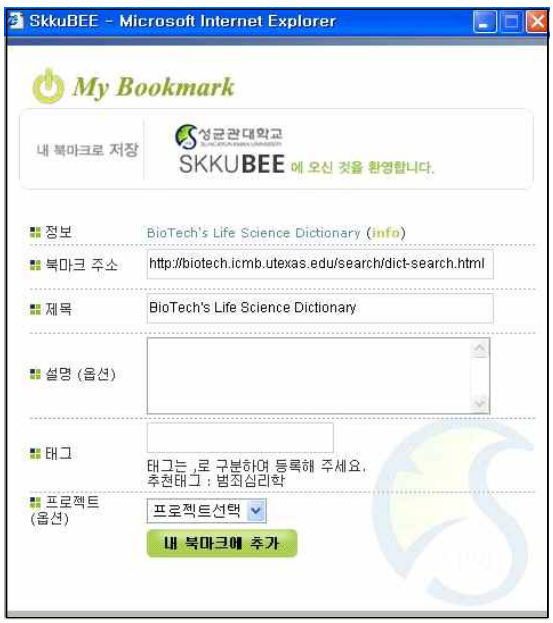
실제로 북마크를 브라우저에 등록하고 구현되는 방법을 보면 <그림 6>과 같이 마우스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여 '내북마크로 저장'이라는 스쿠비 버튼을 즐겨찾기에 등록한 후

에 웹상에서 북마크 추가하기를 원하는 웹페이지에서 내북마크로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그림 7>과 같이 로그인 창이 뜨고 로그인 후 <그림 8>과 같은 북마크 정보 입력창에 간단한 정보들을 입력하고 저장하면 스쿠비 사이트에 등록 되어 공유하게 된다.



<그림 6> "내 북마크로 저장"을 즐겨찾기에 추가

<그림 7> 스쿠비 로그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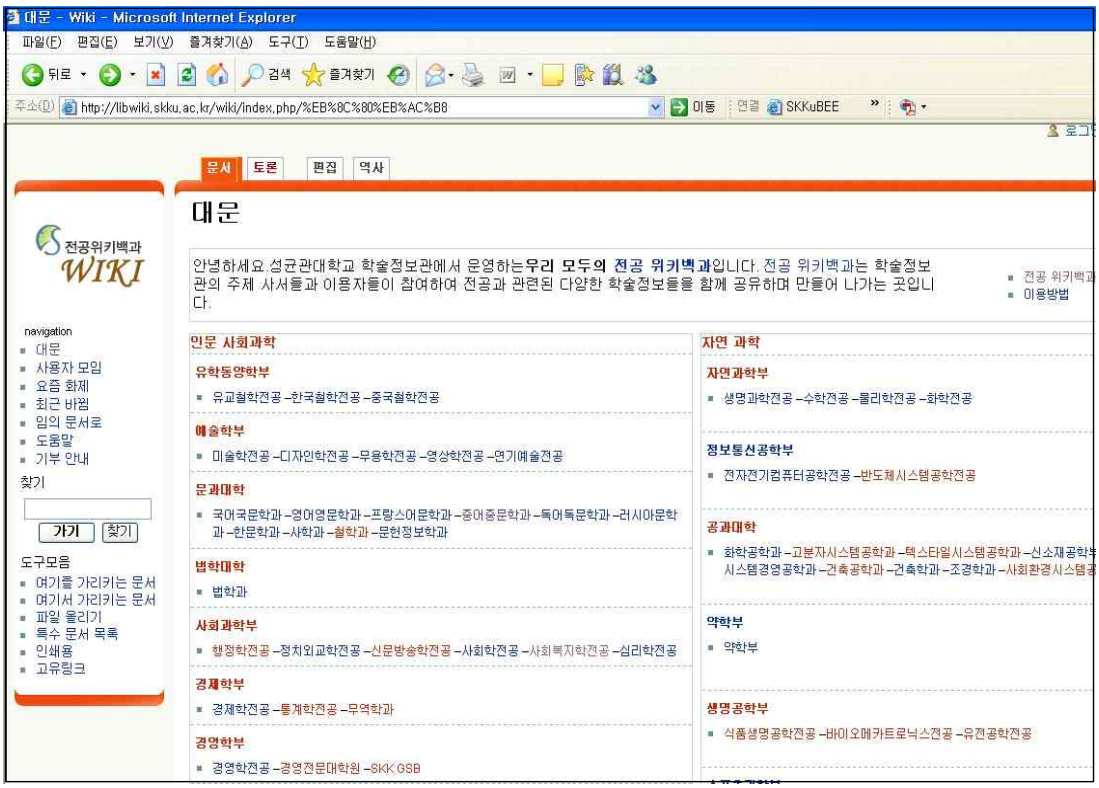


<그림 8> 내 북마크에 추가

나. 전공백과 위키

위키(WIKI)는 이용자들이 공동 작업을 통해 콘텐츠를 쉽게 추가하고 변경할 수 있는 웹 사이트를 말한다. 가장 대표적인 사이트로 2001년에 오픈한 위키피디어를 들 수 있는데 세계 최초의 백과사전 브리태니커 사전의 65,000건의 데이터 양 보다 30배가 많은 200만 건의 정보량을 가지고 있는 온라인 백과사전으로 웹상의 누구든 정보를 올리고 또한 수정 편집이 가능한 사이트이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웹상에서 전공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누구든지 올리고 수정 편집이 가능한 전공 백과 위키를 만들어 전공별 연구 및 학습에 도움을 주고 있다.

<그림 9>와 같이 전공 위키 백과 첫 화면에는 전공별로 분류된 위키 페이지가 생성되어 있으며 개별 전공 페이지들은 링크를 통해 연결되어 있다.



<그림 9> 전공위키백과 첫화면

<그림 10>과 같이 개별 전공 페이지 내의 콘텐츠들은 누구든지 수정 편집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실제 전공 이용자들이 카테고리화한 메뉴들이 <그림 11>과 같이 나타난다.

<그림 10> 전공백과위키 편집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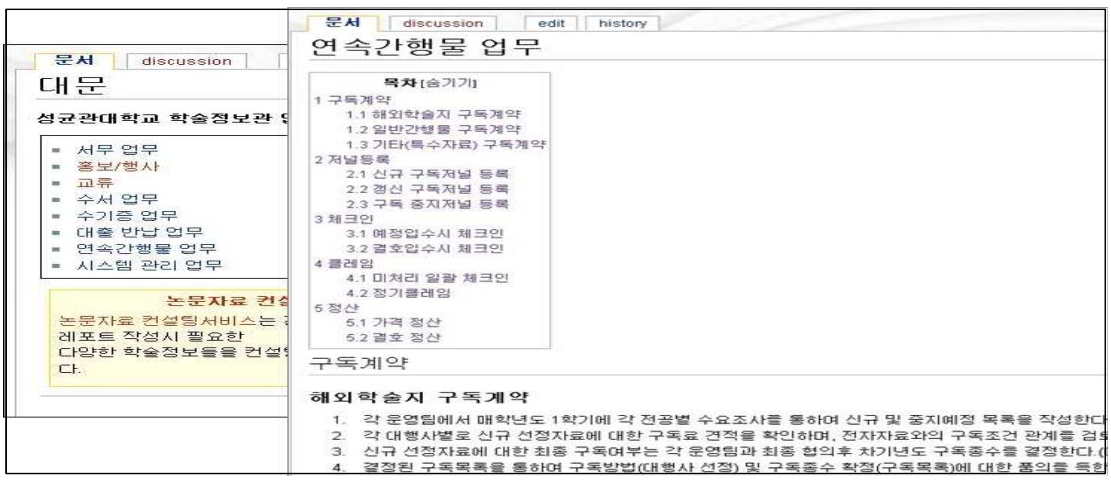
<그림 11> 전공위키백과 - 전공 page

또한 <그림 12>에서 보는 것 같이 네이버의 지식IN 형태의 질문 기능이 있어 자유롭게 질문을 올리고 다른 이용자들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기능도 있다. 현재는 특수 대학원 논문 작성 시 도움 되는 컨설팅 서비스를 주제 사서와 연계하여 서비스를 하고 있다.

<그림 12> 특수대학원 컨설팅 서비스 위키 화면

다. 업무매뉴얼 위키

위키는 누구나 편집에 참여할 수 있는 웹 사이트이기 때문에 부서내의 업무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도 효율적이다. <그림 13>과 같이 부서내의 다양한 문 서들(업무 편람, 매뉴얼, 지침 등)을 위키 형태로 웹상에서 공유하고 이를 수정 편집하게 함으로써 부서내의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그림 13> 업무매뉴얼 위키

라. 책검색 2.0

책검색 2.0은 전통적인 도서관의 OPAC 검색 형태에서 더 나아가 웹상의 다양한 온라인 서점들에서 북마크릿 기술을 활용하여 ISBN을 포함하는 웹페이지에서 ISBN을 추출하여 로컬 도서관의 OPAC에 해당 ISBN을 보내 도서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즉 온라인 서점 사이트에서 도서를 찾은 후 브라우저에 추가된 해당 도서관의 북마크릿 버튼을 클릭하면 그 도서관의 검색 결과를 새창으로 띄워 주게 된다. 현재 80여개 국공립 도서관 및 대학 도서관 사이트의 북마크릿 버튼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림 14>과 같이 메인 화면에서 국공립 및 사립대 도서관 리스트들이 나열되어 있으며 <그림 15>와 같이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통해 브라우저 상에 즐겨 찾기 추가를 하면 해당 도서관의 북마크릿 버튼이 브라우저에 등록되게 된다.

<그림 14> 책검색 2.0 메인 화면

<그림 15> 책검색 2.0 즐겨찾기에 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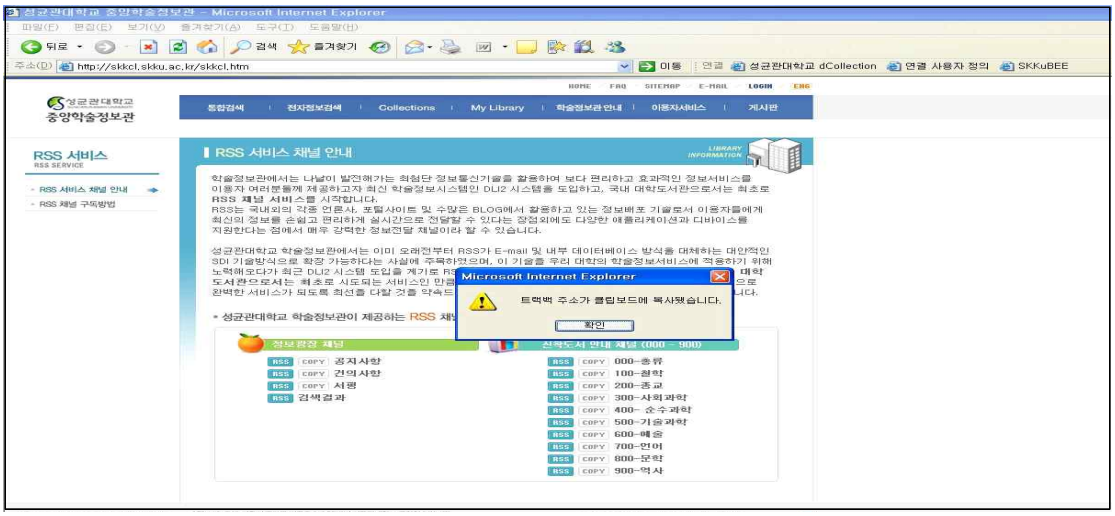
북마크릿 버튼을 브라우저에 등록한 후에 <그림 16>과 같이 인터넷 서점에서 해당되는 도서를 찾은 후 북마크릿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등록된 도서관의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새창이 뜨게 된다.

<그림 16> 인터넷서점에서 책검색 2.0을 활용한 검색 결과

마. RSS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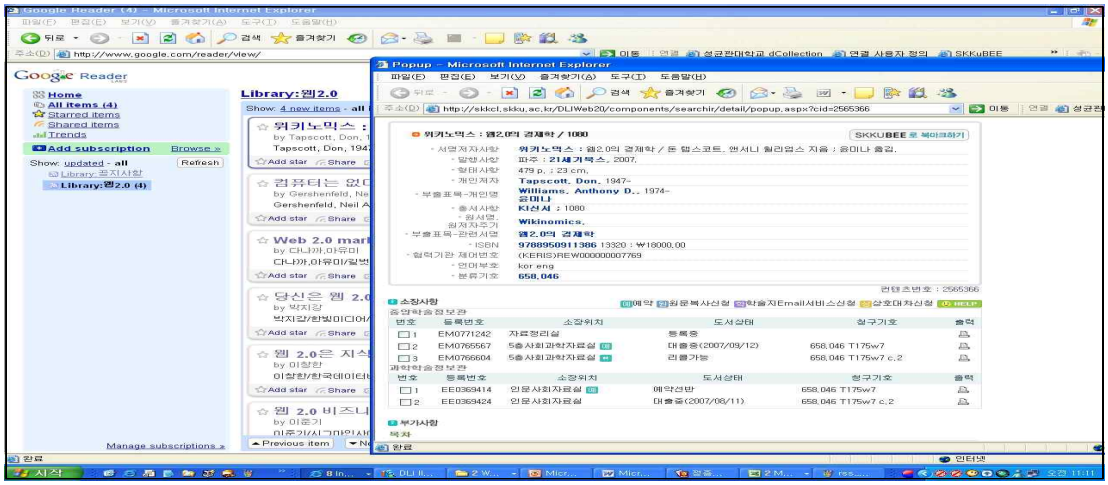
RSS(Rich Site Summary)서비스는 자주 업데이트 되는 콘텐츠를 보다 쉽게 이용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서비스로 실시간 맞춤형 정보 배달 서비스이다. 기존 E-mail 방식의 수동적 정보 전달 방식에서 능동적으로 정보를 필터링하고 개인화하여 본인이 원하는 정보들만을 실시간으로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전달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성균관대 학술정보관은 2005년부터 대학도서관 최초로 RSS 방식의 다양한 정보(검색결과, 각종 게시판, 주제별 신착도서 리스트 등)들을 이용자들에게 제공해 오고 있다.

<그림 17>과 같이 도서관 홈페이지에 링크 되어진 RSS 페이지를 통해 원하는 콘텐츠 RSS를 블로그나 리더기와 같은 다양한 플랫폼에 등록하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된 정보들을 서비스 받을 수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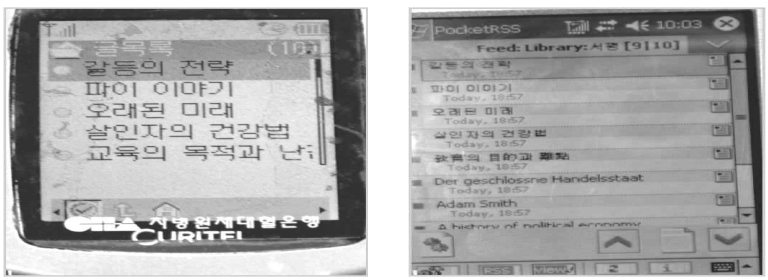


<그림 17> 학술정보관 RSS 서비스

<그림 18>은 웹상의 구글 리더를 통해 도서관 공지사항을 제공 받고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RSS 정보는 웹상에서뿐 아니라 PDA 또는 휴대폰을 통해서도 제공 받을 수 있다. <그림 19>는 학술정보관의 RSS서비스가 휴대폰과 PDA에 제공되는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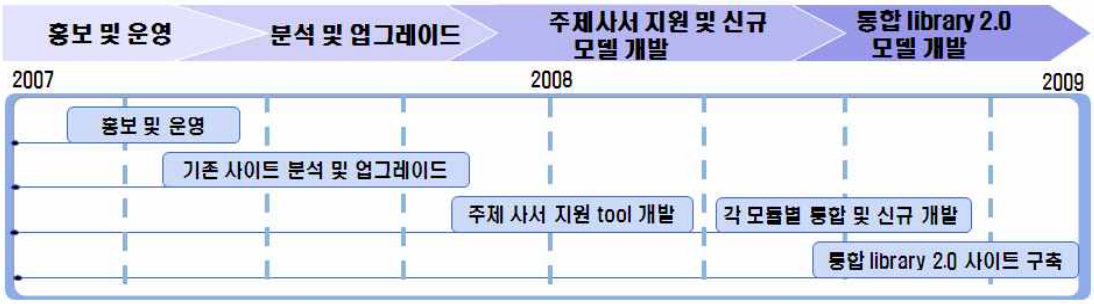
<그림 18> 구글 리더를 통한 학술정보관 RSS 구독



<그림 19> 모바일 기기를 통한 RSS 구독

Ⅱ. 향후 방향

성균관대 학술정보관은 올해 초부터 UCC 서포터즈를 모집하여 시범 운영하고 있다. 이용자들에게 새롭게 선보이는 Library 2.0 서비스들을 홍보하고 자생적인 콘텐츠 공유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이다. 제공되는 서비스들은 계속적으로 이용자 그룹간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계속적으로 수정 개발할 예정이다. 웹 2.0사이트들이 베타라는 모습으로 끊임없이 변해가는 것처럼 성균관대 학술정보관 서비스들도 영원한 베타로서 남을 것 같다. <그림 20>과 같이 성균관대 학술정보관은 2007년 상반기 동안에 Library 2.0 서비스 홍보와 이벤트를 통해 도서관 서비스를 알려 나가는 작업을 진행했고 하반기부터 기존의 서비스들을 다시 한 번 분석하여 새롭게 업그레이드 할 예정이다. 2008년도부터 2009년까지는 새롭게 주제 사서 서비스 영역 내에 웹 2.0 기술을 접목한 신규 서비스를 개발하여 도서관 홈페이지와 Library 2.0 서비스를 통합한 Library 2.0 사이트도 구축할 예정이다.



홍보 및 운영	분석 및 업그레이드	주제 사서 지원 및 신규 모델	통합 library 2.0 모델 개발
-UCC 서포터즈 및 주제 사서를 통한 홍보 -각종 홍보 이벤트 -도서관 검색 시스템과 연계	- 기존 사이트 분석 및 통계 - 사이트 레이 아웃 및 컨텐츠 구축 방식 개선 - 신규 웹 2.0 기술 접목	-주제 사서 지원 툴 개발 (전문 검색 엔진 등) -주제별 블로그 및 커뮤니케이션 tool 개발	- 도서관 홈페이지와 연계된 통합 library 2.0 모델 개발 -개인화 홈페이지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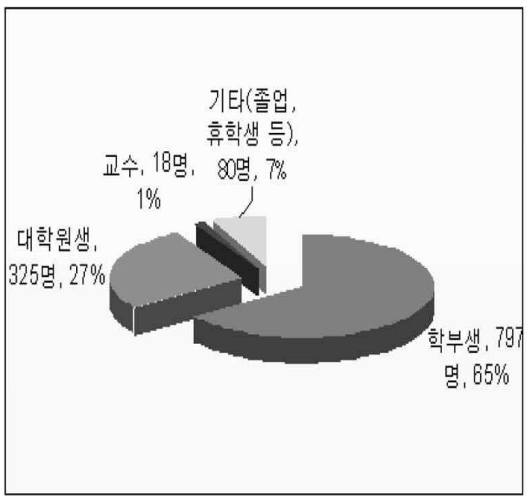
<그림 20> 성균관대 학술정보관 Library2.0 향후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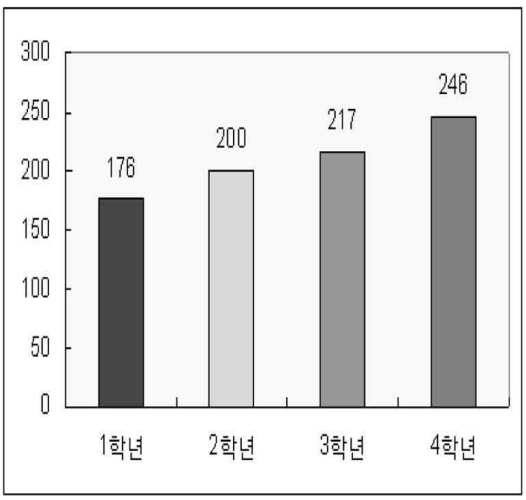
성균관대 학술정보관에서 새롭게 시도하고 있는 library 2.0 서비스는 새롭게 변화하는 정보 환경 속에서 보다 이용자 중심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들을 끊임없이 개발해 나감으로써 이용자들의 학습과 연구에 밀접하게 연계된 보다 품질 높은 다양한 콘텐츠들을 제공하여 Library 2.0의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매김하리라 생각한다.

부록 : 학술 UCC 관련 설문조사

1. 귀하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①학부생 ②대학원생 ③교수 ④기타(졸업, 휴학생 등)
▶ 전체 응답자 1,220명 중 학부 학생이 797명 / 65%로 가장 많이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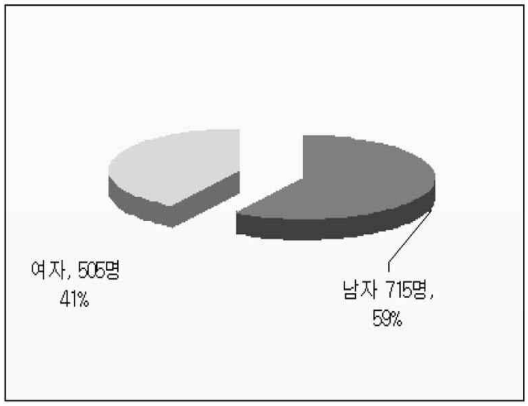
2. 학부생의 경우 학년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1학년 ②2학년 ③3학년 ④4학년
▶ 학년 순으로 응답비율이 높음. 1학년 < 2학년 < 3학년 < 4학년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 수와 비례하는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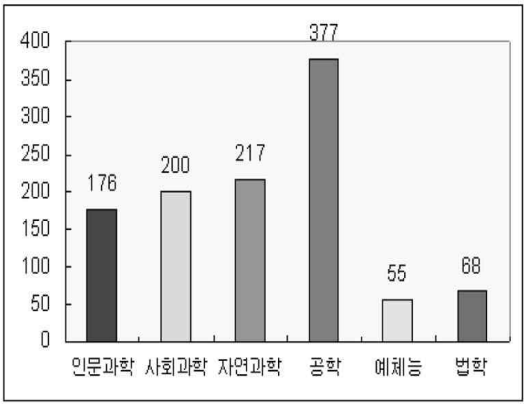




3. 귀학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남성 ②여성
▶ 전반적으로 남성의 비율이 높았으나 전체 구성원 비율(남성70 : 여성 30 비율 구성)로 봤을 때 여성의 참여율이 높아짐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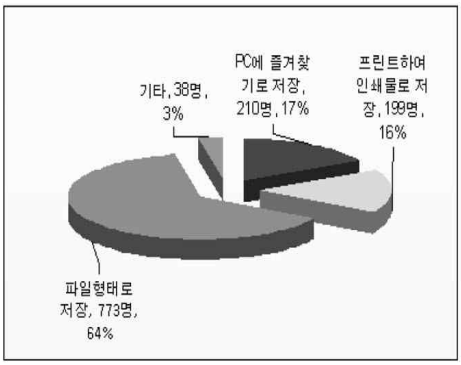
4. 귀하의 전공은 무엇입니까?
①인문과학 ②사회과학 ③자연과학 ④공학 ⑤예체능 ⑥법학
▶ 공학의 비율이 가장 높음. 예체능 < 법학 < 자연과학 < 사회과학 < 인문학 < 공학
학생 수와 관심도와 비례하는 것으로 보여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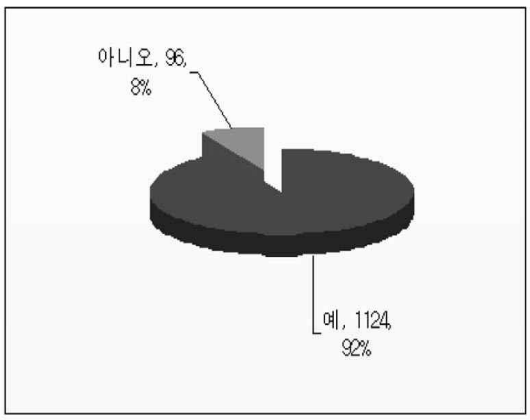
5. 귀하는 웹에서 찾은 전공관련 자료를 어떻게 보관하십니까?
① PC에 즐겨 찾기로 저장 ②프린트하여 인쇄물로 저장
③파일형태로 저장 ④기타방법( )
▶ 자료는 전체의 약 63%인 773명이 파일형태로 보관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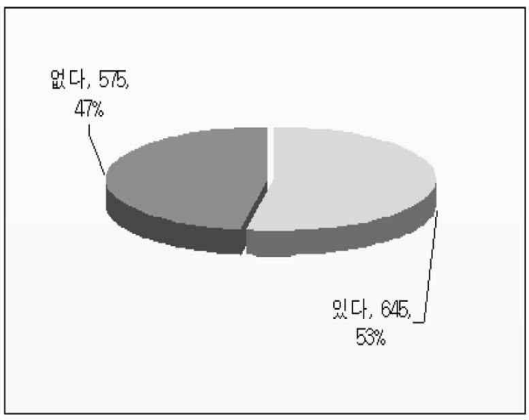
※ 기타 의견(38명)
- 다운 → 1
- 메모 → 4
- 보관 안함 → 12
- 개임 홈피, 카페 or 블로그에 저장 → 4
- 전부 다 → 10
- 그냥 자료의 위치를 기억해둔다 → 1
- 휴대용 저장매체(USB 등) → 3
- 메일에 첨부파일로 보관 → 2
- 뇌에 저장 → 1



6. 자료를 웹에서 작업하고 보관할 수 있다면 이용하시겠습니까?
①예 ②아니오
▶ 응답자 1,220명 중 1124명, 약 92%의 이용자들이 이용하겠다 라고 응답하여 필요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여짐

7. 브리태니커 백과사전과 같은 내용을 웹에서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는「온라인 백과사전」(일명, 위키피디아)를 사용해 본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없다
▶ 예상과는 달리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인 53%가 사용해 본 경험이 있다는 결과가 나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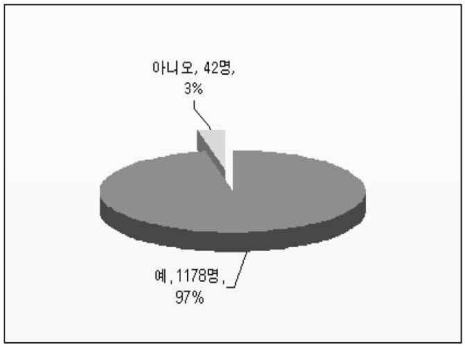




8. 학술정보관에서 온라인 백과사전과 같은「전공관련 백과사전 서비스」 를 제공한다면 사용하시겠습니까?
①예 ②아니오

▶ 응답자의 97%인 1,178명이 전공관련 서비스에 대한 사용의사를 보임.
물론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있으면 더 좋다라는 측면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서비스의 제공이 긍정적이고도 과거에 필요하다고 인식함에 공감하는 측면으로도 보여짐

※ 대학원생과의 미팅
많은 관심, 격려와 우려를 동시에 표명함
>장점 : 아주 좋은 시도이고 실제로도 필요한 서비스임
>우려 : 콘텐츠의 질적인 부분이 보장이 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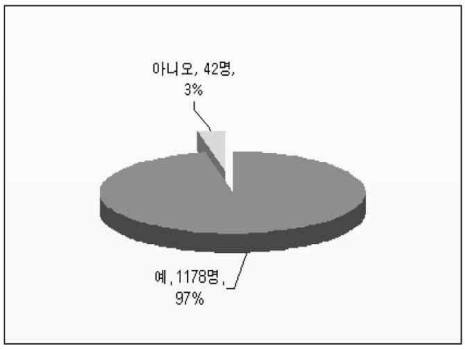


9. 8번 문항에서 "아니오"라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quality 가 신뢰가 안감 → 6
- 이용하기 어려울 듯 해서 → 1
- 개인pc에서도 이용 가능한 것이 더 좋을 듯 → 1
- 유용하게 사용할 것 같지 않음 → 1
- 필요 없을 듯 → 2
- 포털 사이트를 이용하면 된다 → 3
- 콘텐츠의 부족 다양한 유형의 파일 게시 불가 → 1
- 기타 → 3
- 귀찮아서 → 5
- 사용빈도가 적을 듯 해서 → 1
- 편리하다 → 2
- 포털 사이트를 이용하면 된다 → 3
- 불편할 듯 → 1
- 이용하지 않음 → 1
- 몰라서 →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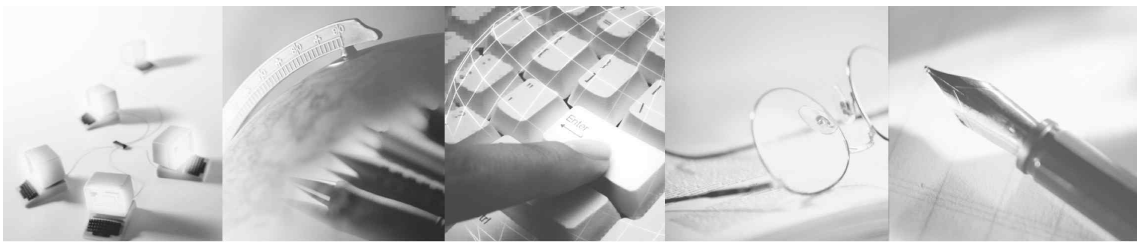
10. 「전공관련 백과사전 서비스」기능에 포함되었으면 하는 기능은 무엇입니까?
①전공학문의 일반적 개요(이론, 인물, 참고문헌 등)
②전공수업 관련 내용(커리큘럼, 주교재, FAQ 등)
③전공 관련 이슈 및 뉴스(최신뉴스, 동향, 행사 등)
④전공 관련 유용한 사이트 모음(Web DB, E-Journal, 정부기관 등)
⑤기타 ( )

▶ 전반적으로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고 기타의견으로 모든 항목이 포함되는 의견으로 나타남

※ 기타 의견(총 30명)
- 저장가능 → 1
- 기타 → 1
- 검색서비스를 다운로드 받을 수있는 기능 → 1
- 1~4번 모두 → 22명
- 모르겠음 → 2
- PC저장 → 1
- 얕은 내용이 아닌 심도있는 자료 → 1
- 전공관련 세부내용 → 1



비도서 자료 관리 보존 복제



기 관 명 KDI 국제정책대학원 정보자료실

제 출 자 오 태 호

현황 및 소개

KDI 국제정책대학원은, 한국 경제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시행하는 국내 최고의 경제전문기관인 KDI의 부설대학원 입니다. 본 대학원은 급변하는 세계화시대를 주도해 나갈 공공 및 민간 부문의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질 높은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KDI 국제정책대학원 정보자료실은 대학원 다산홀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모빌 트랙을 포함한 70여개의 서가와 86개의 열람석, 무선인터넷 및 멀티미디어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학교의 교과과정과 학술적이고 독립적인 연구에 대한 정보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수업 교과목 및 연구에 필요한 자료들을 중심으로 장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IFLA 72nd Annual Meeting 'Library Visit'에 참가하여 대학원의 대외 홍보활동과 더불어 사서의 자질을 함양하였으며, 투철한 서비스 정신으로 한국 최고의 사회과학 전문 도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일반 현황

No.	내용	현황	
1	예산	331,350,000(2007년)	
2	실수	열람실 + 로비	
3	직원 수	5명(3명 정규직, 2명 임시직)	
4	평균 이용자수	96명 / 1일(2007/6 기준)	
5	1년간 대출 현황	5,653권/1년(2006/8/1-2007/7/31)	
6	면적	180 平	
7	운영시간	학기	월-토: 09:00-22:00, 일: 12:00-22:00, 공휴일: 닫음 (단, 시험기간: 1시간 연장)
		방학	월-금: 09:00-18:00, 토・일・공휴일: 닫음
8	자료 소장 현황	도서자료: 43,215권	
		비도서자료: 2,694개	
		저널: 254종	
		온라인 데이터 베이스: 23종	

우수사례 개요

KDI 국제정책대학원 정보자료실에서는 비도서 자료의 관리 및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 고찰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비도서 자료는 보존 환경뿐만 아니라, 자료 이용으로 인한 물리적 스트레스로 인해 매체에 담겨있는 정보에 변형이 가해지게 되어 있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한 보유비도서 자료의 상태 변형 수준을 파악하고, 기존의 체계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고찰했다. 그리고 비도서 자료의 장기 보존 및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도서관에서 고려해야 하는 저작권상의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 어떻게 이를 해석할 것인지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도서관의 비도서 자료 보존 및 이용을 위한 새로운 체계를 도출하고, 이를 어떠한 방식으로 관리하는 지를 소개했다.

Ⅰ. 서론

과학기술의 발전은 정보의 급속한 증가와 정보를 다루는 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종이에만 의존하는 정보 환경에서 벗어나 테이프, 컴팩트 디스크, 마이크로 필름 등 다양한 매체에 정보를 담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하게 된 것이다. 도서관은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자료들을 소장하고 있고, 이를 이용자에게 제공해야할 의무를 갖고 있다.
하지만 도서관이란 모체 기관에 소속되어 그 영향 아래 있는 만큼(어느 도서관이든) 예산과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열람 및 보존 과정에서 비롯되는 자료의 지속적 손상은, 자료의 원상태를 유지하는 것 또한 매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복잡하게 변화하는 환경에서 산출되는 모든 자료를 소장, 유지,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KDI 국제정책대학원 도서관에서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디지털이라는 새로운 정보환경을 통해서 자료의 소장과 제공에서 오는 불가능을 극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비도서 자료의 보존 정책을 실시하였다.

Ⅱ. 자료 실태 조사 - 비디오 테이프를 대상으로 -

<그림 1> 비도서 자료 서가

비도서 자료의 훼손으로 인해 자료의 이용에 불편함이 있음을 호소하는 사례가 반복되었다. 항의는 오래된 비디오 자료를 중심으로 자주 발생하였다. 특히 영어로 모든 강의가

이루어지는 대학원의 특성 때문에 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비디오 자료는 학생들의 어학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구입되었다. 이러한 자료는 이용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에 따른 물리적 스트레스로 인해 손상되기 싶다.

따라서 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비디오테이프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비디오 자료 실태 조사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 졌다.

- 다 음 -

(1) 자료 조사는 근로 학생들(2명)을 통해 조사하였다. 자료 열람은 15분으로 하였다.

(2) 본 도서관 장서 통계를 통해서 파악된 비디오 테이프는 총 529개이다.

(3) 근로 학생들의 편차를 고려하여 자료 평가 기준은 Sound와 Picture의 두 부분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문제가 있는 경우, 문제가 되어 열람이 불가능하다 판단되는 경우, 문제 되는 항목의 체크 박스 □에 표시를 하도록 지시 했다. 그리고 이용이 불가능한 이유를 No Picture, Unstable Sound 등으로 기술토록 했다. 이는 <그림 2. 자료 평가 리스트>와 같다.

(4) 비디오 자료 실태 조사는 VIDEO 서가, Back Storage 서가에 있는 모든 비디오 테이프를 대상으로 하였다. 먼저 이용으로 인한 물리적 스트레스로 많은 손상이 예상되는 VIDEO 서가부터 실시하였고, 그 후 보존을 위한 Back Storage 서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Video Condition Check List **(Back Storage)**

Title	Barcode	Call Number	Condition	Remark
Effective lecturing	DVD 자료	LB 2393 .E361 1996	▦ Picture ▦ Sound	Unstable Picture Unstable Sound
The Art of discussion leading a class	DVD 자료	LB 2393.5 C.55 1995	▦ Picture □ Sound	Unstable Picture (Stops)
Race in the classroom	DVD 자료	LB 3727. R11 1993	▦ Picture □ Sound	Unstable Picture (Stops after few min.)
Structuring strategic business alliance	V246	HD 58.6 .S53 1998	▦ Picture ▦ Sound	Unstable Picture Unstable Sound
International trade	V78	HB 171 .E24 pt.27	▦ Picture □ Sound	Unstable Picture
Markets & prices	V53	HB 171 .E24 pt.2 c.2	▦ Picture □ Sound	Not related Picture
한복의 흐름	V511	DS 904 .한45 c.2	▦ Picture □ Sound	No Picture
			□ Picture	

<그림 2> 자료 평가 리스트

이 조사는 약 1달 반에 걸쳐 실시되었다. 그리고 비디오 자료 실태 조사 결과는 밑의 <표 1>과 같았다.

<표 1> 비디오 자료 실태 조사 결과 2007년 7월

상태	수량
No Picture	23
Unstable Picture	28
No Sound	0
Unstable Sound	8
Unstable Picture & Sound	5
계	64

조사 결과, 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총 529개의 비디오 자료 중에 이용에 불편함이 있는 자료는 64개로 (약 12%) 조사 되었다. 도서관 개관 이후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축적된 자료들 중에서, 10%가 넘는 자료가 손상된 것이다. 이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며 도서관의 장서 질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질도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했다.

위 결과와 같은 상황을 개선하고, 자료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료의 보존에 대한 확실한 지침이 필요했다. 본 도서관에서는 자료의 복제를 통해서, 열람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료의 손상을 극복할 것을 의논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저작권법에 대한 고려를 해야 했다.

Ⅲ. 저작권 법

도서관에서 비도서 자료 관리를 위해 복제에 앞서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작업은 저작권법에 대한 고찰이었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이러한 법적 테두리를 위반하지 않으면서 자료 보존을 할 수 있도록 복제 기준을 정해야 했다.

본 도서관에서는 가장 최근 개정된 것으로 알려진 “2006년 12월 28일 법제명변경 및 전면개정 법률 제8101호 저작권법”을 살펴보았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전략)…

제25조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①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②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 또는 구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은 그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공연·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

…(중략)…

제31조 (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①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과 도서·문서·기록 그 밖의 자료(이하 "도서등"이라 한다)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당해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도서관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도서관등에 보관된 도서등(제1호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도서관등이 복제·전송받은 도서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

1.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
2. 도서 등의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다른 도서관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도서등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중략)…

③ 도서관등은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이용자가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 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 등은 그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후략)…

저작권법 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에서, 판매용으로 발행된 자료는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제3항)를 제외하고 도서관에서는 자료의 자체 보존을 위하여 복제를 허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저작권법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에서,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의 복제 이용을 허용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하지만 제25조의 수업목적상 복제이용 허용을 도서관에서 확대 적용시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정보이용 사례에 따른 부가적인 해석이 존재하지 않아 제31조를 기준으로 비도서 자료 복제 기준을 설정했다. 이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⑴ KDI 국제정책대학원 도서관에서 보유한 비도서 자료 중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료를 대상으로 복제를 실시한다.

⑵ 복제한 비도서 자료는 공정 사용(Fair use : 저작권자의 소유자에게 부여된 배타적 독점권과 무관하게 저작원이 있는 저작물을 저작권의 소유자 이외의 자가 사용할 수 있는 특권)에 한(限)하며, 복제물을 개인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Ⅳ. 보존 가치 결정

도서관의 보존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도서관이 속해 있으며 예산 및 운영 등에 영향을 행사하는 모체 기관의 목적을 따라야 한다. 본 대학원에서 어떤 활동이 도서관 자료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려하여 보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먼저 조사 한 것은 이전까지의 “2003년 9월 비도서 자료 보존 방안”(이하 “2003년 9월 방안”)이었다. 이는 방안은『원(源)자료의 지적 내용을 보존하여 미래에도 사용가능하도록 비도서 자료를 다른 매체로 복제하거나 원형을 유지하기 위한 지침 마련』을 그 의의로 하고 있다. 2003년 수립 당시에는 종류별 보존 기한을 다음 <표 2>와 같이 설정하고 있었다. 표에서 살펴 볼 수 있듯, 당시 보존 방안에는 자료 보존을 위한 뚜렷한 우선순위가 없었다. 자료의 매체의 특성도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매체가 담고 있는 정보의 내용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있었다.

따라서 이번에 새롭게 수립하는 “비도서 자료 보존 방안”은 매체가 담고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매체가 갖고 있는 물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관리 할 수 있도록 내용을 개정하도록 하였다.

<표 2> 비도서 자료 보존 방안(안) 2003년 9월

종 류	보존기한
학술	영구
한국문화	영구
본교발간물	영구
참고자료	영구
통계자료	영구
영화	중장기
음악	중장기
어학	10년
컴퓨터S/W	5년

1. 내용적 특성을 고려한 보존 가치

무엇보다 “2003년 9월 방안”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종류를 구분하는 뚜렷한 지침이 없다는 것이었다. 자료의 종류를 『학술, 한국 문화, 본교 발간물, 참고 자료, 통계 자료, 영화, 음악, 어학, 컴퓨터 S/W』로 나누는 것은 개인마다 편차가 발생할 수 있어 업무의 통일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료의 종류를 본 도서관의 기준에 따라 수정하였다. 본 도서관은 대학원 학생들의 교육과 교직원들의 연구 활동을 전방위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므로 매체에 담겨져 있는 정보가 이러한 활동에 어느 정도 이용될 것인지 판단하여 (1) 교육 과정, 연구 과정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자료, (2) 교육 과정, 연구 과정에 직접 사용되지 않더라도 이용 수요가 많아 쉽게 손상될 가능성이 있는 자료(예를 들어 어학 및 Computer 전산 관련 교재 등) 그리고 마지막으로 (3) 교육 과정과 연구 과정과 무관한 자료(예를 들어 영화, 음악 등), 세 단계로 나누고 등급을 매겼다. 이렇게 대학원의 활동에 맞춘 비도서 자료의 평가 기준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내용적 특성에 따른 보존 가치

등급	평가기준
보존가치 1등급	교육 과정, 연구 과정에 직접 사용될 자료.
보존가치 2등급	교육 과정, 연구 과정에 직접 사용되지 않더라도 이용 수요가 많아 쉽게 손상될 가능성이 있는 자료.
보존가치 3등급	교육 과정, 연구 과정과 관련이 없는 자료

2. 물리적 상태를 고려한 보존 가치

“2003년 9월 방안”은 자료의 물리적 특성을 『매체 별 예상 수명』과 『원자료 형태에 따른 복제 선호 매체』,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하고 있었다. 이는 각각 다음 <표 4>, <표 5>와 같다.

<표 4> 매체 별 예상 수명

자료형태	수 명
Video Tape	수십년
CD-ROM	반영구
DVD	반영구
Cassette Tape	수십년
Microform	수백년
Digital File	반영구

<표 5> 원자료 형태에 따른 복제 선호 매체

원자료 형태	선호 매체
Video Tape	DVD>CD-ROM>Video
CD-ROM	DVD>CD-ROM or IDMS Server Upload
DVD	DVD
Cassette Tape	Cassette Tape
Microform	Microform
Digital File	CD-ROM>Digital File Backup

이 당시 매체 별 예상 수명은 4년이 지난 현재에 그대로 적용하기에 무리가 따른다. 예를 들어 Video Tape의 경우, 자료는 비도서 자료의 이용에 따라 가해진 과도한 물리적, 화학적 스트레스에 따라 수십 년이 아니라 한두 달 단기간에도 손쉽게 손상된다. 뿐만 아니라 Label이 말라서 떨어져나가 테이프가 무슨 내용인지 알려주는 정보도 쉽게 손실될 수 있다. CD-ROM 역시 열에 약하여 손상될 우려가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복제된 CD의 수명은 기껏해야 2~5년 정도로, 데이터가 기록된 재질이 시간이 흐르면서 열화 되어 판독이 어려워진다.

이러한 어려움을 고려하여 모든 물리적 매체에 적용 할 수 있도록 보존 가치를 재설계해야 했다. 본 도서관과 같은 소규모의 도서관의 경우 각각의 매체 특성을 고려하여 기준을 세우는 것 보다는, 모든 매체를 이용에 초점을 두는 것이 현명하다 사료되어 다음 세 가지 준으로 나누었다. : (1) 훼손된 부위가 전연 없어 이용에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경우, (2) 훼손된 부위가 있으나 기록 내용의 판독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3) 직접, 간접적인 훼손 등으로 기록 내용의 판독에 영향을 주는 경우. 이렇게 이용에 초점을 맞춰 수립한 매체의 보존 가치는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물리적 상태에 따른 보존 가치

등급	평가기준
보존상태 1등급	훼손된 부위가 전연 없는 자료
보존상태 2등급	기록내용의 판독 등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훼손된 부위가 있는 자료
보존상태 3등급	직, 간접적인 훼손 등으로 기록내용의 판독 등에 영향을 주는 자료

Ⅴ. 보존 방식

1. 매체 전환 장비 도입

"2003년 9월 방안"에 따르면, 자료의 복제는『화질 체크 결과 훼손된 자료 + 복제가 되어 있지 않은 자료』를 대상으로 실시되도록 기술되어 있었다. 이 기준에 따라 선정된 자료는『업체에 외주를 주거나, 자체 복제』한다고 언급되어 있다. 이 복제 기준은 매우 모호하고, 어떤 기준인지 파악할 수 없었다. 복제 과정은 외부에 복제를 발주하는 방식으로 시간과 돈이 많이 낭비되는 형태였다. 자체 복제의 경우도 CD-ROM 자료에 한정되어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매체 전환 장비의 도입이었다. 매체 전환 장비의 도입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훼손 가능성이 높은 자료를 백업하여 영구 보존한다.
(2) 외주 업체를 배제하고 자체 제작 관리함으로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한다.
(3) 보존 포맷을 일관되게 통일하여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함으로써, 보관 장소를 축소할 수 있다.

그리고 복제된 자료의 저장은 하드디스크드라이브(HDD)를 이용하도록 했다. 앞서 언급했듯, 광디스크의 물리적 수명에는 한계가 있으며, 디스크의 양이 증가 할 수 록 저장과 검색에 비용은 더욱 증가한다. 더 나아가 광디스크를 읽을 수 있는 장비와 소프트웨어의 퇴화는 장기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신뢰성 및 안정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격이 저렴하며 저장과 검색이 비교적 쉽고, 뿐만 아니라 Mirroring을 통해 데이터의 손실을 예방하고 적절한 시기에 백업이 가능하며, 손실을 예방할 수 있는 하드디스크드라이브가 장기 보존에 가장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림 3> 매체 전환 장비

2. 포맷에 대한 고찰

본 도서관은 비도서 자료의 종류를 데이터자료, 음원자료, 동영상 자료의 3가지로 구분하였다. 각각에 따른 보존 포맷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보존 포맷을 결정했다.

가. 데이터 자료 보존 포맷 설정

데이터 자료의 경우 대부분 CD-ROM 매체로 된 자료가 많았다. 이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원본과 동일한 형태로 보존 및 복제가 가능해야 했다. 따라서 자료를 그대로 복제할 수 있는 "Clone"이라는 프로그램의 데이터 포맷인 『img』로 보관하기로 결정하였다.

나. 음원 자료 보존 포맷 설정

<표 7> 음원 자료 보존 포맷 조사 결과

	WAV	MP3	RA
정의	- MS와 IBM이 만든 사운드 포맷. 녹음기로 녹음하듯 아날로그 오디오를 녹음하여 디지털화 한 것이다	- MPEG-1 Layer 3의 줄임말로 MP3는 고품질, 고능률 스테레오 부호화가 가능한 압축 포맷.	- 압축률을 우선시하는 포맷으로 Real Network에서 발표한 음향 압축 스트리밍 파일이다.
특징	- **소리 자체를 디지털화해서 압축 없이 저장하는 것으로 소리의 손실이 없으며, 다양한 포맷으로 변환이 가능하다.** - **압축을 하지 않는 형태이기 때문에 용량이 매우 크다.**	- **적절한 전송률을 선택하여 저용량, 고음질을 실현할 수 있다.** - **복제 방지에 대한 규제 장치가 없으므로 저적권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크다.** - CD 포맷이 44.100Khz, 16bits, 스테레오 채널을 따르기 때문에 MP3도 CD 수준의 음질을 얻기 위해서는 128Kbit/s, 44Khz, 스테레오 채널로 압축해야 한다.	- **고 압축률보다는 고 음질을 선호하는 사용자들의 기호 변화에 따라 사양길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다.**

『RA』의 경우 『MP3』보다 더 강한 압축단계를 거친 전송이 간단한 소용량 보존 포맷이다. 하지만 어학 및 학습에 사용하는 음원자료의 경우 음질이 서비스 만족에 중요한 요소이며, 전송이 간편한 소용량 보존 포맷으로 압축하는 경우, 복제된 파일이 유출되었을 때 저작권법을 고려한 정보 이용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현실적으로 『MP3』의 이용률이 높고 이 포맷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이 보급되어 있다는 점에서, 보존 포맷으로 적합하다고 할 수 있었다. 하지만 『MP3」 역시 용량을 줄이기 위해 음원을 압축한다는 점에서 원본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복제 파일의 유출 문제를 고려하였을 때 『RA』와 큰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원본과 동일한 퀄리티로 보존할 수 있는 『Wav』 포맷으로 보관할 것을 결정하였다.

다. 동영상자료 저장을 위한 보존 포맷 설정

<표 8> 동영상 자료 보존 포맷 조사 결과

	AVI	MPEG	WMV
정의	- 윈도우 운영체제에서 기본으로 지원하는 동영상 파일 포맷.	- 동화상 전문가 그룹 MPEG에서 만든 동영상 압축 포맷.	-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실시간 비디오와 오디오를 전송하기 위해 만든 동영상 포맷.
특 징	- **동영상 멀티미디어 파일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된다.** - **화질이 뛰어나지만** 용량이 크기 때문에 실시간 서비스에 적합하지 못하다.	- MPEG1, MPEG2, MPEG3, MPEG4 등 **쓰임에 따라 다양한 압축 방식이 존재 한다.**	- 파일 전체를 다운 받지 않아도 웹에서 바로 바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실시간 재생 목적을 위한 포맷으로 압축이 높아 화질이 떨어진다.**

『MPEG』의 경우 쓰임에 따라서 MPEG 1, 2, 3 등으로 다양하게 나뉘기 때문에 보편적인 보존 포맷이 아니라, 이용에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다. 『WMV』의 경우 실시간 재생을 위한 포맷이라 압축률이 높고 자연스레 화질은 떨어진다. 따라서 수업 지원과 학습을 위해서는 가장 보편적이며 화질이 뛰어난 『AVI』 포맷을 사용하기로 결정 하였다.

Ⅵ. 통합 보존 관리 기준

내용적 특성과 물리적 특성을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이 수립되었으면, 이 두 가지를 종합하여 도서관에서 관리하는 모든 비도서 자료를 관리 할 수 있도록 보존 우선순위가 결정되어야 했다.

자료의 손상으로 인한 멸실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먼저 자료의 라이프 사이클에서 발생하는 각각의 단계를 (1) 자료 획득, (2) 자료 복제, (3) 이용 및 보존 그리고 (4) 폐기로 나누어 보았다.

(1) 자료 획득 : '자료 획득' 단계에서는 서점이나 도서 거래 업체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입수된 자료들을, 먼저 <표 3>을 통해서 보존 가치를 파악한다. 그 다음 <표 4>를 통해서 물리적 상태에 따른 보존 상태를 파악한다.

(2) 자료 복제 : '자료 복제' 단계에서는 보존 가치와 보존 상태에 따라 보존 등급을 설정하게 된다. 등급은 각각 병행보존, 원본보존, 대체보존, 폐기로 나누어진다.

(3) 이용 및 보존 : '이용 및 보존' 단계에서는 이용자에게 어떤 형태의 자료를 열람하도록 조치할 것인지를 설정한다. 원본자료는 본 도서관의 "Preservation Section" 서가에 보존하고, 복제한 자료는 이용자를 위한 서가에 배치한다. 자료의 이용은 원본과 동일한 사본으로 이루어지며, 원본은 보존서가에 두어 자료에 대한 접근을 제한한다.

(4) 폐기 : '폐기' 단계는 자료의 보존 가치와 보존 상태가 매우 낮은 등급의 자료들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실시한다.

이러한 단계를 종합하면 <표 9>와 같다.

<표 9> 종합 보존 기준

구분기준	등급	자료 복제	이용 및 보존
보존가치 1, 2등급 보존상태 1, 2등급	병행보존	· Hard Disk에 복제함	· 원본은 보존, 사본을 서비스 함.
보존가치 3등급 보존상태 1, 2등급	원본보존	· Hard Disk에 복제 하지 않음	· 원본으로 보존 및 서비스
보존가치 1, 2등급 보존상태 3등급	대체보존	· 원본 훼손으로 인해 이용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대체 자료 구입, 대체 자료를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 타 도서관을 통해서 구할 수 있도록 조치함. · 자료 획득 후 Hard Disk에 복제함.	· 원본은 보존, 사본을 서비스 함.
보존가치 3등급 보존상태 3등급	폐기	· Hard Disk에 복제 하지 않음	· 폐기 처리함.

<표 9>의 실재 활용은 <그림 4>의 “KDI School Library : Digitizing List”에 기록하여 처리한다.

먼저 자료를 획득하면 title과 도서관의 소장등록번호를 기입한 후, 물리적 상태를 기술한다. 다음 자료 관리 담당자와 도서관 책임자와 상의를 통해서 보존가치와 보존상태를 결정한 뒤 그에 따른 보존기준등급을 기재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존 기준 등급에 따른 조치를 한다. 병행보존, 원본보존, 대체보존의 경우 복제하여 하드디스크드라이브에 저장처리 한다. 이때 저장자료의 폴더 명을 소장등록번호로 하고 저장된 하드디스크드라이브의 이름을 기술하여, 관리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였다.

KDI School Library : Digitizing List

Title (Barcode)	물리적 상태	보존가치평가	보존상태평가	보존기준등급	Digitizing 여부	복제 여부
Applied multiple regression/ correlation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C2293)	CD suppl.	1등급	1등급	병행보존	완료, I:DATA	완료 C2296
Financial risk manager handbook(C2299)	CD suppl.	1등급	1등급	병행보존	완료, I:DATA	완료 C2300
경제통계연보 2007(C2255)	CD suppl.	1등급	1등급	병행보존	완료, I:DATA	완료 C2301
외국의 통상환경, 2006(C2320)	CD-ROM	1등급	1등급	병행보존	완료, I:DATA	
Implan Pro Version 2.0 (C2321)	CD-ROM	1등급	1등급	병행보존	완료, I:DATA	
World investment report, 2007(C2323)	CD suppl.	1등급	1등급	병행보존	완료, I:DATA	

<그림 4> 보존 관리 리스트

Ⅶ. 맺음말

앞서 살펴본 과정에서 알 수 있듯, 디지털이라는 새로운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2003년 9월 방안”을 개선할 수 있었다. 디지털 복제에 앞서 먼저 저작권법을 고려하여 법적인 정보의 유통체계에 위배되지 않도록 배려했고, 도서관에서 이용되는 자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리 방안을 설정했다. 무엇보다 디지털 장비를 사용하여 자료의 복제, 보존 및 이용을 보다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는 점이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복제 보존 정책이 완벽한 것은 아니며 본 도서관에는 다음 몇 가지의 문제가 남아있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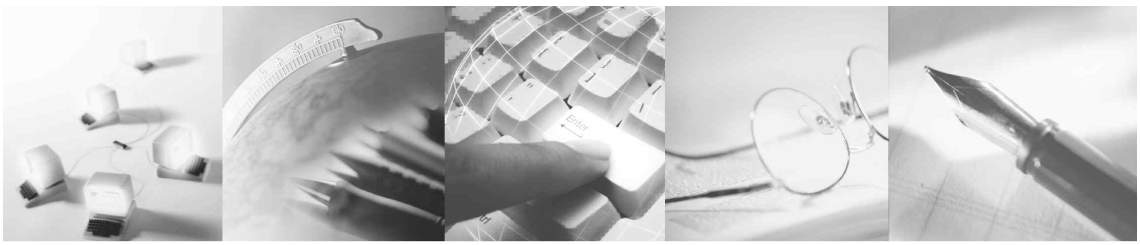
첫째, Hard Disk에 복제된 자료를 도서관 자동화 시스템과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Hard Disk 안에 복제 되어있는 자료를 실물 자료와 같이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동등하게 관리하느냐 여부에 따라 사서의 업무량이 가중될 수도 있다.

둘째, 자료 복제로 인해 이용자에게 서비스가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직접적으로 측정하기 어렵다. 복제 자료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나, 복제 된 자료가 원본과 동일한 기능을 하는지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도서관은 서비스가 최우선인 기관인 만큼 복제로 인한 서비스 개선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디지털 보존에는 완벽한 길은 없으며, 정보환경에 맞추어 여러 가지의 다양한 보존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본 도서관에서 수립한 복제 전략이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존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했다는 점은, 검토해 볼만 하다고 생각한다.

강의 환경 변화를 선도하는 대학도서관 서비스 방향 모색

– 충남대학교도서관 강의지원서비스 운영 사례 –



기 관 명 충남대학교 도서관

제 출 자 이 근 희

현황 및 소개

우리 도서관은 1953년 문리과대학 도서관으로 개관된 이래 현재 연면적 24,332㎡에 4,300여석의 열람석을 갖추고 교수 및 학생들의 학문연구와 학습활동을 지원하는 학문의 요람이 되어 왔다.

○ 도서관 조직 및 인원

도서관장(1)								분관장(3)			계
수서정리과(1)				자료운영과(1)				농학 도서관	의학 도서관	법학 도서관	
행정 지원팀	수서팀	정리팀	전산 홍보팀	대출팀	학술 정보팀	주제 자료팀	디지털 정보팀				
4명	4명	7명	1명	4명	3명	6명	4명	1명	2명	2명	45명

○ 장서현황

구분	단행본			고서	비도서 자료	연속간행물(종)		원문정보		
	국내서	국외서	학위 논문			국내	국외	학위 논문	고서	대학 간행물
책(개)수	783,130	315,954	166,093	44,851	13,281	2,284	1,016	21,088	2,335	16,189
합계	1,265,177			44,851	13,281	3,300		39,685		

○ 수상경력

- 2005년 한국도서관협회 주최 제37회 한국도서관상 수상, 국가지식생성 및 유통체계 우수기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상 수상
- 2006년 역사정보화사업, 상호대차부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한국교육학술정보원상 수상
- 2007년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학술정보 공유·유통사업 기여도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대학도서관으로 선정되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상 수상

우수사례 개요

충남대학교 도서관은 2003년도 봄학기부터 학습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여 강의 환경 변화를 선도하는 대학도서관 서비스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강의지원서비스를 도입하였고, 지난 5년동안의 사례를 분석·평가함으로써 대학도서관 정보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그동안의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강의지원 신청교수와의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로 강의지원서비스를 활성화함은 물론 강의 및 학습에 필요한 학술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자료이용의 극대화를 가져왔다.

둘째, 강의관련 자료의 우선 구입·정리로 신속한 제공에 따른 학문연구와 학습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셋째, 강의지원서비스를 통한 혁신적인 학술정보서비스 강화에 따른 도서관 이미지 개선 효과를 가져왔다.

넷째, 주제전문정보 강의지원을 통해 학술정보서비스의 질적인 향상과 학문연구증진에 기여하였다.

다섯째, 강의지원시스템 구축 표준화로 국내 대학도서관들에 보급하여 강의수준 향상을 위한 체제를 마련하고자 한다. 충남대학교 도서관의 강의지원서비스가 국내 대학도서관들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초 록

최근 새로운 교육방식인 원격교육이 도서관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대학도서관도 대학 내의 연구활동과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조직화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강의지원서비스는 교수들에 대한 강의지원을 통하여 학생들의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도입된 도서관의 수준높은 정보서비스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2003년부터 진행되어 지금까지 시행 되어온 충남대학교 도서관의 강의지원서비스 사례를 분석·평가함으로써 대학도서관 정보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Ⅰ. 서 론

최근 대학도서관은 전통적 도서관에서 디지털도서관으로 빠르게 변모하며 많은 정보자원들을 수집, 가공, 처리하여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학술정보의 디지털화와 인터넷의 확산은 도서관 이용자들의 학술정보 이용패턴을 전통적인 방식과 크게 다르게 변화시켜 왔다. 이에 충남대학교 강의지원서비스팀 사서들은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도서관 서비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즉 사서들은 도서관의 핵심자원인 학술정보와 인적자원인 도서관 사서, 그리고 이용자와 그 이용자들이 행하는 학술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학술정보의 활용성을 높이고 도서관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서비스 지원 방안을 생각하게 되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강의지원서비스를 도입하게 되었다. 강의지원서비스는 사서가 교과과정에 필요한 문헌정보를 수집, 정리하여 교수 및 학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학내구성원의 활발한 도서관 이용을 유도할 수 있고, 정보서비스에 대한 홍보 효과도 크다고 하겠다. 구체적으로 강의지원서비스는 인터넷과 정보기술의 활용으로 강의와 연구를 매개로 하여 이용자와 학술정보를 연결시킴으로써 도서관 소장 자료 및 인터넷 정보를 포함한 디지털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시킬 수 있게 된다. 그 효과면을 살펴본다면, 대학 내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던 강의·연구 정보 및 관련 학술정보를 축적하여 대학 구성원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에서 생산되는 지식정보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대학의 학문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된다.

충남대학교 도서관은 2003년도 봄학기부터 학습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여 강의 환경 변화를 선도하는 대학도서관 서비스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강의지원서비스를 도입하였다. 본고에서는 지난 5년동안 충남대학교 도서관의 사례를 분석·평가함으로써 대학도서관 정보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Ⅱ. 강의지원서비스의 필요성 및 개념

1. 강의지원 서비스의 필요성

가. 학술정보 이용 패턴의 변화

학술정보의 디지털화와 인터넷의 확산은 도서관 이용자들의 학술정보 이용패턴을 전통적인 방식과 크게 다르게 변화시켜 왔다.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도서관에서는 서비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도서관은 양방향 통신 수단인 인터넷을 활용하여 도서관의 핵심자원인 학술정보와 인적자원인 도서관 사서, 그리고 이용자와 그 이용자들이 행하는 학술활동 간의 인터페이스를 사이버 상에 구축함으로써 학술정보의 활용성을 높이고 도서관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게 되었다.

나. 강의 및 연구에 필요한 정보 요구의 증가

지식정보 사회로의 이행이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과거에 비해 강의와 연구에 필요한 정보량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또한 도서 및 학술지와 같은 기존의 책자형 자료 뿐만 아니라 전자저널, 멀티미디어 자료, 웹 문서 등과 같은 디지털 형태의 자료도 함께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대학도서관은 대학의 가장 중요한 학술 활동인 강의·연구 활동 자체를 도서관 서비스의 대상으로 삼아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가공하고 조직하여 교수 및 학생들에게 적시에 제공할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인터넷 정보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사이버 교육 지원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체제를 구축해야 하고, 강의·연구 정보 및 관련 학술정보의 공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1)]

이러한 변화 속에서 도서관은 전통적인 서비스에서 탈피하여 대학 내 학술 및 연구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도전적인 서비스를 개발하여, 지식 정보의 부가가치를 높여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이바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하겠다.

2. 개념과 도입배경

강의지원서비스는 도서관에서 대학의 교과과정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전혀 새로운 개념의 정보서비스라기보다는 특정 교과목에 대한 기존의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이러한 강의지원서비스와 유사한 용어로는 강의연구지원서비스, 정보지원서비스, 강의연구지원정보시스템, 교과목지원서비스, 교과과정지원서비스, Curriculum -

1) 이종창. 2001. 『**연세대학교 통합형 디지털도서관의 강의/연구지원 정보시스템(PLATON)구축 사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대학도서관 정보서비스 우수사례 공모 자료. 4.

Integrated Instruction, Course-Integrated Instruction, Liaison 등과 같은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2)]

강의지원서비스는 이용자가 특정 주제에 대해 학습하거나 연구하고자 할 때 그 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도서관 서비스의 가장 발전된 형태인 주제전문서비스의 구체적인 방법이다. 이 서비스에 제공되는 자료의 범위는 교재와 참고문헌을 포함한 인쇄자료, 원문을 포함한 전자책, 전자저널 등의 디지털자료, 멀티미디어자료, 웹DB 등이며 해당 교과목과 관련된 다양한 인터넷 정보도 포함된다.[3)]

충남대학교 도서관에서는 강의지원서비스를 "사서가 교과과정에 따라 필요한 문헌 정보를 수집, 정리하여 교수 및 학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정의하였다. 충남대학교의 학부와 대학원에서 개설되는 교과과정을 대상으로 강의와 학습지원서비스를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고자 한다 ① 교수와 연계하여 강의에 필요한 문헌 정보(주요교재, 참고문헌, 추천학술정보, 인터넷정보, 과제물 참고 정보 등)를 직접적이고 개별적으로 지원하고, ② 교과과정_및 과제물에 관한 주제전문서비스를 통해 이용자(학부/대학원생)의 학습과정을 지원하여 도서관의 인지도를 높이고, ③ 적극적인 도서관 서비스를 확대하여 보다 활발한 도서관 이용을 유도하며, ④ 담당 사서의 주제 전문 지식을 갖출 수 있는 계기를 마련 등이다.[4)]

Ⅲ. 국내·외 강의지원서비스 현황

1. 국내 현황

국내에서 강의지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대학도서관들이 몇 군데 있는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연세대학교 도서관[5)]은 2001년부터 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학술정보를 기반으로 대학 내에서 진행되는 강의와 연구에 필요한 학술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교수의 강의・연구 및 학생의 학습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도록 캠퍼스 지식경영의 관점에서 설계된 PLATON(Pioneer Library for Academic acTivities On Network)을 도입하였다.

PLATON은 처음부터 강의・연구 활동의 지원을 목적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강의・연구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강의・연구가 진행 중일 때는 해당 수강생/연구자만이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교내 이용자들은 매학기 강의 및 연구과제가 마감

2) 이은종, 민지은, 이주현. 2004. 충남대학교 도서관 강의지원서비스 운영사례. 『**대전・충청지역대학도서관협의회지**』. 7: 69.
3) 김경민. 2006. 교과목 관련 강의지원서비스 개발에 관한 연구. 『**사대도협회지**』. 7: 92.
4) 이은종, 민지은, 이주현. 상게논문. p.70
5) http://library.yonsei.ac.kr/dlsearch/Theme/Yonsei/main.asp

된 이후에 담당교수/연구자의 공개 여부 의사에 따라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통합검색시스템에서 관련 학술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한다. 2006년 방문을 통해 조사한 결과, 약 200여개 교과목에 대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기대했던 만큼의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전주대학교 도서관에서는 2002년 10월부터 교수 학술연구정보지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3년 1월부터 대학원생 논문정보지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서비스 안내는 도서관 홈페이지, 전주대 신문, 핸디오피스(교내 행정전산망)를 통해 이루어지고, 서비스 내용은 자료목록 제공서비스, 문헌복사서비스, 원문제공서비스, 정보검색 안내서비스 등이다.[6)]

그 밖에 경희대학교 도서관이 대학 내의 모든 교과목에 대한 강의계획서 상에 자료를 조사해서 안내해주는 수준이고, 최근에 한양대학교 도서관이 학교차원의 강의지원시스템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계명대는 교수를 대상으로 “강의교과목 참고문헌 조사서비스”를 대학원을 대상으로 “논문주제조사서비스”를, 숙명여대는 석・박사과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제조사서비스”를, 배재대, 숭실대 등 몇몇 대학도서관에서 비슷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7)]

최근에는 성균관대학교 도서관에서 주제전문사서의 역할을 강조하여, “주제별 담당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서울대학교 도서관도 2006년 2월부터 “학과전담서비스“를 시작하며, 적극적인 강의와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2. 국외 현황

국외 대학도서관에서는 교수와 사서가 함께 도서관 교육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사서가 강의를 지원하는 것은 더 이상 새로운 분야가 아니다. 이미 각 도서관 사서들을 그들의 주제분야의 배경지식에 따라 하나 이상의 주제 학술분야의 전담 사서로서 자료를 선정하고 강의 및 연구에 필요한 정보요구를 수렴하고 이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하는데 이르는 전 영영에서 활동하고 있다.

미국 Georgia State University[8)] 도서관에서는 'Research Guides"서비스를 통해 대학의 강의 및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Liaison & Research Services Department'라는 별도의 부서가 마련되어있으며 각 전문 주제 분야별로 담당 사서가 도서관 이용교육과 새로운 정보원의 이용 지도를 진행하고 있다.

강의연구지원 사서는 특정 학문 분야의 웹기반 강의연구지원 프로젝트를 안내하는데 이 과정에서 일반적인 참고 정보원, 데이터베이스, 인터넷 정보원을 제공하고 있다.

---

6) 고성순. 2003. 전주대학교 도서관 강의・연구 지원 정보서비스 운영 사례. 『**사대도협회지**』. 5: 85-96.
7) 고성순. 전게논문, p.86.
8) http://www.library.gsu.edu/

‘Research Guides'는 학문을 주제 분야별로 세분한 후 자료 형태별로 Books, Databases, Journals, Internet Resources로 구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각 학문 분야별 주제전문 사서가 각 분야의 학술정보를 제공하며 How do I와 Ask a Librarian항목을 통해 주제전문 사서의 개별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Texas A&M 대학도서관[9]은 1997년부터 ‘강의연구지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 대학에서는 도서관 수서에서 강의지원을 포함한 이용에 이르기까지 교수와 사서가 함께 하고 있다. 사서가 교수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수의 요구에 따른 도서 및 연속간행물 구입, 도서관에서 이용 가능한 서비스의 업데이트, 도서관 정책 변경 및 공지사항에 대한 안내, 학생의 요구와 강의를 지원하기 위한 전략 컨설팅, 도서관에 의해 선정되는 새로운 도서에 대한 안내, 도서관 정보원에 대한 세미나, 개별적인 이용교육, 교수의 연구 및 강의에서 학생에 대한 이용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다.[10]

그 밖에도 Boston College는 ‘Faculity Research Support'라는 명칭으로, Brandies University는 'Research Guides'라는 명칭으로 연구지원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Clark University는 ’Course Pages', Illinois State University는 ‘Electronic Reserve Program & Course Web Page'로, Northwestern University는 ’Course Materials and Reserve'라는 명칭으로 수업지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11]

Ⅳ. 충남대학교 도서관 사례

1. 강의지원서비스 현황

가. 서비스 소개 및 현황

충남대학교 도서관 강의지원서비스는 2003학년도 제1학기부터 시범적으로 인문과학분야를 중심으로 실시되었으며, 주제별 팀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기 시작했다. 지원 교과목의 선정은 사서가 수강인원이 80명 이상의 교양과목을 중심으로 선정하였으며, 비공식적인 경로로 강의계획서를 확보하고 담당 교수진들과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진행하였다. 강의지원 신청 교과목 수는 2003학년도와 대비하여 2006학년도에는 11배, 2007학년도에는 20배로 증가하였다.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하여 2006학년도 제1학기부터는 강의지원 전담팀을 8명으로 구성하여 적극적인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그동안 진행된 학년도별 지원 교과목 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1 참조).

9) http://www.lib.utexas.edu/services/faculty/
10) 이은종, 민지은, 이주현. 전게논문. p.72.
11) 고성순. 전게논문. p.86.

<표 1> 강의지원 교과목 수

학년도 / 학기	2003	2004	2005	2006	2007
제1학기 지원과목수	5	16	19	71	126
제2학기 지원과목수	10	19	41	94	174
계 (%)	15 (100%)	35 (230%)	60 (400%)	165 (1100%)	300 (2000%)

강의지원 신청 접수는 해당 학기의 기말고사 전에 학교 및 도서관 홈페이지, e-mail 등을 통해 안내문을 공지한 후 진행하고 있다(부록 1 참조).

나. 서비스 내용

강의지원서비스의 내용을 연도별로 정리하였으며(표 2 참조), 각 학년도별로 강의지원서비스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년도별 강의지원서비스 내용

<table>
<tr><th>서비스 내용 / 학년도</th><th>게시판</th><th>강의교재제공을 위한 참고봉사서비스</th><th>이용자교육</th><th>상호대차/원문복사서비스</th><th>강의자료 디지털화</th><th>지정도서제도</th><th>담당자</th></tr>
<tr><td>2003</td><td>-온라인질의 응답코너,
-e-mail
-전화
-직접면담</td><td rowspan="4">-주교재 및 참고자료 소장사항 안내
-주교재 및 참고자료 미소장자료 구입신청
-과제물 작성에 필요한 다양한 참고자료 안내 및 소장정보 원문제공</td><td rowspan="3">미시행</td><td rowspan="3">미시행</td><td>미시행</td><td>미시행</td><td rowspan="2">학문분야별 담당</td></tr>
<tr><td>2004</td><td>웹을 통한 강의지원 게시판 구축 및 서비스 시작</td><td rowspan="3">- 강의관련 자료 디지털화 제공 (요청시)</td><td>전교과목대상 시행</td></tr>
<tr><td>2005</td><td>강의지원게시판 : 교과목별</td><td>미시행</td><td>1인 전담체제</td></tr>
<tr><td>2006</td><td>강의지원게시판 : 대학별</td><td>교과목연계 필수 시행</td><td>무료 제공 시작</td><td>1학기 전교과목
2학기 요청시 시행</td><td>강의지원서비스 전담팀 구성</td></tr>
<tr><td>2007</td><td>강의지원게시판 개편 및 기능 확대</td><td>위의 서비스 외에 목차정보 서비스 제공 시작</td><td>강의지원 학술정보활용 교육</td><td>무료제공</td><td>요청시 시행</td><td>강의지원서비스 전담팀</td></tr>
</table>

2003학년도에는 주로 강의계획서를 바탕으로 주요교재와 참고문헌이 많은 과목을 임의로 지정하여 실시하였고, 가장 많이 지원한 서비스는 계획서에 있는 자료의 서지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며, 그 외 과제물의 참고문헌을 도서관 홈페이지 '질의응답'코너에 올리고 관련 질의에 대한 참고 서비스를 실시하였다. 이용지도의 경우, 학생의 전공 분야가 다양하고 학부생임을 감안하여 기초적인 단계의 이용지도에 주력하였다. 그 내용은 주로 도서관 홈페이지 및 검색시스템, 국회도서관 자료 검색법을 위주로 실시하였으며, 전문학술정보에 대해 소개하고 현재 도서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용교육 프로그램을 안내하였다. 이 시기에는 시범 단계로서 인지도가 낮고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교수와 개별적인 연락을 통해 서비스를 인식시키고, 그들의 강의 중 소개를 통해 홍보활동을 대신하였다.[12)]

2004학년도 강의지원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은 도서관 홈페이지 내 강의지원 관련 웹사이트를 구축하였고,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신청 접수를 일괄적으로 받았다는 점이다. 또한 교수들의 단행본 및 비도서자료 등 다양한 정보원 구입 요구가 이루어졌으며, 참고 정보서비스 역시 단순히 서지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에서 주제별로 각종 콘텐츠 및 인터넷 정보 제공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2005학년도에는 신청교과목 수가 저조하여 학문분야별로 담당하여 지원하는 체제에서 1인 전담체제로 변경 운영되었는데, 시행하면서 심도있는 서비스의 지원이 어렵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강의지원서비스에 대해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다.

따라서 2006학년도부터는 좀 더 강화된 강의지원서비스를 위해 학문분야별 담당자를 지정하였고, 분야별 담당자는 팀장을 포함하여 총 8명으로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고전적, 농학, 의학 등으로 구분하여 지원하였으며, 게시판 생성 및 지원을 위한 전산담당으로 구성하여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는 강의지원서비스를 정착시키고,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신청교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결과를 분석 및 평가하여 다음 학기 서비스에 반영하도록 하였다(부록 3 참조). 또한 게시판에 올리는 강의자료에 대한 '강의지원저작물이용허락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부록 2 참조). 또한 강의지원 신청 교수님들과 사서들 간의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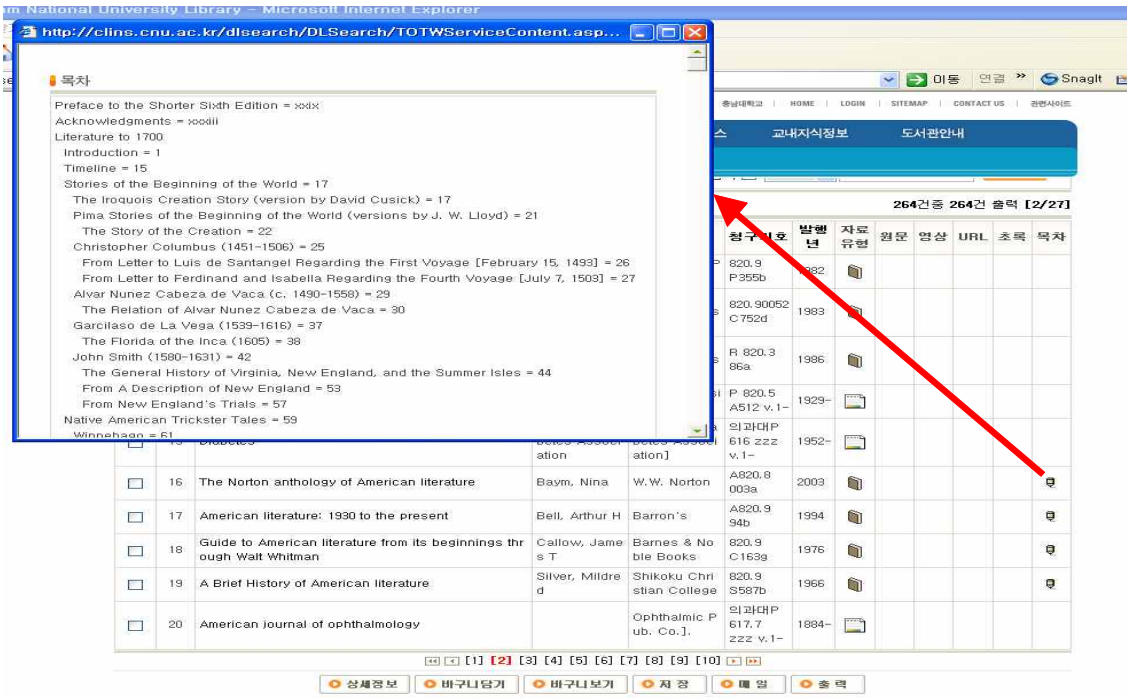
그리고 지정도서제도의 활용여부를 물어 신청한 교과목에 한해서 강의계획서 상에 주요교재와 참고문헌 중 각 1권씩을 지정하여 한 학기 동안 열람 또는 복사만 가능하도록 하여 수강생들이 언제든지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왔다.

한편 수강생을 위한 교육자료로 학술정보검색법을 작성하여 게시판에 올려 숙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아울러 도서관이용자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교과목의 수업시간을 할애 받아 도서관 홈페이지 활용 및 학술정보검색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강의교재가 품절이나 절판 등으로 입수할 수 없거나, 추가로 강의에 필요한 자료

12) 이은종, 민지은, 이주현. 전게논문. p.74.

(단행본, 학술지논문, 학위논문 등)가 있을 경우, 국내·외 도서관의 상호대차/원문복사서비스를 통해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2007학년도는 2006년도에 계획한 서비스를 계속 진행함과 동시에 서비스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그것은 강의계획서 상에 주교재 및 참고문헌의 목차를 입력하여 이용자들이 검색 후에 서명이나, 목차아이콘을 클릭하면 책에 있는 그대로의 목차를 보여줌으로써 이용자들의 효율적인 자료이용을 돕고 있다(그림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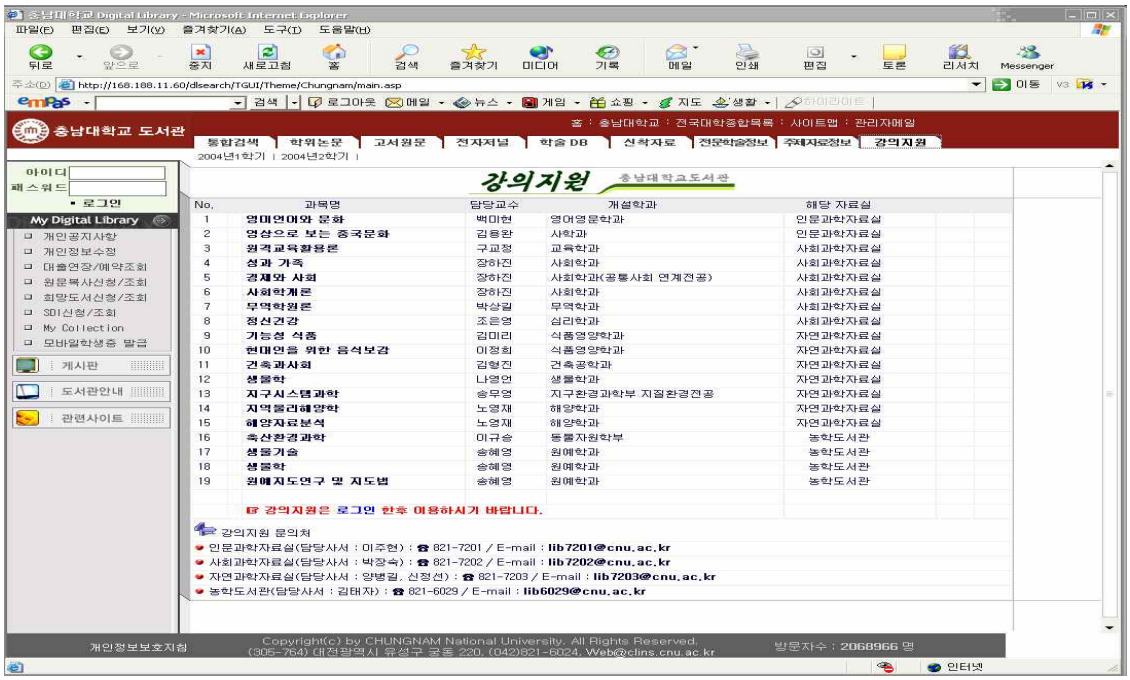
<그림 1> 주교재 및 참고문헌의 목차정보

다. 강의지원 게시판[13)]

강의지원게시판은 초기에는 도서관홈페이지의 '온라인질의응답코너', e-mail, 전화, 직접면담 등을 통해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나, 2004학년도부터는 서비스관련 웹사이트 및 교과목별게시판을 개설하여 해당교과목과 관련된 참고문헌 및 공지사항, 안내물 등을 게시하였다. 이러한 체제는 2006학년도까지 지속되었다.

2007학년도부터는 게시판을 효율적인 강의지원 체제로의 대폭 개편으로 강의지원서비스에 대한 이용안내, 공지사항, 교과목별 게시판, 지정도서, 이용자교육자료 등의 메뉴로 구성하였으며, 교과목별 게시판은 대학별 아래에 대학원과 학부과목으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그림 2~4 참조).

13)http://168.188.11.25/lecture/board.php?board=kkkmain&command=skin_insert&exe=insert_iboard1_home



<그림 2> 2004학년도 강의지원 게시판

<|그림 3> 2007학년도 강의지원 게시판

<그림 4> 강의지원 교과목 상세화면

라. 그 밖의 활동

2006학년도부터 한층 업그레이드된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매 학기마다 강의지원서비스를 신청한 교수님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서비스에 대한 안내와 협조사항 등을 설명하고, 교과목 담당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원활한 지원을 유도해 내는 장을 마련하고 있다.

<그림 5> 신청교수와의 간담회

2. 서비스 분석 및 평가

가. 서비스 지원 현황 및 결과

<표 3> 강의지원서비스 지원 현황

서비스 내용 / 학년도	신청 과목수	소장 자료	구입 신청	구입 완료	품절/ 절판	게시판 이용	지정 도서	상호 대차	학술정보교육	목차 정보
2003	15 (100%)	216	58	58	0	0	0	0	0	0
2004	35 (230%)	309	129	128	1	276 (100%)	115	0	0	0
2005	60 (400%)	384	209	167	14	518 (240%)	0	0	0	0
2006	165 (1100%)	799	490	417	73	2,335 (850%)	590	73	39	0
2007~	300 (2000%)	1,230	537	423	70	4,199 (1500%)	156	111	45	1,230
합 계	**575**	**2,938**	**1,423**	**1,193**	**158**	**7,328**	**861**	**184**	**84**	**1,230**

강의지원서비스 학년도별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위의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2003년도를 기준으로 년도를 거듭할수록 신청교과목 수가 2007년에는 2000%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게시판이용 건수는 게시물의 업로드 수를 나타낸 것으로 2004학년도 대비 2007학년도가 1500% 가까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2007학년도 제2학기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앞으로 더 활발하게 이용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겠다. 현재 지정도서제도는 교과목별로 신청한 경우에만 시행하고 있으며, 몇몇 교과목을 제외하고는 활발한 이용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06학년도부터 접목시킨 학술정보활용교육과 상호대차/원문복사서비스의 제공은 품절이나 절판된 자료뿐만 아니라 학술지논문, 학위논문 등의 강의에 필요한 자료를 무료로 제공해줌으로써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아울러 2007학년도에 단행본 목차정보서비스 제공의 시작으로 이용자들의 원활한 자료이용을 도모하고 있다고 하겠다.

<표 4> 학술정보활용교육 현황

학년도	교육대상		교육장소		교육시간	
	대학원생	학부생	도서관	방문	주간	야간
2006	95	1,434	23	16	37	2
2007	145	953	30	15	42	3
소계	240	2,387	53	31	79	5
총계	**2,627명**		**84회**			

학술정보활용교육은 2006학년도부터 강의지원서비스에 접목하여 실시하게 되었으며, 교육 현황은 <표 4>와 같다. 교육은 우선적으로 교과목별로 접수받아 실시하였고, 2007학년도 제1학기에는 교과목별 교육일정과 병행하여 도서관에서 교육일정표를 계획하여 수강생들이 개별적으로 수업시간이외에 수강하도록 하였다. 교육시간은 75분 또는 90분 정도 이루어지며, 교육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 교육내용

1) 도서관 홈페이지 활용법
2) 도서관 소장자료 검색법
3) 학술정보(학술지논문, 학위논문, 단행본 등) 검색 및 원문 활용법
4) 상호대차/원문복사서비스 활용법

☞ 교육방법 : 홍보동영상, PPT 및 Web 프리젠테이션

나. 설문조사 내용 및 결과

강의지원서비스의 활성화와 만족도를 기하기 위해 2006학년도 제1학기와 제2학기 신청교수 총9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중 81명이 응답하여 87%의 회수율을 보여주었다. 만족도는 매우만족 12명(19%), 만족 36명(57%), 보통 15명(24%)로 나타나, 만족하거나 매우 만족하다는 비율이 76%로 조사되었다. 필요도 조사에서는 이전에 강의지원을 이용해보신 적이 있는 경우에 응답한 것으로 63명(100%) 전원이 앞으로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거나, 주변 교수님들께 추천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강의지원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체제구축과 활성화를 위하여 2007학년도제1학기 신청교수 총6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부록 3 참조). 그 중 39명이 응답하여 58%의 회수율을 보여주었으며, 만족도에서는 19명인 49%가 매우만족 20명인 51%가 만족으로 응답하여 응답교수 전원이 매우만족하거나 만족하고 있었다.

2006학년도와 2007학년도 만족도 비교는 76%에서 100%로 만족도의 차이를 보여준다. 이것은 충남대학교 강의지원서비스가 5년에 걸쳐 시행된 후 신청교수들은 모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나 매우 성공적인 서비스를 수행하였다고 생각된다.

강의지원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필요도와 만족도에 대한 응답은 다음과 다. 강의지원서비스에 대한 필요도는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 다소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매우 필요하거나 필요하다고 응답한 서비스의 내용 중 그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즉 게시판 제공, 강의관련 학술정보 제공, 지정도서제도, 강의계획서 자료 제공, 상호대차/원문복사서비스 제공, 학술정보활용교육, 목차정보제공, 강의자료 디지털화 제공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

<표 5> 강의지원서비스 필요도

구분	게시판 제공	강의계획서자료 제공	강의자료 디지털화 제공	상호대차/원문복사 제공	강의관련 학술정보 제공	학술정보 교육	지정도서 제도	목차정보 제공
매우필요	23(59%)	21(54%)	9(23%)	23(59%)	21(54%)	12(31%)	21(54%)	10(26%)
필요	13(33%)	12(31%)	17(44%)	10(26%)	14(36%)	18(46%)	13(33%)	16(41%)
보통	2(5%)	5(12%)	8(21%)	5(12%)	3(7%)	8(21%)	3(7%)	10(26%)
불필요	1(3%)	1(3%)	5(12%)	1(3%)	1(3%)	1(3%)	2(6%)	3(7%)
계	39(100%)	39(100%)	39(100%)	39(100%)	39(100%)	39(100%)	39(100%)	39(100%)

3. 고려사항

지금까지 진행해온 강의지원서비스의 내용 및 현황을 분석하고 평가한 결과를 통해 도출된 몇 가지 도출된 고려사항들에 대해 살펴보겠다.

가. 강의지원서비스의 홍보 및 이해도

2003학년도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교수들의 강의지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부족했다. 따라서 학교 및 도서관 홈페이지와 e-mail 등을 통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나. 게시판 기능 및 활용

도서관 홈페이지에 신청 교과목별 강의지원 게시판을 제공하고 있다. 물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운영하고 있는 교과목이 있는가 하면, 전혀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효과적인 서비스를 지원할 수 없게 된다.

또한 현 시스템상에서는 게시판을 활용하고 있는 이용자들의 다양한 기능의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강의지원서비스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앞으로 활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보완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강의관련 결과물들이 새로운 학술자원으로 인식되면서 도서관서비스의 중요한 대상으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지식정보들을 효율적으로 가공하고 조직하여 교수 및 학생들에게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다. 예산관련

강의지원서비스를 지원하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필요한 자료를 구애받지 않고 제공해 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게시판에 대한 다양한 기능의 개발비용 및 각종 행사를 원활하게 준비하여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겠다.

강의교재가 품절이나 절판 등으로 구입이 어려운 경우 국내나 해외의 도서관에서 상호대차서비스를 통해 제공하게 되는데, 국내에 없을 경우 해외로 신청하여 제공받아야 한다. 이러한 경우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article 하나를 전자형태로 구입하는데 드는 비용이 1건에 $95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주어진 예산범위를 초과한 경우이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 없었던 것이 아쉬웠다.

라. 자료의 구입 및 지원

강의수단에는 적합한 자료이나 도서비로 구입하여 등록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는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아동문학이나 게임CD 등을 신청했을 경우, 대학도서관 수준에 맞지 않는 자료라고해서 제공해 줄 수 없다고 한다면, 원활하고 효과적인 강의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그 밖에 교수와 담당사서 간 긴밀한 접촉이 어렵고, 관련 부서와의 유기적인 연계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원활한 강의지원서비스에 어려움이 있다.

Ⅴ. 강의지원서비스의 활성화 방안

1. 강의지원서비스의 홍보

강의지원서비스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활성화를 위한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즉 학교 및 도서관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e-mail을 통한 안내와 설명회, 간담회 및 평가회 등을 개최하여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2. 강의지원게시판 기능의 다양화

현재 우리 도서관 강의지원서비스 게시판은 단순한 기능으로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이용자들의 요구는 구체적이고 다양하다. 신청교수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수강생들에게만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download가 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의 지원과 폴더를 만들어 디렉토리로 관리하는 등의 기능을 요구하고 있다. 2007학년도 이전에는 용량 때문에 불편함을 초래한 적도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능을 지원할 수 있고, 또한 용량에 구애받지 않는 새로운 기능의 웹페이지를 구축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정보통신원의 사이버강의와 교수학습지원센터, 도서관의 강의지원서비스가 학교차원에서 일원화될 수 있는 방안도 장기적으로는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3. 관련예산의 충분한 확보 및 합리적인 집행

문제점에서도 언급했듯이 강의에 필요한 자료이나 대학도서관의 수준에 맞지 않는 자료를 신청했을 경우, 현 제도상에서는 제공해 줄 수가 없어 효과적인 강의가 되지 못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의수단 위주의 자료는 학교운영비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적정한 예산을 배정하여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하겠다.

또한 강의지원 게시판의 다양한 기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교수와의 설명회 및 간담회 등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충분한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활발한 강의지원 서비스가 가능하리라고 본다.

4. 강의자료의 학술정보화

강의저작물은 신청교수가 강의지원저작물이용허락서에 동의한 경우 우리 도서관 교내 지식정보에 강의저작물 코너를 마련하여 복사나 편집이 불가능한 pdf file로 변환하고, 강의제목, 저자, 교과목명, 작성년월일 등을 입력하여 DB를 구축하고, 강의가 끝난 후에 본교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지식정보와 사회로의 이행이 진행되면서 강의활동과 관련된 정보량이 점점 증가하게 되었고, 그동안 중요하게 여기지 않거나 사장되었던 강의관련 결과물들이 새로운 학술자원으로 인식되면서 도서관서비스의 중요한 대상으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지식정보들을 효율적으로 가공하고 조직하여 교수 및 학생들에게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또한 학술정보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그 범주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도서관에서 모든 자료를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도서관은 강의활동으로 발생한 부가적인 지식인 강의자원을 체계적으로 분류, 조직, 저장하여 필요한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학술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14]는 연구에서도 지적되었듯이 강의지원서비스를 통해 작성된 강의자료는 우리 학교 이용자들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훌륭한 정보원이라고 하겠다.

5. 교수 및 관련부서와의 협조체제 구축

2006학년도 제2학기부터는 신청교과목에 대하여 교수와 수강생들에게 필수적으로 도서관 이용자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그들이 효율적으로 도서관의 각종 자료 및 학술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도서관에 대한 전반적인 인지도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교수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좀 더 발전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또한 웹페이지 강화를 위한 전산홍보팀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강의자료의 신

14) 홍용표. 2002. 강의자원의 학술적 가치와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사대도협회지**』**.** 3: 194-195.

속한 구입과 정리를 위해 수서팀, 정리팀과도 긴밀한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보다 향상된 서비스가 가능해지리라 본다.

6. 사서의 끊임없는 자기계발

교수들의 강의지원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깊이 있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기를 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주제에 대한 전문과정교육과 학내 관련 학문에 대한 수강 등 자기계발과 주제전문서비스 제공을 위한 끊임없는 연구와 계발활동이 필요하다

또한 담당사서는 수강생을 위한 전공분야별 학술정보에 대한 검색방법 및 교육자료를 작성하여 안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Ⅵ. 연구성과 및 제언

디지털시대라는 21세기는 원격교육이라는 새로운 학습 환경의 변화를 가져왔고, 도서관서비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필요로 하게 했다.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 대학도서관은 지난 5년간 교수들을 대상으로 강의지원서비스를 진행해왔다. 본 연구는 그동안 진행된 강의지원서비스 내용을 분석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였으며, 논의되어야 할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보았다.

충남대학교 도서관은 대학의 강의 환경 변화를 선도하는 대학도서관서비스의 방향 모색에 대한 계속적인 관심과 개선을 통하여 강의지원서비스를 발전시켜 왔다.

그동안의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강의지원 신청교수와의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로 강의지원서비스를 활성화함은 물론 강의 및 학습에 필요한 학술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자료이용의 극대화를 가져왔다. 특히 교수들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지대한 개선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

둘째, 강의관련 자료의 우선 구입·정리로 신속한 제공에 따른 학문연구와 학습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셋째, 강의지원서비스를 통한 혁신적인 학술정보서비스 강화에 따른 도서관 이미지 개선 효과를 가져왔다. 서비스를 받은 교수들이 도서관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있었다.

넷째, 주제전문정보 강의지원을 통해 학술정보서비스의 질적인 향상과 학문연구증진에 기여하였다.

다섯째, 강의지원시스템 구축 표준화로 국내 대학도서관들에 보급하여 강의수준 향상을

위한 체제를 마련하고자 한다.

본 사례 연구에서 2007학년도 1학기에 신청한 강의지원 교수들이 100% 만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리고 제공되는 8가지의 서비스에 대해서도 67%에서 92%의 교수들이 필요한 서비스로 인식했다. 이러한 서비스의 내용에 대한 필요도는 새롭게 강의지원서비스를 시작하려는 도서관들에게 좋은 지침자료가 될 것이다.

향후에는 강의지원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학교차원의 협력체제가 필요하고, 나아가서는 강의뿐만 아니라 연구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아울러 충남대학교 도서관의 강의지원서비스가 국내 대학도서관들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참고문헌

고성순. 2003. 전주대학교 도서관 강의・연구지원 정보서비스 운영사례.『**사대도협회지**』5: 85-96.

김경민. 2006. 교과목 관련 강의지원서비스 개발에 관한 연구.『**사대도협회지**』7: 86-109.

김지혜. 2006.『**사용자 경험수준별 웹사이트 사용품질에 관한 연구 : 대학의 웹보조 강의 지원 사이트를 대상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유희경. 2006.『**대학도서관 지식관리시스템의 성공적인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강의/연구지원 정보시스템 도입사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이은종, 민지은, 이주현. 2004. 충남대학교 도서관 강의지원서비스 운영사례.『**대전・충청지역대학도서관협의회회지**』. 7: 67-84

이종창. 2001.『**연세대학교 통합형 디지털도서관의 강의/연구지원 정보시스템 (PLATON) 구축 사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대학도서관 정보서비스 우수사례 공모 자료.

충남대학교 도서관. 2003.『**강의지원 서비스 운영 현황 및 개선 방안**』. 대전 : 충남대학교 도서관.

충남대학교 도서관. 2004.『**2003학년도 제2학기 강의지원 결과 보고서**』. 대전 : 충남대학교 도서관.

충남대학교 도서관. 2004.『**2004학년도 제1학기 강의지원 결과 보고서**』. 대전 : 충남대학교 도서관.

충남대학교 도서관. 2005.『**2004학년도 제2학기 강의지원 결과 보고서**』. 대전 : 충남대학교 도서관.

충남대학교 도서관. 2005.『**2005학년도 제1학기 강의지원 결과 보고서**』. 대전 : 충남대학

교 도서관.

충남대학교 도서관. 2006.『**2005학년도 제2학기 강의지원 결과 보고서**』. 대전 : 충남대학교 도서관.

충남대학교 도서관. 2006.『**2006학년도 강의지원서비스 결과보고서**』 대전 : 충남대학교 도서관.

충남대학교 도서관. 2007.『**2007학년도 제1학기 강의지원서비스 결과보고서**』 대전 : 충남대학교 도서관.

홍용표. 2002. 강의자원의 학술적 가치와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사대도협회지**』**.** 3: 183-196.

Glynn, Tom, Wu, Connie. 2003. "New roles and opportunities for academic library : a survey and recommendations," ***Reference Services Review,*** 31(2): 122-128.

Ryans, Cynthia C., Suresh, Raghini S., Zhang, Wei-Ping. "Assessing an academic library liaison programme," ***Library Review***, 44(1), 14-23.

Suresh, Raghini S., Ryans, Cynthia C., Zhang, Wei-Ping. 1995. "The library-faculty connection : Starting a liaison programme in an academic setting," ***Library Review,*** 44(1):7-13.

http://library.yonsei.ac.kr/dlsearch/Theme/Yonsei/main.asp

http://www.library.gsu.edu/

http://www.lib.utexas.edu/services/faculty/

http://168.188.11.25/lecture/board.php?board=kkkmain&command=skin_insert&exe=insert_iboard1_home

http://library.snu.ac.kr/StaticView.jsp?page=LiasionPreview

[부록 1]

2007학년도 제2학기 강의지원 신청안내

우리 도서관에서는 학생들의 학습효과를 높이고 교수님의 강의를 도와드리기 위해 2007학년도 제2학기 강의지원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07년 6월 11일(월) ~ 6월 15일(금)

2. 신청대상 : 2007학년도 제2학기 교과목 개설 교수 및 강사

3. 신청방법

○ 도서관홈페이지(http://clins.cnu.ac.kr) "강의지원" 메뉴 내에서 신청

4. 강의지원 교과목 선정 및 통보

○ 접수 마감 후 신청교수의 e-mail로 통보

5. 강의지원 서비스 내용

○ 도서관 홈페이지 내에 강의지원 웹 페이지로 해당 교과목별 **게시판 제공**

○ **참고봉사서비스**(Reference Service)

- 주교재 및 참고자료 소장사항 안내
- 주교재 및 참고자료 미소장자료 구입(멀티미디어 자료 포함)
- 과제물의 작성에 필요한 다양한 참고자료(웹사이트, DB, 전자저널 등)의 안내와 소장정보 원문 제공
- 강의관련 자료 디지털화 제공 : 저작권 범위 내(요청 시)
- 주교재 및 참고자료의 목차정보 제공

○ **수강생의 효과적인 학습지원을 위한 강의지원학술정보활용 교육 실시**

○ **상호대차/원문복사서비스 무료 제공(비소장 단행본, article 등)**

○ **지정도서제도 실시(요청 시)**

6. 기타 문의사항

○ e-mail : lib7201@cnu.ac.kr ☎ 042)821-7201

2007. 6. 4.

충남대학교 도서관장

[부록 2]

강의지원 저작물 이용 허락 동의서

강의지원 게시판에 올리는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하시면, 학내 이용자가 강의지원 게시판을 통해 귀하의 저작물을 언제 어디서나 저작권료의 부담없이 허락해 주신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본인 저작물을 복제·전송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 제28조에서 정하고 있는 관련 권리의 이용을 아래와 같이 허락합니다.

1. 저작물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편집상 혹은 포맷상의 변경을 통한 복제 및 DB구축

2. 학술연구 목적의 서비스를 위해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 공개하여 저작물 일부 또는 전부의 전송, 배포 및 복제

소 속 :

연락처 : ☎ H.P : e-mail :

200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충남대학교 도서관장 귀하

[부록 3]

강의지원서비스 만족도 및 활성화에 대한 설문조사

강의지원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체제마련과 활성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시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의 의견은 앞으로 강의지원서비스의 나아갈 방향과 도서관 발전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입니다.

1~10. 아래 항목은 강의지원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도서관 서비스의 이해와 활용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1. **강의지원서비스 웹사이트의 교과목별 게시판**: 교수, 수강생, 담당사서간의 학술정보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도록 교과목별로 제공되는 게시판 ( )
   ① 이용해 보았다. ☞ 3번으로 ② 이용해 보지 않았다. ☞ 2번으로

2.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사이버 강의실을 이용하므로　　②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③ 이런 서비스가 있는지 몰라서　　④ 이용이 불편해서
   ⑤ 기타: _____

3. **강의관련 자료의 디지털화 서비스:** 인쇄물 강의관련 자료를 디지털자료로 변환시켜 게시판에 등록, 수강생들이 온라인으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 )
   ① 이용해 보았다. ☞ 5번으로　　② 이용해 보지 않았다. ☞ 4번으로

4.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② 이런 서비스가 있는지 몰라서
   ③ 이용이 불편해서　　④ 기타: _____

5. **상호대차/원문복사서비스**: 우리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지 않은 자료를 국내·외의 다른 도서관에 대출 및 복사를 의뢰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 )
   ① 이용해 보았다. ☞ 7번으로　　② 이용해 보지 않았다. ☞ 6번으로

6.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② 이런 서비스가 있는지 몰라서
③ 이용이 불편해서 ④ 기타: _____

7. **도서관이용 및 학술정보활용교육**: 도서관에서 이용자의 효율적인 학술정보검색 및 자료이용을 돕기 위하여 도서관 홈페이지 활용법, 소장자료 검색 방법, 학술 데이터베이스 활용 방법 등의 교육을 실시하는 것 ( )
① 이용해 보았다. ☞ 9번으로 ② 이용해 보지 않았다. ☞ 8번으로

8.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② 이런 서비스가 있는지 몰라서
③ 이용이 불편해서 ④ 기타: _____

9. **지정도서제도**: 강의계획서 상에 주요교재와 참고문헌을 조사한 후 우리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 중 각 1권씩을 별도로 관리운영하면서 대출은 제한하고 관내에서의 열람 및 복사를 통해 이용하는 제도 ( )
① 이용해 보았다. ☞ 11번으로 ② 이용해 보지 않았다. ☞ 10번으로

10.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② 이런 서비스가 있는지 몰라서
③ 이용이 불편해서 ④ 기타: _____

11~21. 다음은 강의지원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필요정도와 만족도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항목에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강의지원 교과목별 게시판 제공 ( )
① 매우 필요하다. ② 필요하다. ③ 보통 ④ 필요하지 않다. ⑤ 잘 모르겠다.

12. 강의계획서에 제시한 모든 자료 제공 ( )
① 매우 필요하다. ② 필요하다. ③ 보통 ④ 필요하지 않다. ⑤ 잘 모르겠다.

13. 강의관련 자료의 디지털화 제공 ( )
① 매우 필요하다. ② 필요하다. ③ 보통 ④ 필요하지 않다. ⑤ 잘 모르겠다.

14. 상호대차/원문복사서비스의 제공 ( )
① 매우 필요하다. ② 필요하다. ③ 보통 ④ 필요하지 않다. ⑤ 잘 모르겠다.

15. 강의 주제와 관련한 학술정보(단행본, article, 웹자원 등) 제공 ( )
① 매우 필요하다. ② 필요하다. ③ 보통 ④ 필요하지 않다. ⑤ 잘 모르겠다.

16. 도서관 이용 및 학술정보활용교육 제공 ( )
① 매우 필요하다. ② 필요하다. ③ 보통 ④ 필요하지 않다. ⑤ 잘 모르겠다.

17. 지정도서제도 제공 ( )
① 매우 필요하다. ② 필요하다. ③ 보통 ④ 필요하지 않다. ⑤ 잘 모르겠다.

18. 강의교재의 목차 정보 제공 ( )
① 매우 필요하다. ② 필요하다. ③ 보통 ④ 필요하지 않다. ⑤ 잘 모르겠다.

19. 강의지원서비스를 이용해 보신 후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
① 매우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불만족

20. 위에 제시된 항목 외에 강의 준비와 운영을 위해 필요한 도서관 서비스가 있다면 적어 주십시오.

_____

_____

21. 기타 도서관 강의지원 서비스에 대한 생각이나 의견이 있다면 자유롭게 적어 주십시오.

_____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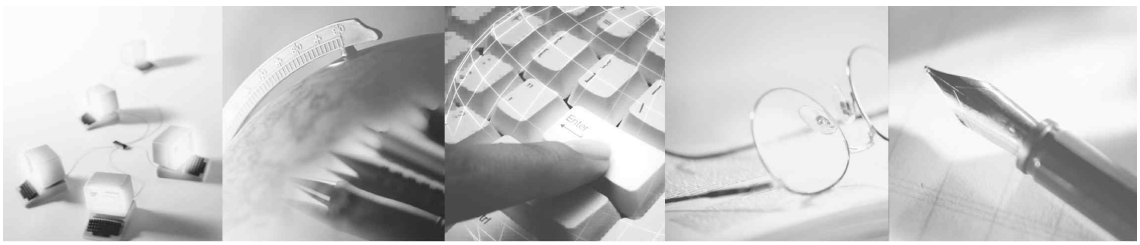
22~23. 아래 항목은 응답자의 개인적 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22. 귀하가 소속한 학과는 무엇입니까? _____대학 _____과

23. 귀하의 직위는 무엇입니까? ( )
① 교수 ② 시간강사

※ 귀중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공공도서관을 통한 ‘인문학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1)]



기 관 명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

제 출 자 김 정 규

1) 이 글은 도서관문화 10월호에 기고한「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 인문학 강좌를 통해 본 공공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전략(이우정)」을 기초로 재구성하였다.

현황 및 소개

동대문구 홍릉공원 자락에 위치한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은 지하 3층, 지상 3층, 연면적 3,094.02㎡으로 건축되었으며, 지난 2006년 6월 29일에 개관하여 책읽는사회문화재단이 동대문구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이다. 지하층은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는 공간'으로 시청각실, 세미나실, 식당 등이 자리해 있으며, 지상층은 '사람과 자료가 소통하는 공간'으로 지혜의 보물섬(어린이도서관), 종합자료관이 자리하고 있다.

도서관은 '소통(Communication)'이란 큰 틀 아래 지역사회의 '사색과 성찰의 공간', '배려와 나눔이 숨 쉬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열람실 중심에서 벗어난 <자료중심의 도서관>, 신간을 일주일 안에 구비하는 <원-위크 시스템(one-week system)>, 단행본・잡지・DVD・디지털자료・인터넷 등을 한 자리에서 이용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도서관>, 자연체험학습장과 아름다운 테라스를 갖춘 <자연친화적인 도서관>, 어린이들을 배려한 <어린이 전용공간>, 도서관 친구들・자원활동가 등의 지역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도서관>, 백화점 문화센터・구민회관 등과 차별화 된 <새롭고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역의 문화사랑방, 문화중심지로서 우리 마을의 자부심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 조감도

우수사례 개요

우리 사회의 문화, 교육적 욕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져 감에 따라 공공도서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문화 프로그램의 중요성 역시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많은 공공도서관은 시험공부, 취업공부로 대표되는 도서관의 이미지를 벗고, 각종 문화강좌와 행사를 실시함으로써 새로운 모습으로 시민들에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도서관에서 진행하는 문화 프로그램은 여전히 기존의 백화점, 미술관, 주민자치센터 등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며, 도서관다운 프로그램을 개발해 내지 못하고 있다. 이는 예산, 인력, 시설 등 여러 문제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으나, 무엇보다 문화 프로그램의 새로운 길을 열어 내지 못한 도서관인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공공도서관의 문화 프로그램의 한계를 극복하고 가장 도서관다우면서 가장 훌륭한 독서 프로그램의 모습을 찾기 위해 노력한 결과로 맺어진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의 '인문학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다.

인문학은 인간의 '사색과 성찰'의 기본 토대를 다져주는 학문이다. 이러한 '사색과 성찰'의 기반을 가장 잘 지원해 줄 수 있는 공간이 '도서관'임을 '인문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며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인문학 프로그램'을 통해 기존 도서관의 문화 프로그램의 이미지를 벗고 서비스 대상을 확대할 수 있었으며, 새로운 도서관의 이미지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 향후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은 인문학 프로그램을 정기화 하고, '인문학 프로그램 수강자들의 커뮤니티 형성', '도서관 연합 인문학 프로그램' 등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Ⅰ. 공공도서관의 문화 프로그램은 어때야 할까?

현재 대한민국의 많은 공공도서관에서 '문화 프로그램'을 찾아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도서관에서는 정보이용, 문화활동, 평생교육 증진이라는 목표아래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들을 마련하여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고 있고, 과거와 다른 도서관의 모습들을 만들어 가고 있다.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도서관다운 것인지 의문스럽고, 그 서비스 대상도 민중의 대학이라 일컬어지는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대상에 비해 협소해 보인다. 이것은 비단 필자의 생각만이 아닌 듯하다. 도서관법의 개정에 따라 만들어진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기획단과 한국도서관정보학회가 공동으로 진행 중인 연구인 <문화프로그램 지원 방안 연구> 1차 전문가 회의 발표문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 하지만 현재 도서관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등의 다른 문화기반시설이나 각종 복지관 등 복지 시설, 심지어 백화점에서 운영되는 문화프로그램과 별반 차별화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도서관내에서의 평생교육프로그램과도 그 경계가 모호하다.
>
> 또한 국내 공공도서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다수의 문화프로그램들은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나 요구사항, 프로그램 만족도의 분석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참여 대상자도 주부 및 초등학생 계층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고, 또한 주제 분야에서도 특정분야에 치우쳐 있어 다양한 주제 분야의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문화기반 시설과의 연계가 부족한 실정이다.[2)]

사실 실무를 담당하는 사서로서 현장의 이런 문제는 십분 이해된다. 청소년이나 직장인, 대학생 등 새로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 프로그램을 준비하다 보면, 사람을 모집하는 것 때문에 시쳇말로 피가 마른다. 어렵게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만들었는데, 사람들은 관심을 보이지 않고 행사 당일 썰렁한 행사장에서 느끼는 느낌은 실무자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그렇다보니, 사람들이 먼저 관심을 보여주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만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기 마련이다.

뿐만 아니라 서비스 대상을 다양화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강사 섭외, 예산 확보 등의 문제가 산적해 있다. 현재 공공도서관이 책정하고 있는 강사비로는 우수한 강사를 확보하기 힘들고,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강사 섭외를 위한 경로를 찾기도 만만치가 않다. 또한 이를 책임지고 기획, 운영할 전문 담당 인력도 항상 부족한 실정이다.

---

2)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지원 방안 연구 1차 전문가 회의 자료집」, 2쪽.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도서관 현장에서는 비교적 강사 섭외와 모객이 용이한 주부나 어린이 대상 위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른 문화기관과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기획해 내지 못하고 있다. 예전과는 많이 발전된 문화 프로그램들이 곳곳에서 만들어지고 있으나, 전체적인 흐름은 예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적 제한은 언제나 있어 왔다. 이러한 제약들은 우리가 극복해야 할 대상일 뿐이지, 넘지 못할 벽은 아니다. 문제는 어떻게 계기를 만들고 극복할 길을 열어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다.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에서는 이런 문제를 개관 전부터 직원들이 공유하고 토론했다. 도서관의 서비스 대상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기존 이용자들에 대한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도서관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책, 잡지, DVD, 온라인 강좌 등 다양한 정보자료들과 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서들이 있는 공공도서관이라면 백화점 문화센터, 구민회관과는 다른 도서관다운 프로그램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백화점 문화센터보다 우리들이 더 잘 만들어 낼 수 있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더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해야 하지 않을까?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에서는 가장 도서관다우면서도 가장 훌륭한 독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인문학 프로그램'이다. 인문학 프로그램은 새로운 사람들을 도서관에 끌어들였고, 도서관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가져왔다. 그리고 어느 덧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의 한 브랜드로서의 자리 잡고 있다. 이 인문학 프로그램의 사례를 통해 도서관다운 문화 프로그램이란 어떤 것이고 도서관계에서 어떤 문화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야 하는지를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한다.

Ⅱ.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의 인문학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1. 원칙 세우기 : 길 떠나기에 앞서

도서관다운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당 도서관이 추구하는 가치를 점검해야 한다. 그 가치를 구성원들과 공유하고 그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원칙을 세워내야 한다. 그래야만 해당 도서관에 맞는 도서관다운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기업과 다른 단체와 비교한다면 일종의 도서관만의 브랜드를 만들어 내야 하는 것이다.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은 개관을 준비하며 직원들은 우리 도서관을 '동대문구를 위한 도서관(Library for Dongdaemun-gu : L4D)'으로서 다음의 네 가지를 사명으로 정했다.

<표 1>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의 사명 : 4D

Devotion	동대문구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Delivery	꼭 필요하고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Development	**자기계발**과 **평생교육**을 돕겠습니다.
Democracy	**민주적**으로 **참여**하는 장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명을 기본으로 하여 우리 도서관은 어떤 공간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였다. 그 결과 우리 도서관은 소통(Communication)을 기반으로 한 '사색과 성찰의 공간'[3], '배려와 나눔의 공간'[4]으로 만들어 나가자고 하였다. 도서관이 사람들에게 더 깊은 사색과 성찰을 통해 소통하고 삶을 재충전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자 했으며, 도서관을 통해 남을 배려하고 도서관에서 익힌 것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랬다. 이러한 사명과 가치 아래 우리 도서관은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할 지에 대한 원칙을 다음과 같이 세웠다.

<표 2>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의 문화 프로그램 운영 원칙

1	백화점 문화센터, 구민회관 등과 차별성을 가지고 타 도서관 프로그램과 가급적 중복을 피한다.
2	주민들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知的(지적)으로 발전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한다.
3	프로그램의 대상과 내용은 공익성을 기반으로 하되 경제적, 문화적으로 소외된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4	모든 프로그램은 자료(책, 잡지, DVD 등)와 독서 및 토론과 연계하여 운영한다.
5	외부의 상업적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수준 높은 프로그램일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제휴하여 도입한다.

2. 기획 : 길 떠날 계획하기

프로그램 원칙을 정하고 개관 이후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그러나 갓 개관한 새내기 도서관으로서 문제의식은 높았으나, 이에 맞는 문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3) "사색·성찰의 공간…독서실이 없어요", <경향신문> 2007년 7월 3일자 기사를 참고하시오.
4) "도서관에 오실 때 꼭 가져오실 것은 남을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배려'는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모든 시민들이 지녀야 할 가장 수준 높은 태도입니다. 도서관을 나가실 때 꼭 가져가실 것은 바로'나눔'의 정신입니다. 오늘 배우고 익힌 것을 세상을 위해 나누시기 바랍니다. '나눔'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태도입니다.",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 이용자 교육 영상물 '이용자 수칙'>

내지는 못하고 있었다. 운영이 반년 정도가 접어들며 이러한 문제를 다시금 검토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모색하고 있었다.

이 때(2006년 말)『희망의 인문학』[5]이란 책이 발간되면서 우리 삶의 다양한 현장에 인문학을 접목시키려는 시도들이 사회적으로 부각됐다.『희망의 인문학』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인문학을 통해 세상을 성찰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줘 세상과의 소통과 참여의 기회를 넓혀 주는 클레멘트 코스라는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었다. 우리는 여기에 주목하게 되었다. 희망의 인문학이라는 책에서 '성찰'과 '사색', 그리고 '소통'이란 키워드를 발견한 것이다.

발걸음이 바빠지기 시작했다. 먼저 현재 인문학을 진행하고 있는 곳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철학아카데미, 풀로엮은집, 한겨레문화센터, 성 프란시스대학 등 다양한 곳에서 인문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다. 아쉽게도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곳은 발견하지 못했다. 개인이 모두 갖추기 힘든 방대한 자료와 공간,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는 도서관이야말로 인문학의 보고 아닌가? 그 다양한 성찰과 사색의 도구들을 가지고도 도서관에서는 활용을 못해왔던 것이다.

여러 차례의 회의 끝에 도서관에서의 인문학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에 직원들이 합의하였다. 문제는 '희망의 인문학'의 클레멘트 코스와 같이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가 문제였다. 도서관이 처한 조건과 지역주민들의 준비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일반인부터 시작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을 내렸다. 이에 프로그램의 방향은 일반인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생활 속 인문학'이라 정했다. 때마침 도서관 연장개관 시범사업으로 야간에 도서대출 뿐 아니라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예산도 지원받을 수 있어 예산의 문제도 해결되었다. 이제 남은 문제는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과 강사 섭외였다.

3. 섭외 : 길 떠날 동무 찾기

처음에는 테마를 도서관에서 정하고 그에 맞는 강사를 하나하나 섭외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것이 만만치가 않았다. 경험이 일천한데다 어렵게 주제를 정해도 섭외가 어려웠다. 도서관의 온갖 인문학 서적들을 가져와 이리 맞추고 저리 맞추고 해 봤지만, 머릿속에 정돈되지 않는 퍼즐 조각들이 잘 맞아 들어가지 않았다. 끙끙대며 준비하던 차에 이렇게 경험 없는 우리들이 지지부진 머리만 싸매고 있기보다 전문가들에게 직접 찾아가 함께 머리를 맞대보기로 했다. 무언가 만들어야 한다는 강박에 가장 기본적인 것을 잊고 있었다. 가장 확실한 몸으로 직접 부딪히고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을.

이에 인문학 공동체로 '아무도 기획하지 않은 자유'를 일궈나가고 있는 <연구공간 수유+너머>에 찾아가 보기로 하였다. <연구공간 수유+너머>는 자신들의 학문공동체를 이뤄나

5) 얼 쇼리스,『희망의 인문학』, 고병헌, 이병곤, 임정아 옮김, 이매진, 2006.

가는 집단이다 보니 밖에서 보았을 때 콧대 높고 폐쇄적인 사람들로 비춰졌다. 과연 이름 없는 도서관에서 불쑥 찾아가 함께 하자고 했을 때, 선뜻 반겨줄지 걱정부터 앞서기도 했다. 그러나 사람은 만나보기 전에 모르고, 일도 부딪혀보기 전에는 모른다. 결심이 서자 무작정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만나보기로 했다. 꼬불꼬불 용산의 산동네에 어렵게 찾아가 만나본 사람들은 생각과 달랐다. 자신들을 찾아주는 곳이 있다는 것이 반갑고 새로운 만남이라고 반겨주었다. 일은 일사천리로 풀려갔다. '생활 속 인문학'에 공감하고 공부, 화폐, 생명, 예술, 섹스, 문학, 이주, 행복 등 다양한 주제를 제안해 주었다. 이제 남은 건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었다.

4. 모객 : 우리의 길 알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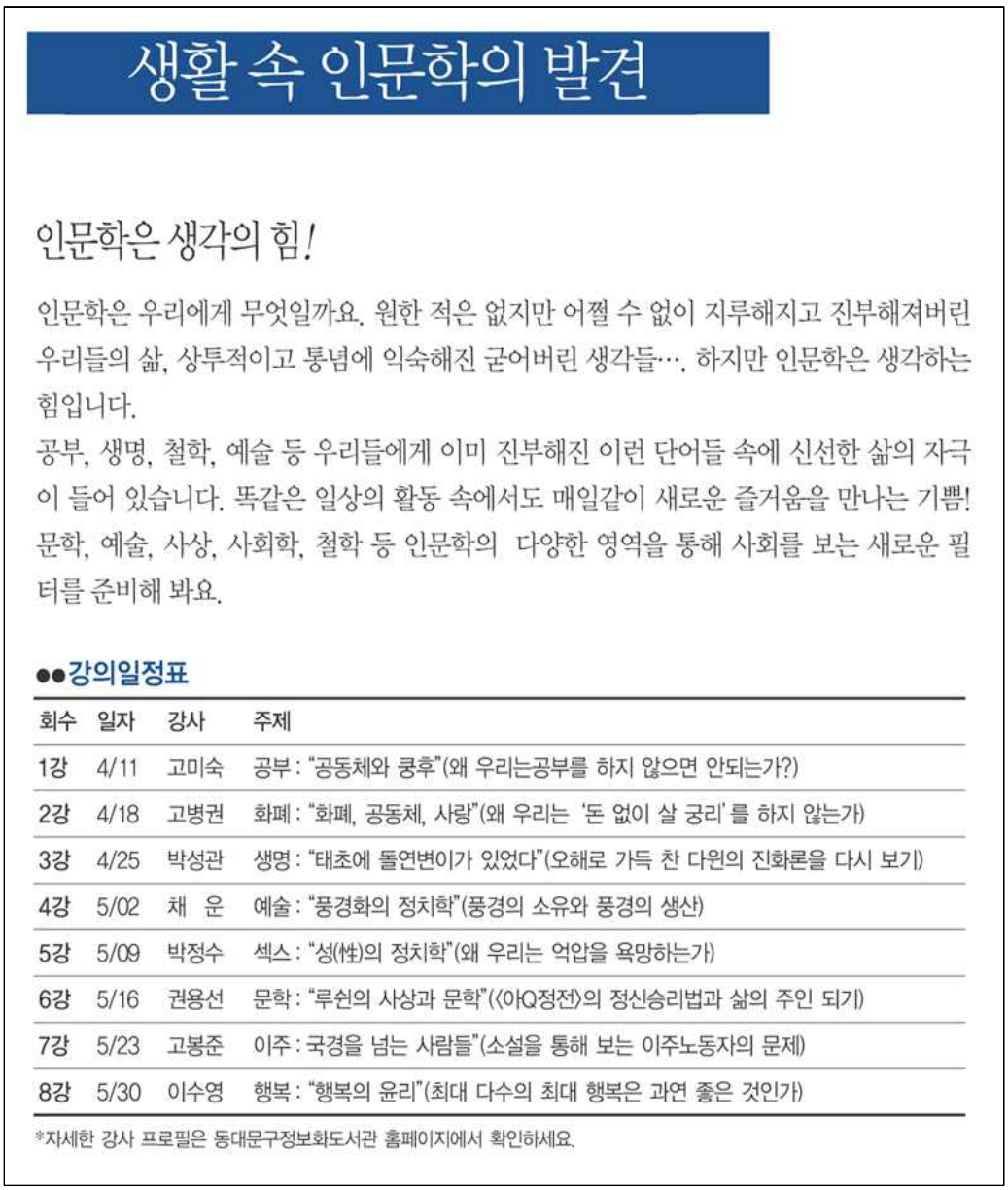
가장 두려운 부분이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었다. 대학에서 조차 사양학문으로 취급받고 기피하는 인문학. 대학에서도 이름 난 인문학자의 강의라고 해도 좌석을 채우기 힘들다고 하는데, 도서관에서 과연 사람들을 모을 수 있을 지 걱정이었다.

목표는 40~60명. 우선은 프로그램 대상이 일반인이긴 하지만, 야간 프로그램(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진행)으로 평소 도서관 접근하기 어려운 직장인들, 대학생들을
중심 타깃으로 정했다. 중심 타깃에 맞춰 인근의 경희대, 고려대, 카이스트에 홍보물을 배포했다. 또한 직장인들이 인문학에 대한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많이 찾는 인터넷 사이트들을 찾아 프로그램을 알려나갔다. 그리고 지역신문, 케이블 방송 등을 적극 활용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해 언론사들에 대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펼쳤다. 더불어 기존 도서관 회원들에게 이메일 마케팅 도구를 통해 뉴스레터를 발송했다.

반응은 더뎠다. 그러나 꾸준했다. 2주간의 모집기간동안 어느덧 40명 정도가 모였다. 폐강될까 조마조마하고 20명이라도 채우면 다행이라고 생각하던 대부분의 직원들은 놀라워했다.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이 나타난 걸까.

<표 3> '생활 속 인문학 프로그램' 언론 보도 기사

동대문신문	07. 3. 21.	생활 속 인문학, 도서관에서 배워요
동대문구소식	07. 4월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과 함께하는 인문학, 글쓰기 특강
문화일보	07. 3. 26.	동대문구청 도서관서 인문학 특강
서울신문	07. 3. 28.	동대문구 새달 11일 인문학특강 개설
시사포커스	07. 3. 31.	'인문학 공부'는 도서관에서
오마이뉴스	07. 3. 31.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 생활 속 인문학 특강 실시
경향신문	07. 4. 11.	약자를 일으킨 '인문학의 힘'



생활 속 인문학의 발견

인문학은 생각의 힘!

인문학은 우리에게 무엇일까요. 원한 적은 없지만 어쩔 수 없이 지루해지고 진부해져버린 우리들의 삶, 상투적이고 통념에 익숙해진 굳어버린 생각들…. 하지만 인문학은 생각하는 힘입니다.
공부, 생명, 철학, 예술 등 우리들에게 이미 진부해진 이런 단어들 속에 신선한 삶의 자극이 들어 있습니다. 똑같은 일상의 활동 속에서도 매일같이 새로운 즐거움을 만나는 기쁨! 문학, 예술, 사상, 사회학, 철학 등 인문학의 다양한 영역을 통해 사회를 보는 새로운 필터를 준비해 봐요.

●●강의일정표

회수	일자	강사	주제
1강	4/11	고미숙	공부 : "공동체와 쿵후"(왜 우리는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가?)
2강	4/18	고병권	화폐 : "화폐, 공동체, 사랑"(왜 우리는 '돈 없이 살 궁리'를 하지 않는가)
3강	4/25	박성관	생명 : "태초에 돌연변이가 있었다"(오해로 가득 찬 다윈의 진화론을 다시 보기)
4강	5/02	채 운	예술 : "풍경화의 정치학"(풍경의 소유와 풍경의 생산)
5강	5/09	박정수	섹스 : "성(性)의 정치학"(왜 우리는 억압을 욕망하는가)
6강	5/16	권용선	문학 : "루쉰의 사상과 문학"(〈아Q정전〉의 정신승리법과 삶의 주인 되기)
7강	5/23	고봉준	이주 : 국경을 넘는 사람들"(소설을 통해 보는 이주노동자의 문제)
8강	5/30	이수영	행복 : "행복의 윤리"(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은 과연 좋은 것인가)

*자세한 강사 프로필은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그림 1> '생활 속 인문학 프로그램' 홍보물

5. 진행 및 평가 : 길 다지기

진행과정에서도 놀라운 경험을 했다. 첫 인문학 강좌 시간. 지하 2층 시청각실을 메운 수강생들은 직장인, 고등학생, 전업주부, 교사 등 다양했다. 중심 타깃은 직장인, 대학생으로 홍보했지만 그 밖에도 인문학에 관심을 보이는 다양한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진지한 태도로 수강하고 있는 수강생들과 열정적으로 강의하는 강사의 열기로 시청각실은 가득했다. 시간이 더해가며 강사도, 수강생도, 직원도 도서관이란 곳에서 이와 같은 것도 진행할 수 있구나 하고 놀라고 한편으로는 희망을 가졌다. 첫 강의를 맡았던 고미숙은 도

서관이란 공간은 용법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다.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180° 다른 공간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다.

인문학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시간은 우리 삶을 깊이 있게 성찰하고 소통하며, 새로운 삶의 지혜를 얻어가는 시간이었다. 학교처럼 불가피한 교육의 장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모여든 사람들이 삶의 진지한 고민들을 나누고 가는 시간이었다.

강의가 회를 거듭하면서 강의 시작 전 음식을 가져오시는 분들도 생기고, 수강생들끼리 강의 후 자연스레 뒤풀이를 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이런 도서관의 새로운 시도에 많은 분들이 박수를 보내고 응원을 해 주셨다. 다음은 항상 건의와 불만이 주를 이루는 게시판에 올라온 인문학 강의에 대한 수강생의 글이다.

> 어제 고미숙 님의 쿵푸 강의 정말 좋았습니다. 공부에 대한 목적과 자세를 다시금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진행되는 몇몇 강좌는 도서관이면 으레 진행해야 할 특색 없는 것들이어서 조금 아쉬웠는데 이번 강좌는 공부의 공간, 도서관이 제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가 좀 더 많았으면 좋겠구요. 남은 강좌도 정말 기대됩니다. 강의를 준비하신 도서관 관계자 분들 고마워요.[6]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에서는 인문학 프로그램이 도서관-이용자 간의 '성찰'이라는 새로운 소통의 통로를 만들어 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도서관과 이용자의 새로운 만남이자 이야기가 만들어 질 통로 말이다. 이건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만의 평가가 아닌 듯싶다. 강사였던 고병권은 월간중앙과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인문학이 소통할 공간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방식의 새로운 긍정적 가능성이 커졌다. 이런 프로그램을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곳이 지역 도서관 같은 공간이다. 인문학 운동은 충분히 가능하다'[7] 고 평가했으니 말이다. 우리가 바라던 가장 도서관다운 프로그램이자 가장 훌륭한 독서 프로그램으로의 길이 다져진 것이다.

<그림 2> 인문학 프로그램 행사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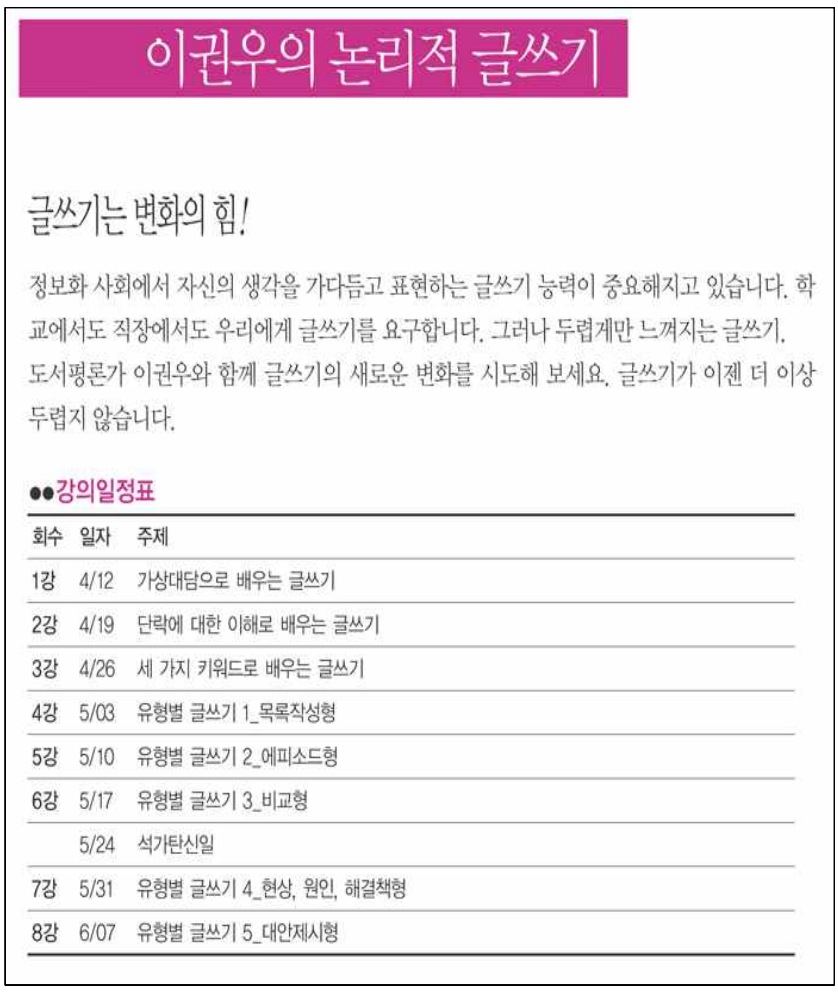
6) "인문학 강의 좋았습니다.",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 게시판 2007년 4월 12일.
7) "인터뷰 : 연구공간 수유+너머 고병권 대표", 월간중앙 2007년 5월호.

6. 이후 진행 : 꾸준히 길 걸어가기

지금까지 설명을 명료하게 하기 위해 생활 속 인문학을 중심으로 설명하였으나, 처음 시작 당시 글쓰기 강좌도 함께 병행하였다. 수요 인문학과 목요 글쓰기로 진행하던 첫 번째 인문학 프로그램을 마치고 난 뒤에도 꾸준히 인문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현재 3번째 인문학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다. 각 인문학 프로그램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기로 하겠다.

가. 이권우의 논리적 글쓰기

도서평론가 이권우를 초빙하여 논리적 글쓰기 강좌를 진행했다. 정보화 사회에서 자신의 생각을 가다듬고 표현하는 글쓰기 능력이 나날이 중요해 지고 있다.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에게 글쓰기를 요구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글쓰기를 두렵게 느끼고 있기에 이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한 강좌이다. 40명을 모집하여 30 여명이 수강하였다.



이권우의 논리적 글쓰기

글쓰기는 변화의 힘!

정보화 사회에서 자신의 생각을 가다듬고 표현하는 글쓰기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에게 글쓰기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두렵게만 느껴지는 글쓰기. 도서평론가 이권우와 함께 글쓰기의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 보세요. 글쓰기가 이젠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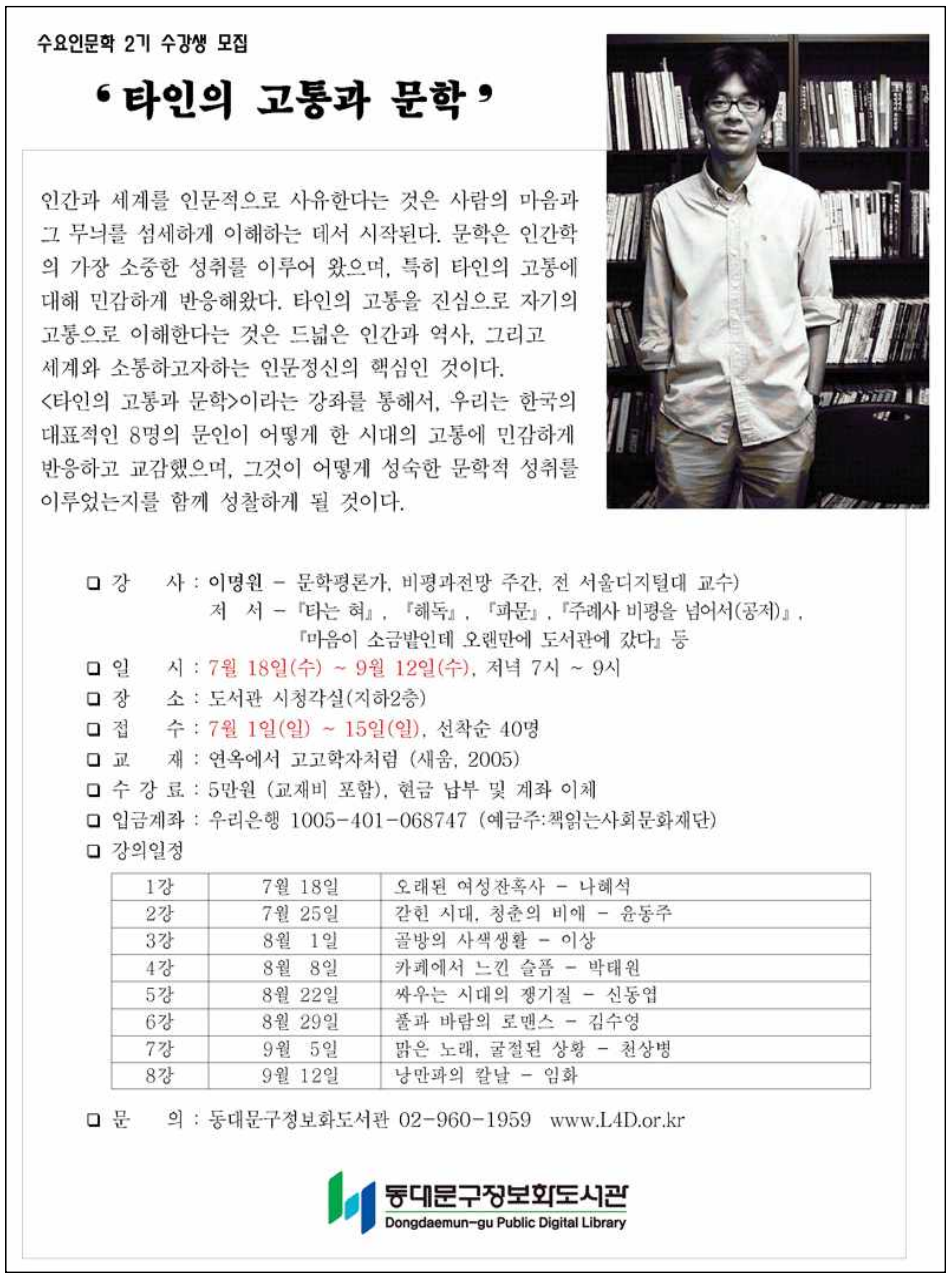
●●강의일정표

회수	일자	주제
1강	4/12	가상대담으로 배우는 글쓰기
2강	4/19	단락에 대한 이해로 배우는 글쓰기
3강	4/26	세 가지 키워드로 배우는 글쓰기
4강	5/03	유형별 글쓰기 1_목록작성형
5강	5/10	유형별 글쓰기 2_에피소드형
6강	5/17	유형별 글쓰기 3_비교형
	5/24	석가탄신일
7강	5/31	유형별 글쓰기 4_현상, 원인, 해결책형
8강	6/07	유형별 글쓰기 5_대안제시형

<그림 3> '이권우의 논리적 글쓰기' 홍보물

나. 타인의 고통과 문학

이 프로그램은 인간의 마음을 섬세하게 이해하는 데 가장 소중한 성취를 이뤄온 문학을 통해 인간과 역사, 그리고 세계와 소통하고자 마련한 2차 인문학 강좌이다. 문학평론가 이명원과 함께 <타인의 고통과 문학>이란 주제로 한국문학사 속의 중요인물을 통해 그들이 어떻게 성숙한 문학적 성취를 이뤄냈는지를 성찰하였다. 40명을 모집하였는데, 38명이 수강하였다.


수요인문학 2기 수강생 모집

'타인의 고통과 문학'

인간과 세계를 인문적으로 사유한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과 그 무늬를 섬세하게 이해하는 데서 시작된다. 문학은 인간학의 가장 소중한 성취를 이루어 왔으며, 특히 타인의 고통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타인의 고통을 진심으로 자기의 고통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드넓은 인간과 역사, 그리고 세계와 소통하고자하는 인문정신의 핵심인 것이다.
<타인의 고통과 문학>이라는 강좌를 통해서, 우리는 한국의 대표적인 8명의 문인이 어떻게 한 시대의 고통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교감했으며, 그것이 어떻게 성숙한 문학적 성취를 이루었는지를 함께 성찰하게 될 것이다.

- ❑ 강 사 : 이명원 – 문학평론가, 비평과전망 주간, 전 서울디지털대 교수)
  저 서 – 『타는 혀』, 『해독』, 『파문』, 『주례사 비평을 넘어서(공저)』, 『마음이 소금밭인데 오랜만에 도서관에 갔다』 등
- ❑ 일 시 : 7월 18일(수) ~ 9월 12일(수), 저녁 7시 ~ 9시
- ❑ 장 소 : 도서관 시청각실(지하2층)
- ❑ 접 수 : 7월 1일(일) ~ 15일(일), 선착순 40명
- ❑ 교 재 : 연옥에서 고고학자처럼 (새움, 2005)
- ❑ 수 강 료 : 5만원 (교재비 포함), 현금 납부 및 계좌 이체
- ❑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401-068747 (예금주:책읽는사회문화재단)
- ❑ 강의일정

1강	7월 18일	오래된 여성잔혹사 – 나혜석
2강	7월 25일	갇힌 시대, 청춘의 비애 – 윤동주
3강	8월 1일	골방의 사색생활 – 이상
4강	8월 8일	카페에서 느낀 슬픔 – 박태원
5강	8월 22일	싸우는 시대의 쟁기질 – 신동엽
6강	8월 29일	풀과 바람의 로맨스 – 김수영
7강	9월 5일	맑은 노래, 굴절된 상황 – 천상병
8강	9월 12일	낭만파의 칼날 – 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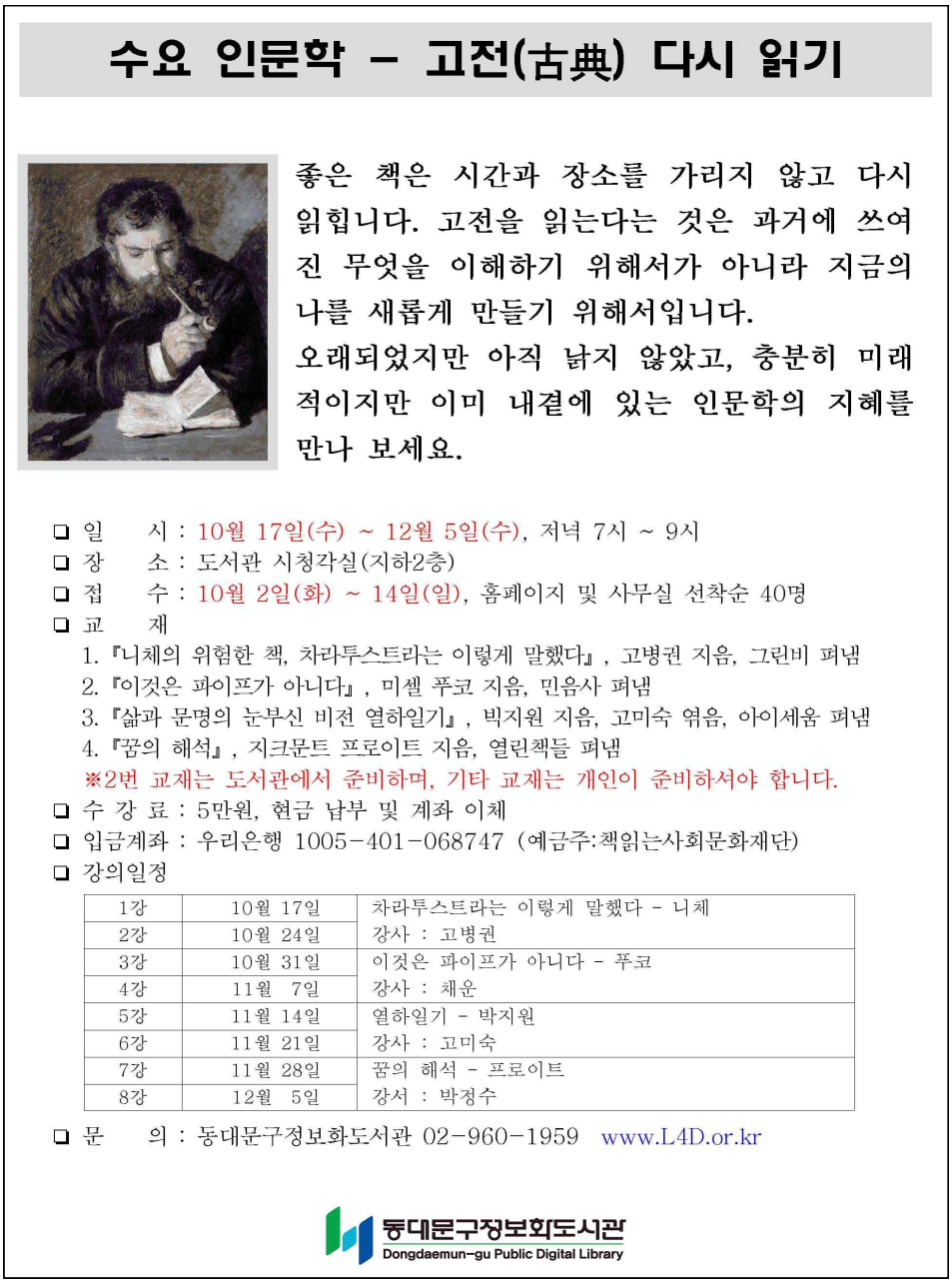
- ❑ 문 의 :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 02-960-1959 www.L4D.or.kr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
Dongdaemun-gu Public Digital Library

<그림 4> '타인의 고통과 문학' 홍보물

다. 고전 다시 읽기

3차 인문학 프로그램은 고전을 어떻게 읽어나가야 하는 지 나침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강의로 준비했다. 다시 <연구공간 수유+너머>와 함께 준비하였으며, 니체, 프로이트, 푸코, 박지원 네 사람의 고전을 선정하여 읽어보기로 하였다. 역시 40명 수강 인원에 현재 30명이 수강하고 있다.



<그림 5> '고전(古典) 다시 읽기' 홍보물

Ⅲ. 공공도서관을 통한 인문학 프로그램 향후 발전 방향

매주 수요일 저녁으로 자리 잡은 '인문학 프로그램'은 수요 인문학이라는 이름으로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의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으며, 지역 주민과 도서관계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아직 당초 도서관이 내세웠던 가치인 '성찰', '사색' 그리고 '소통'을 구체화 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은 향후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방향을 재설정하고 보완해 가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향후 인문학 프로그램의 발전방향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도록 하겠다.

1. 인문학 프로그램 수강자들의 커뮤니티 형성

인문학을 통한 소통의 자리는 만들어 졌지만, 그 자리를 통한 관계 맺기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 도서관-수강생, 수강생-수강생, 수강생-강사, 도서관-강사, 도서관-수강생-강사 등 다양한 관계 맺기를 이뤄낼 때 도서관이 추구하는 가치를 최대한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우선은 인문학 수강자들이 강좌가 끝난 후에도 도서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수강자들의 커뮤니티 형성을 유도해 나갈 생각이다. 현재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에서는 독서토론 모임을 대상으로 공간, 자료, 비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맞춰 인문학 수강자들에게 독서토론 모임을 권유하고 관심 분야가 비슷한 사람들이 독서토론 모임을 구성하여 지속적인 토론과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생각이다. 이 밖에도 좀 더 대중적인 온라인을 통한 커뮤니티를 만들어 나가는 방법도 적극 검토 중이다.

2. 도서관 연합 인문학 프로그램

인문학 프로그램을 꾸준히 진행해 감에 따라, 도서관에 대한 수강생들의 요구도 나날이 다양해지고 있다. 이렇게 시민들의 다양한 인문학적 요구를 하나의 개별 도서관에서 모두 만족시켜주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에 '인문학 프로그램'의 취지에 공감하는 도서관들이 있다면 연합 인문학 프로그램을 만들어 본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그렇다면 좀 더 다양한 인문학 프로그램을 도서관에서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또한 매번 진행될 때마다 수강생을 모집하는 데 많은 신경을 써야 하는 데, 공동 홍보를 통해 효율적으로 알려나갈 수 있을 것이며, 예산 절감의 효과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각 도서관마다 특색을 가지고 인문학을 진행하고, 도서관들이 연합하여 홍보하고 모집하는 모습을 상상해 본다. 이런 모습이 시민의 대학, 민중의 대학으로서의 도서관의 모습을 찾아가는 길이 아닐까?

Ⅳ. 맺는 말 : 길은 걸어가야 이루어진다.

지난 9월 8일 도서관에서는 출간 기념 저자 특강을 가졌다. 『장자, 차이를 횡단하는 즐거운 모험』[8]의 저자 강신주를 도서관에 초청해 새롭게 해석한 장자의 철학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 강의의 주된 내용은 장자의 철학은 道行之而成(도행지이성)의 철학이라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길은 걸어가야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얼핏 당연해 보이는 이 말은 삶의 현실에서 적용시켜 보면 녹록치 않은 말임을 알 수 있다. 기존의 길을 새롭게 걸어가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누구도 걸어가지 않은 길을 나서는 것은 선뜻 나서기 힘든 길이다.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에게 인문학 프로그램은 그런 존재였다. 예산부터 인력, 강사 섭외, 홍보 등 모든 것이 시작하기 전에는 걱정만 가득했었다. 그러나 첫 걸음을 떼기 어려웠을 뿐, 한 걸음 내딛기 시작하자 다른 길이 보이고 새로운 길이 만들어 졌다.

장자에 따르면 길은 애초에 정해져 있지 않다. 우리가 걸어가는 것만큼 새로운 길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우리 도서관계의 문화 프로그램의 길도 정해져 있지 않다. 우리가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만큼 새로운 길이 만들어 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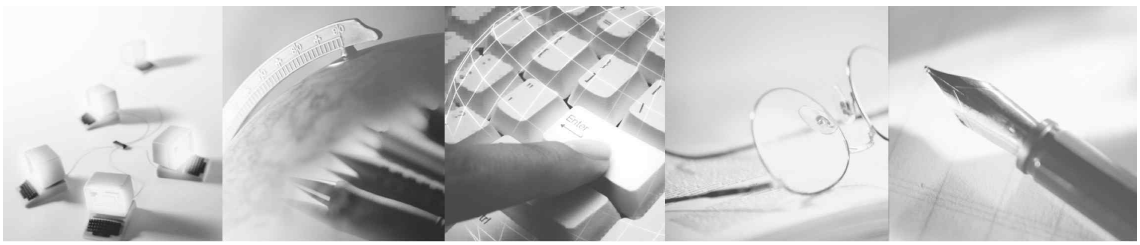
한 이용자는 우리 도서관을 '이 시대의 문화에 대한 갈증과 전문적 지식의 산책로를 열어주는 뜻있는 화약'[9]으로 표현해 주었다.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 인문학 프로그램이 화약이 되어 여러 공공도서관에서 함께 사색과 성찰, 소통이 넘치는 도서관을 만들어 갔으면 한다.

<그림 6> 『장자, 차이를 횡단하는 즐거움 모험』 출간 기념 저자 특강

8) 강신주, 『장자, 차이를 횡단하는 즐거운 모험』, 그린비, 2007.
9) '2기 수요인문학 수강생 모집 뉴스레터에 대한 C이용자 회신 글', 2007년 7월 4일.

울산을 바꾸는 힘

울산남부도서관에 있어요



기 관 명	울산남부도서관
제 출 자	임 미 희

현황 및 소개

울산남부도서관은 1989년 3월 공공도서관으로 개관하였으며, 지상 3층 지하 1층으로 전체 면적 1,355평의 규모이다. 운영 기구는 2개과(사서과, 총무과)로 구성되어 있고, 사서과는 3개팀(수서정리팀, 열람봉사팀, 평생교육팀)으로 조직되어 있다. 전체 직원 34명 중 사서는 14명이며, 종합자료실, 어린이실, 영유아·장애인자료실, 디지털자료실·연속간행물실과 울산광역시 남구 대단지 아파트 15개 지역을 순회 운영하는 이동도서관, 울산대공원 내에 공원문고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자료 및 독서회원 현황] (2007. 10.31)

구분	도서	비도서	연속간행물		독서회원현황
			신문	잡지	
계	186,161	13,626	28	109	89,295

[이 용 현 황]

구분	종합 자료실	어린이 자료실	영유아 자료실	디지털 자료실	장애인실	이동 도서관	공원 문고
대출자료	121,888	134,423	72,458	377	764	107,451	7,087
열람자료	243,770	266,823	217,374	751	1,433		29,064
대출자	75,067	86,370	35,265	904	159	60,331	3,266
열람자	112,691	129,555	52,898	1,808	239		14,980

우수사례 개요

산업도시 울산의 공공도서관에서는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책과 함께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오랜 숙원이었다. 이러한 바람과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의 초석을 다지기 위하여 울산남부도서관에서는 시설과 공간문제를 극복하고 봉사대상 인구를 계층적으로 분석하여 수준 높은 도서관 봉사를 제공하고자 다양한 시도를 하였다.

우선 도서관 사서들을 중심으로 상황별 책읽기 모임과 연구를 통하여 상황별 독서치료를 실제로 적용하고, 마음 아픈 이들을 위하여 자가 치유 도서목록을 제작하여 발간한 사업은 공공도서관 봉사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도서관과 사서를 바라보는 시각을 변화시켰고,

둘째, 어려서부터 책 읽는 습관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아가들에게 그림책을 제공하는 북스타트 운동 전개는 영・유아자료실 설치를 이끌어 내었고, 엄마의 등에 업혀있던 아가들은 도서관의 새로운 이용자로 부상하였다.

셋째, 오래되고 노후화된 도서관 공간을 벗어나 울산 시민들이 수없이 드나드는 울산대공원에 개설한 공원문고는 공원을 새로운 독서공간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고,

네째, 지역 아버지들을 통하여 가족독서문화 정착을 꾀했던 행복아버지독서회에서는 '북크로싱 운동'과 '아빠! 책읽어주세요' 행사를 통하여 지역민과 함께하는 독서문화행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다섯째, 2006년도부터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도서기증운동으로 확보된 자료들은 도서관 서가들이 지식의 보고로 자리할 수 있도록 알차게 채워가고 있다.

Ⅰ. 들어가며

[도서관전경]

산업도시 울산에서는 오래 전부터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책과 함께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도서관들이 가진 숙제 중의 하나였다. 산업적인 도시 분위기에서 문화적인 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책 읽는 도시, 책 읽는 분위기 확산'이란 시도는 도서관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울산시민들의 간절한 바램이다. 이러한 사명감은 울산남부도서관의 현실을 감안하여 더욱 다각적인 방법으로 독서사업을 시도하게 되었다.

울산남부도서관은 1989년 3월에 개관하여 올 해로 18년이 된 공공도서관으로 울산 산업·교육의 중심지이며 인구밀도가 높은 남구지역의 유일한 도서관이다. 하지만 노후화된 도서관 시설과 공간을 극복해야 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여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여타 지역보다 많은 봉사대상 인구를 계층적으로 분석하여 다양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연구를 거듭해 왔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범시민 책읽기 운동 확산에 크게 기여한 우리 도서관의 차별화된 독서문화 사업으로는 '아픈 마음을 치유하는 독서치료 프로그램', 북스타트 운동, 공원문고 운영, 행복아버지 독서회 조직, '책나눔, 행복더하기' 도서기증 운동이 있다.

Ⅱ. 범시민 독서활동 지원 사업

1. 마음 아픈 이들을 위한 독서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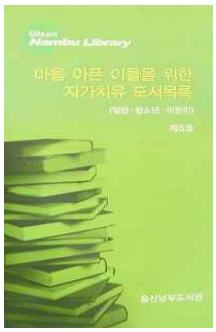
[남부독서치료동아리]

2002년 11월 울산남부도서관 사서들을 중심으로 [독서치료 연구모임]이 결성되었다. 이 모임에 참가한 사서들은 주기적으로 책을 읽고 서로 토론하는 과정을 통하여 독서치료를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였다.

상황별 독서토론을 거쳐 선정된 자료들을 정리하여 2003년 4월 [마음 아픈 이들을 위한 자가치유 도서목록]을 발간하였다. 또한 목록에 수록된 도서를 도서관 내 자료실에 [독서치료도서코너]에 자료를 비치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렇게 시작한 독서치료 목록 발간 작업은 2007년 올해로 6회 발간으로 까지 이어 졌다. 그리고 [독서치료 도서코너]는 울산지역 모든 도서관에 설치되어

울산의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독서치료는 더 이상 생소한 분야가 아니다.

그리고 독서치료 특강과 정기강좌에 참여했던 이용자들이 강좌 후에도 독서치료에 대한 관심과 기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동아리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다. 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독서치료의 상황별 실제 내용을 적용해 가면서 책으로 아픈 마음을 치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굴하고 있다.



[독서치료목록]

이러한 일련의 작업들은 사서들에 대한 시각을 바꾸는 데 큰 몫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책을 분석하여 사람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관련된 서적을 체계적으로연결해 주는 작업들은 분명히 전문가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강좌 및 동아리 참여자는 물론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끊임없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2. 독서교육의 첫 걸음은 북스타트 운동으로

가. E-mail 한 통으로 북스타트 운동에 날개를 달다.

[북스타트로고]

울산남부도서관은 교육에 대한 기대가 높은 가구들이 학교와 도서관 때문에 일부러 이사 온다는 울산 교육의 중심인 옥동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관내 5개 구·군 중에서 신혼가구 및 영·유아 인구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증가세를 보이는 지역적인 특징이 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에 맞는 이용자 중심의 봉사에 대해 고민하던 도서관에서는 2004년 전국도서관대회 기간 중 '북스타트 운동'에 대한 설명회에 참가하게 되었다. 낯선 외래어 같은 '북스타트 운동'에 대한 기대와 호기심으로 북스타트 운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보니 소요예산이 꼭 필요한 사업이었다.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독서운동의 저변확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신규사업을 포기하기에는 너무 아쉬움이 남아 '책읽는사회국민운동본부'에 북스타트 운동에 관한 전반적인 자문을 구하였고 그 이후 기본적인 사업안을 바탕으로 최소한의 예산(안)을 작성하고 사업을 꼭 진행해 보고 싶다는 의지를 구구절절한 내용으로 작성하여 울산광역시남구청장에 메일로 발송하였다. 그런데 놀랍게도 남구청에서 전화가 왔다. 남부도서관의 제의를 흔쾌히 받아들여 이제 막 최종 결재에 임박한 예산(안)을 정지시키고 북스타트 운동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여 새로운 예산(안)으로 재조정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북스타트 운동에 대한 예산이 확정되자 북스타트 운동은 드디어 날개를 달기 시작하였다.

나. 북스타트 운동을 알차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어린이자료실]

북스타트 운동에 대한 지자체의 예산 지원이 확정되자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은 빠르게 추진되었다. 우선 북스타트 여는 날 행사와 북스타트 운동 전개에 따른 책꾸러미 배부 계획을 협의하였다. 처음에는 북스타트 행사와 무료 배부되는 물품에만 관심을 두고 회의를 개최하였지만 수차례 이상의 회의를 거치면서 이 행사를 일시적인 행사가 아니라 지속적인 사업으로 전개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어린이실 담당자들은 영·유아를 가진 부모들이 어떤 고충을 털어 놓는지에 대하여 귀를 기울였다. 영·유아를 데리고 오는 이용자들의 불만은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 주고 싶은데, 초등학교 어린이들과 자료실을 같이 이용하는 상황에서는 소리 내어 책을 읽어 주려해도 눈치가 보인다는 것이다. 큰 아이들이 뛰어 다니기도 하고, 영유아들이 앉아 있거나, 기어다니기에는 위험한 집기들도 곳곳에 있고, 제일 큰 이유는 아기를 데려올 만큼 환경이 쾌적하지 못하다는 것이 영유아를 가진 부모들의 불만이었다.

영·유아가 있는 부모들의 의견과 영·유아들을 위한 독서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는 상황을 고려해보니 우선 자료실을 확보하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북스타트 사업을 보다 더 적극적이고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영·유아가 있는 부모들의 불만사항을 동시에 해소하려면 영·유아자료실을 만드는 것이 최선이라는 의견으로 모아졌다. 물론 일부 직원들은 새로운 자료실을 개실 할 경우 필요한 인원과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에 따른 복잡한 상황을 떠올리며 힘들지 않을까 걱정도 했지만 대다수의 직원들은 북스타트에 대한 긍정적인 열의가 더 많은 분위기였다.

다. 영·유아자료실은 북스타트 운동을 키웁니다.

영·유아자료실 공간 확보를 위한 자료실 및 자료이동은 너무나 힘들었지만 직원 대다수가 동원되어 꼬박 한 달 동안 작업하였다. 하지만 이렇게 어렵게 확보한 영·유아자료실을 막상 정리하고 보니 썰렁하기 그지없었다. 서가나 책상은 어린이실에서 제일 낮고 작은 것을 골라서 재활용하여 비치하고, 벽면과 천정에는 인테리어를 꾸밀 예산이 전혀 없었기에 아이디어를 모았다. 최소의 예산을 투입할 수밖에 없으니 자료실을 꾸밀 소품들과 북스타트 행사일에 사용할 행사용품을 손수 제작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직원들이 직접 손과 발고 뛰어서 북스타트 운동과 영·유아 자료실 개실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직원들이 직접 제작한 소박하고 정성스런 소품들은 북스타트 행사와 영·유아자료실에 대한 애착을 갖도록 해주었으며, 새로운 사업에 대하여 전체 직원들이 합심하는 계기가 되었다.

영·유아자료실 운영은 북스타트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터전이 되는 중요한 공간임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북스타트에 참여한 유아들이 도서관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북스타트 운동이 일시적인 이벤트가 아니고 지속적인 독서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후 북스타트 운동을 전개하는 도서관에서의 영·유아자료실 확충은 중요한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영유아자료실]

라. 우리 도서관의 북스타트 운동

[북스타트 여는 날 행사]

첫돌 이전의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 그림책 2권, 독서수첩, 등을 책가방에 넣어서 북스타트 등록대상 확인절차를 거친 다음 무료로 제공하는 북스타트 회원등록 사업에 영·유아가 있는 세대에서는 큰 호응을 보였다. 2005년 1월 26일 북스타트 여는 날 행사와 영·유아자료실 개실은 우리 지역은 물론 전국 도서관의 기대 이상의 관심 속에 개최되었다. 첫 해 성공적인 북스타트 운동의 성과는 지역 도서관과 전국 어린이 및 기적의 도서관과 공공도서관으로 확산되는 효과를 거두게 되었다. 지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전국 도서관의 주목을 끌게 되자 지자체에서도 2006년과 2007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주었다. 2005년 800명을 시작으로 2006년 이후 매년 2000만원의 예산 지원 아래 2006년에는 1,200명이 등록하였고, 2007년 올 해에도 1,4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첫 사업을 실시했던 2005년도에는 아기와 아기를 가진 부모들의 이동이 많은 보건소, 소아과병원, 산부인과 병원, 산후조리원, 백화점 문화센터, 대형 마트,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울산전역을 직원들이 순회하며 홍보전단지를 직접 돌렸다. 2006년부터는 **'찾아가는 북스타트'**라는 슬로건을 걸고 보건소, 병원, 공원 등으로 영·유아들을 직접 방문하여 회원등록을 접수하고 북스타트 참가기념품을 배부하였다.

마. 북스타트 운동이 거둔 결실

첫째, 전국 공공도서관에서는 최초로 2005년 1월에 전개한 북스타트 운동은 새로운 독서사업에 목말라하는 전국의 도서관으로부터 쇄도하는 문의를 받았으며 현재에도 꾸준히

[찾아가는 북스타트]

벤치마킹되는 우수한 독서운동 사례가 되고 있다.

둘째, 북스타트 운동은 영·유아를 도서관의 새로운 봉사 대상으로 부상시켰다. 도서관에서 엄마 등에 업혀 있거나 안겨있던 아기들이 이제는 자신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자료실을 가진 당당한 도서관의 이용자로 대우받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우리 도서관은 전국 도서관계에 영·유아를 새로운 봉사 대상으로 개척하는 귀감으로 부상했다.

셋째, 지역사회 유관 기관과의 연계하여 사업을 전개하여 독서문화 사업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을 높였다. 구청, 보건소, 병원, 동사무소, 문화센터, 산후조리원 및 평생교육기관을 통한 북스타트 홍보는 북스타트 사업이 빠르게 확산되는데 큰 일조를 하였다.

넷째, 북스타트 사업 전개로 도서관이 경직된 공공기관이 아니라 시민에게 다가가는 적극적인 봉사를 시도하는 기관 이미지로 인식되어 도서관의 이미지 제고에 큰 기여를 하였다.

다섯째, 북스타트 운동을 처음 시작한 영국에서 북스타트에 참여한 뒤 5년이 지난 아이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참여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에 비하여 집중력, 읽기, 수리, 언어 습득능력 등에서 우수한 능력을 보인다는 사실을 밝혔다. 독서 환경 속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인지능력 뿐 아니라 학습능력이 뛰어나다는 연구결과가 심심찮게 보도됨을 살펴볼 때 머지않아 북스타트 운동의 효과는 학교교육에서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이들이 성장기에 습득해야 되는 정서, 지식,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읽는 책은 다른 어떤 매체나 경험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도구이다. 북스타트 운동은 단순히 책을 읽는다는데 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부모와 아기가 책을 통하여 맺는 따뜻한 가족애 속에서 길러지는 친화력이 결국 사회의 건전하고 올바른 시민으로의 성장을 길러내는 바탕을 이룰 수 있기에 그 중요성이 있다.

[영유아자료실 이용 현황]

연도	등록회원	대출자	대출도서	열람자	열람도서
2005	1,163	29,771	82,136	97,689	247,217
2006	2,300	30,447	84,985	61,264	256,554
2007(9월)	3,115	30,775	65,398	61,550	261,592

3. 울산대공원에 가면 책향기가 납니다.

가. 울산대공원을 독서문화의 공간으로

오래된 도서관 시설을 벗어나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독서환경을 제공할 수 없을까하고 고민하던 울산남부도서관장은 도서관 바로 앞에 있는 울산대공원이 눈에 들어왔다. '도서관과 가까운 푸르른 저 공간에 책 읽는 분위기를 조성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데 생각이 들었다. 곧 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 직원들과 공원에 문고를 개설하자는데 뜻을 모아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우선 2005년 4월 초부터 사업추진을 위하여 이용객의 입장에서 최적의 입지를 찾고자 수차례에 걸친 현장 확인을 통하여 이용객의 이동경로, 주로 이용하는 시설,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세심한 현지답사를 하였다. 울산대공원을 관리하는 울산시설관리공단 담당자를 만나서 문고 개설을 제안했지만 갑작스런 요청에 사업시행이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하면서 고심하는 눈치였다.

[공원문고 실내]

울산대공원관리공단 사무실을 나오면서 공단 측의 반응은 뒤로 하고 우리는 몇 군데 더 돌아보면서 설치 장소를 고민한 결과 최적지로 SK홍보관을 물망에 올렸다. 도서관과도 제일 인접한 관문에 자리한 SK 기업의 홍보관은 세련된 벽면에, 깨끗하고 깔끔한 인터넷부스와 영상물 관람석이 시민들의 편의 공간으로 꾸며져 있어 문고로 꾸미기에는 안성맞춤이었다. 웰컴하우스의 좌우 벽면 쪽에 서가를 비치하면 우리가 원하는 문고로 충분히 활용할 만한 공간이었다.

나. 공원에 문고를 개설하기까지

SK홍보관를 담당하는 부서를 알아본 결과, SK(주)울산 Complex 홍보부가 관리 운영하는 공간임을 확인하고, 담당자들을 만나 공원문고를 개관하게 되면 울산대공원의 쾌적한 분위기도 즐기고 동시에 책도 읽을 수 있는 두 가지 즐거움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으니 얼마나 보람찬 일인가 하며 설득했다. 관계자들의 인식전환을 시키기 위해서 도서관에서는 수십 차례의 전화를 걸어도 별 효과가 없자 SK 기업의 홍보부 및 관계자들을 도서관에 초청하여 공원문고 개설에 대한 남부도서관의 의지를 진지하게 전달했다.

그 후에도 몇 차례나 대공원을 답사하여 적합한 방안을 SK(주)에 제시하였다. 도서관의 현장 감각이 있는 구체적인 안을 접한 SK(주)는 비로소 문고개설이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니다 라는 의견으로 좁혀졌으며, 드디어 2005년 6월말에 남부도서관과 SK(주)는 울산대공원에 '공원문고'를 개설하기로 합의를 했다.

그 즈음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는 이슈는 주5일 근무제 시행이었고 또한 7월 8월이면 휴가와 방학을 맞이한 시민들이 건전한 여가를 보낼 만한 공간이 무척 필요한 시기였다. 이 시기에 맞추어 울산대공원 내에 공원문고가 개설된다면 시민들의 공원 벤치나 잔디에서 책 읽는 풍경이 곳곳에 펼쳐지는 공원 분위기가 조성되어 '책 읽는 공원'을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을 SK(주) 관련자들에게 열심히 설명했고 그 결과 공원문고 개설은 드디어 진전을 보게 된 것이다.

다. 공원문고 드디어 그 모습을 드러내다

[공원문고 개관식]

'책으로 가는 행복한 세상, 울산대공원으로 초대합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울산남부도서관과 SK(주)울산Complex가 공동 운영하는 공원문고는 울산대공원 Welcome House (SK 홍보관)에 설치되었고 드디어 2005년 7월 27일 개관을 맞게 되었다.

처음 약정한 운영기간은 개관일로부터 8월 26일까지 한 달 기간이며 매주 월요일을 휴관일로 정했다. 울산 지역의 관심과 기대 속에서 개설한 울산대공원의 공원문고는 울산남부도서관에서 자료를 제공하고 SK(주)울산Complex가 공간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 기관별 지원 현황

기 관 명	지 원 내 용
울산남부도서관	· 도서 : 2,000권(일반도서 1,000권, 어린이도서 500권, 그림책 500권, 정기간행물 12종) · 도서목록 배부 : 독서치료목록, 추천도서목록 4종 · 영상물 및 영어교육비디오 상영 · 독서문화프로그램 : 북스타트 운동, 영어스토리텔링, 동화구연 등 · 기타 매스컴 홍보
SK(주)울산Complex	· 도우미 2명 배치 · 장소 제공 : 울산대공원 내 웰컴하우스 · 서가 : 9개 · 개관 홍보물 및 행사관련 기타 소요비용 지원 등 · 독서문화 프로그램 강사료 지급 · 문고 운영에 따른 홍보물 제작

이렇게 문을 연 공원문고에서는 신분 확인이 가능한 시민 누구에게나 책과 정기간행물을 빌려 주었고, 매일 영어교육 영상물 및 우수 영화를 상영하고, 주 1회 독서문화 프로그

램을 운영하였다. 시민들이 여유로운 휴식공간에서 자연스럽게 책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되자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공원에 도서관이 생겼다며 무척 반겼다.

라. 공원문고의 뿌리를 든든하게 내리다

[공원문고]

공원문고는 당초 휴가와 방학을 겨냥하여 7월 말에서 8월 말까지 한 달 기간 동안만 운영할 계획이었다. 한 달 동안 운영한 결과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로부터는 뜨거운 호응을 얻었고, SK(주)에서는 홍보관 안에 설치된 문고가 기업이미지 제고에 좋은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한 결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원문고를 연장하여 운영해 줄 것을 우리 도서관에 요청하였다. 이에 우리 도서관에서는 앞으로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책과 정기간행물, 영상물,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종전처럼 계속하여 지원하기로 하였다.

9월 '독서의 계절'이 다가오자 SK(주)에서는 울산대공원에서 '책 나누기 행복 더하기' 행사를 준비하면서 이 행사에 울산남부도서관의 지원을 요청해 왔다. 이 행사에 SK(주)전 직원은 물론이고 우리 도서관에서도 전직원들이 모두 동참하여 책을 모아 책교환 장터에 기증하였고, 키다리 영어샾, 반달회(동화구연가회), 색동어머니 동화구연가회, 재능 울산시낭송회와 같은 단체들을 SK(주)와 연결하여 영어스토리텔링, 동화구연, 시낭송, 시극과 같은 독서문화 프로그램 행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이러한 독서문화 확산과 관련된 문화행사 업무를 지원하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 도서관과 SK(주)는 더욱 든든하고 돈독한 동반자가 되었다.

마. 공원에서 펼쳐지는 독서문화 행사 한마당

2005년 5월부터는 매주 일요일 오후 4시면 공원문고 앞 인근에서는 영어스토리텔링, 동화구연, 동화책 읽어주기 행사를 진행하였고, 2006년 10월 말에는 울산남부도서관의 아버지·주부·학생·어린이 독서회와 문학강좌 동아리, 울산재능시낭송회 회원들이 참가하는 낭독 행사를 개최하여 주목을 받았었다.

[대공원 동화구연]

2006년 8월에는 웰컴하우스를 북 카페의 형태로 완전하게 탈바꿈시키기로 SK(주)와 협의하였다. 실내의 등받이 없는 의자는 테이블과 등받이 있는 의자로 새로 교체하고 문고 근처를 오가는 사람들이 책 읽는 공간임을 알 수

있도록 투명한 창으로 인테리어를 조성하였다. 실내에는 매월 추천도서 목록과 울산매일에 게재되는 '사서가 권하는 한 권의 책'에 대한 서평을 게시하고, 입구에는 드디어 '행복한 공원문고'라는 명패를 걸어서 울산대공원이 책 읽는 공원으로의 모습을 제대로 갖추자는 데에 뜻을 모았다.

[장미도서전시회]

그리고 2007년 6월 울산대공원 장미축제에 우리 도서관과 울산대학교 소장자료 중 장미를 주제로 한 도서들로 꾸민 '장미도서전' 개최는 대공원을 방문한 이용객들의 눈길을 모았다.

바. 공원문고에서 거둔 풍성한 수확

'행복한 공원문고' 개관은 우리 지역 공공도서관과 민간 기업이 손잡고 시민들의 독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최초의 시도이기에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공원을 독서하는 새로운 공간으로 확보함으로써 도서관 서비스 영역의 확대라는 성과를 낳았으며 그 결과 공원문고 운영은 공공도서관이 적극적으로 개척한 봉사영역으로 인식되어 시민들에게 공공도서관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바꾸어 놓았다.

그리고 공원문고 운영에 따른 제일 큰 성과는 무엇보다도 재원이 부족한 공공도서관이 지역의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새로운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일부를 창출해 낸 것이다. 또한 민간 기업은 시민들의 독서활동 지원에 참여하여 기업의 사회기여도를 높임으로서 기업 이미지를 좋게 평가받을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기에 공원문고 개설·운영은 울산남부도서관과 SK(주)울산Complex 양측 모두에게 WIN-WIN의 효과를 가져다주었다.

공원문고는 온 가족이 함께 나들이하는 공원에 독서하는 공간을 조성하여 울산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책과 함께 할 수 있는 분위기 속에서 '책 읽는 도시', '전 시민 독서생활화'를 지원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공원문고 운영 현황]

연도	자료 이용자(명)	이용 자료(권)	행사 참가자
2005	6,137	7,379	5,707
2006	11,573	24,780	7,833
2007(9월)	9,526	36,783	2,530

4. 책 읽는 아버지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가. 행복아버지독서회 창단

[아버독서회 창단]

우리 도서관에서는 2005년 상반기부터 자녀들의 독서습관과 가족 간의 책읽는 문화 확산을 위한 새로운 독서 리더로서 아버지를 지목하고, 아버지독서회 창단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6개월이라는 기간을 두고 도서관을 찾는 이용자 및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하였다. 그 결과, 2006년 1월 12일 18명의 등록회원을 중심으로 책을 사랑하는 아버지들의 모임인 『울산남부도서관 행복아버지독서회』가 창단되었다. 첫모임에서의 자유롭고도 열띤 토론의 장은 진한 열기로 가득 하였으며, 이러한 모습을 통해 앞으로의 아버지독서회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나. 아버지독서회가 꿈꾸는 아름다운 세상

[아빠! 책읽어주세요]

'책 한권 읽기'가 쉽지 않은 요즘, 울산남부도서관 행복아버지독서회는 아버지들의 지친 마음과 피로를 풀어주는 따뜻한 모임이다. 그리고 가족이 함께 도서관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계기와 책 읽는 가족독서문화 정착을 위한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25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다양한 주제의 독서토론회, 시낭송회, 문화기행, 초청특강, 기타 독서활동 이외에 '아빠! 책 읽어주세요' 자원봉사, '북크로싱' 운동 전개 등의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첫째, 행복아버지 독서회의 주요활동 내용은 매월 선정된 책을 읽고 토론하며 이루어내지 못했던 꿈들을 생활 속에서 발견하고 성취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둘째, '아빠! 책 읽어주세요' 행사에서는 행복아버지 독서회원들이 직접 참여하여 영유아자료실에서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동화를 들려준다. 또한 가끔 어린이들의 장래희망과 관련되는 직업을 가진 아빠를 초대하여 '아빠! 책 읽어주세요'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어린이들이 아빠를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고 어린이 자신이 희망하는 장래 직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들려주고 있다. 이 행사는 어린이들에게 책에 대한 친근감을 심어주고 아버지와 어린이가 독서를 통하여 하나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며, 평소 책을 거의 읽지 않는 아빠들에게도 강한 자극제가 되고 있다.

셋째, 범시민 독서운동 확산을 위하여 '북크로싱(Bookcrossing)'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책장 안에 잠들어 있는 책들을 다른 사람과 함께 돌려보며 책 읽는 풍토를 만들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책을 자연스럽게 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회원들이 매월 10권의 책에 '돌려읽는 책'과 '북크로싱운동의 취지'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여서 공공장소에 두면 시민들이 자유롭게 돌려읽는 운동이다. 현재 북크로싱 운동과 연계된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여(cafe.daum.net/cl2736) 책 읽는 기쁨을 네티즌과도 함께 누리고 있다.

[토론 도서목록 2006. 1월 - 2007. 11월]

운영 일시	운영 내용
2006. 1. 12(목)	독서회 명칭 선정, 회칙 제정, 임원선출, 연간활동 계획협의 등
2006. 2. 23(목)	『탁류』 / 채만식
2006. 3. 9(목)	『장외인간』 / 이외수
2006. 4. 6(목)	『상실의 시대』 / 무라카미 하루키
2006. 5. 11(목)	『고기잡이는 갈대를 꺾지 않는다』 / 김주영
2006. 6. 8(목)	『서드 에이지, 마흔 이후 30년』 / 윌리웜 새들러
2006. 7. 8(목)	『무녀도』 / 김동리
2006. 8. 10(목)	『배려』 / 한상복
2006. 9. 8(목)	『모모』 / 미하엘 엔데
2006. 10. 12(목)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 공지영
2006. 11. 16(목)	『인생수업』 /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2006. 12. 7(목)	총회, 결산보고, 회장단 선출, 2007년도 독서회 사업계획안
2007. 1. 11(목)	『돌베게』 /신영복
2007. 2. 8(목)	『2007이상문학상 작품집』 / 전경린 외
2007. 3. 8(목)	『데미안』 / 헤르만 헤세(독서토론), 『북크로싱 운동』 전개
2007. 4. 12(목)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 리처드 칼슨
2007. 5. 10(목)	『프랭클린 위대한 생애』 / 벤저민 프랭클린『마음을 비추는 거울』 / 신봉승
2007. 6. 14(목)	갯마을 / 오영수
2007. 7. 12(목)	먼나라 이웃나라 : 스위스편 / 이원복
2007. 8. 9(목)	청소년 부의 미래 / 앨빈 토플러
2007. 9. 13(목)	지구 온난화의 부메랑/김수종 외, 자기를 속이지 마라/정찬주
2007. 10. 11(목)	바리데기 / 황석영
2007. 11. 8(목)	먼나라 이웃나라 : 미국편 / 이원복

다. 행복아버지독서회의 열기가 전국으로 확산되기를

[책읽어주는 아버지]

행복아버지독서회는 책읽기를 통하여 가족 구성원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의 창구가 되고, 지역주민들에게는 친근한 도서관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기회가 되고 있다. 또한, 자녀들에게는 독서 호기심을 유발시켜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책 읽는 시민으로 성장하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으며, 가족독서를 통하여 가족 간의 행복과 사랑을 키워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렇게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아빠의 모습은 물질만능주의가 만연하는 요즘 세태에 또 하나의 밥상머리 교육이 되고 있다. 향후, 보다 많은 아버지들의 독서회 참여를 기대하며 행복아버지독서회가 시발점이 되어 아버지독서회모임이 울산 전 지역으로, 더 나아가 전국으로 확산되기를 희망해 본다.

5. 책나눔 행복더하기 도서기증 운동

가. 울산의 미래, 책 속에 있어요

[도서기증 선포식]

지역의 독서문화진흥을 위해 가장 중요한 자원은 책이다. 공공도서관에서는 다양한 도서를 확보하여 하지만 울산남부도서관은 법정장서수 조차 확보하지 못한 실정이다. 울산남부도서관의 2007년 말 보유하고 있는 도서현황은 185,490권으로 구민 1인당 0.5권에 불과하며 법정장서수 207,000권(2007년)을 갖추어야 하나 21,510권이 부족한 89%의 도서를 확보하고 있다.

울산남부도서관장은 지난 해 10월부터 열악한 재정을 극복하고 부족한 도서 3만 5천권을 갖추기 위한 3억 5천만원의 도서구입비 확보방안을 고심하던 중 한국동서발전(주)울산화력본부와의 협력을 통해 원자력발전기금의 일부를 도서구입비로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지정기탁에 의한 방법을 통하여 2006년 12월 한국동서발전(주)울산화력본부로부터 2천만원의 도서구입비를 기부 받아 2,812권의 도서를 확보할 수 있었다.

나. 민간인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 도서기증을 위해 발로 뛰다

그 후 지역주민 1인 1책 갖기라는 원대한 목표아래 1단계 사업으로 2007년 한 해동안 부족한 도서 3만 5천권을 갖추기 위한 3억 5천만원의 도서구입비 확보를 위해 세부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남구청장, 지역의 국회의원, 시·구의원들도 적극적인 동참을 하였다.

이어서 도서관운영위원장, 시·구의원, 중소기업협의회장, 라이온스 여성위원장, 남구여성협의회장, 행복아버지독서회장 등 민간인 10명으로 추진위원회를 조직하였다. 2007년 2월 15일 이 추진위원회를 통해 선포식을 개최하기로 협의하였다. 2007년 3월 7일 수요일 오후 3시 울산대공원 내 공원문고 입구 광장에서 '책 나눔, 행복 더하기 도서기증운동', '울산을 바꾸는 힘, 책 속에 있어요'라고 슬로건을 내걸고 선포식을 개최하였다.

다.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다

독서의 중요성과 도서기증운동을 전개하게 된 취지를 알리기 위해 각종 단체를 방문하고 도서기증에 대한 협조를 부탁하였다. 휴일도 반납하고 열심히 발로 뛰는 울산남부도서관 직원들을 보면서 공무원이 주어진 예산으로 일만 하면 될 텐데 특별예산 확보를 위해 힘들게 뛰어다니는 것을 보니 공직사회도 많이 변했다면서 열심히 해보라는 주위의 격려가 끊이지 않았다.

[기업체 도서기증]

라. 법정 장서수 확보를 위한 성과를 달성하다

도서기증운동을 위한 도서관의 노력은 지역의 많은 기관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고, 이를 지원하는 많은 시민들의 관심으로 울산광역시로부터 시 포괄사업비 중 3억을 도서구입비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기업과 지역주민들의 신간도서 기증도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일 년 기간으로 추진하였던 기증운동이 짧은 기간에 큰 성과를 거둔 것은 시대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한 결과이다. 결코 좌절하지 않았기에 법정장서수를 갖추기 위한 목적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다.

마. 책은 우리 사회의 희망이다

울산남부도서관은 지식·정보인프라 구축을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 첫 걸음의 성과는 부족한 법정 장서수 확보라는 기대보다 큰 수확을 가져왔으며 다각적인 변화의 바람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주었다. 독서문화 환경 조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자원인 도서의 확보는 이제 도서관만의 문제는 아니다. 독서의 중요성과 도서관을 되돌아보는 인식의 변화를 가져온 이번 운동을 시작으로 머지않아 지역주민 1인 1책을 갖추기에 돌입하게 될 것이다.

Ⅳ. 사업 성과

[교육인적자원부사례발표]

최근 울산남부도서관의 새로운 바람과 개혁들은 도서관은 물론 이용자에게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우선 독서치료를 위한 사서들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인 독서치료 목록 발간 및 동아리 운영은 사서의 전문성을 고도화한 사업으로 공공도서관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

둘째, 책읽는 선진 공원문화 조성을 위한 공원문고 설립은 2006년 울산광역시교육청 주최 울산교육혁신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독서문화 사업전개에 민간기업의 공동운영을 이끌어 내는 물꼬를 틔우는 계기가 되었다.

셋째, 공공도서관으로서는 최초로 전개한 북스타트 운동은 울산남부도서관이 도화선이 되어 이제는 전국공공도서관으로 그 열기가 전해지게 되었다. 도서관은 물론 시민들에게 북스타트 운동은 이제는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영유아 책읽기 프로그램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넷째, 불과 2년 전 시작된 책 읽는 아버지, 행복아버지 독서회의 성공적인 운영사례에 대해서는 지역은 물론 전국공공도서관으로부터 많은 관심과 부러움을 사고 있는 부문이다. 2007 교육인적자원부 최고 지도자과정 우수사례로 선정되었고, 2007전국평생학습축제 우수동아리로 선정되어 지역은 물론 전국에 그 이름을 알리게 되어 아버지독서회원들의 자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다섯째, 공원문고 운영으로 민간기업으로부터 공공도서관의 부족한 재원을 확보한 사업과 더불어 2006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책 나눔, 행복 더하기' 범시민 도서기증운동은 부족한 장서 확충에 기여한 공로로 2006년 울산광역시교육청 재정효율화기관부문 장려상을 수상하여 도서관에 대한 이미지 제고에 큰 기여를 하였다.

Ⅴ. 맺는 글

한국의 산업 수도라 일컫는 울산 지역에 독서하는 분위기를 형성하고자 울산남부도서관은 다양한 노력을 하였다. 책 읽는 공간을 개척하고자 울산 시민들이 수없이 드나드는 공원에 문고를 개설하였고, 독서운동의 새로운 계층을 발굴하기 위하여 실시한 북스타트 운동은 학교 독서교육을 더욱 튼튼하게 지원하는 뿌리가 될 것이며, 나아가 국민 문맹퇴치에 일익을 담당하는 사업으로 자리하여 우리 사회를 보다 발전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큰

저력이 되리라 기대해 본다. 또한 1인 1책 갖기 운동으로 채워진 서가들은 든든한 지식의 보고가 될 것이다.

[책읽어주는 할머니]

우리 도서관의 이렇듯 다양한 사업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세심하게 배려하고자하는 서비스를 목표로 한다. 찾아가는 도서관, 성장하는 도서관, 적극적인 도서관으로의 변신은 분명 이용자를 만족시키고 감동시킬 것이다. 도서관이 좋아서 도서관이 편해서 도서관에 오면 행복하기 때문에 자연스레 도서관으로 발걸음 하게 되는 그날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고 있다. 언제나 찾아오면 편한 곳,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는 창, 원하는 자료가 가득한 도서관, 그래서 꿈과 희망을 채워주는 울산남부도서관이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울산의 미래를 밝혀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져본다. ‘도서관은 울산의 희망이자, 미래이다.’

(도서관연구소자료집 ; 1)

도서관 현장 발전 우수사례 2007

2007년 12월 12일 인쇄

2007년 12월 14일 발행

발 행 인 : 권 경 상
기 획 : 이 재 선
편 집 : 윤 경 환

발 행 처 : 국 립 중 앙 도 서 관
도 서 관 연 구 소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로 664
전화: (02) 590-0526
팩스: (02) 590-0712

인 쇄 : 신성인쇄상사(Tel. 02-2272-0345)